

건축사

2001 02 vol. 382

- 칼럼 _____ 우리가 고대하는 건축계
- 작품리뷰 _____ 고양시 덕양구청사
- 기고 _____ 한국 주택의 공간구조 변천에 대하여
- 해외건축 _____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설계원리와 미학(6)



차례 2001 2 382호



고양시 덕양구청사(최삼영작)



발행인: 이희구
 편집인: 서천식
 편집분과위원회: 위원장/장양순
 위 원/김정희, 김홍수, 유원재, 조현군, 최동규
 편집·취재: 정호상, 조한국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협회창립일: 1965년10월23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 http://www.kira.or.kr
 E-mail: hkjo@kira.or.kr hsjoung@kira.or.kr
 U. D. C: 69/72(054-2): 0612(519)
 인쇄인: 유상태/천풍전산인쇄
 광고: (주)한마당21 (02)702-1871~2

Publisher: Lee Eui-Koo
 Editor: Seo Cheon-Shik
 Editorial Member : Chang Yang-Soon, Kim Joung-Hwoos, Kim Heung-
 Soo, Yoo Won-Jai, Cho Hyun-Goon, Choi Dong-Kyu
 Assistant Editor: Editorial Tea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U. D. C: 69/72(054-2): 0612(519)
 Printer: You Sang-Tae (Cheon Poong Printing Co.)

| | | | |
|------------------|--------------------------|---------|-----|
| 칼럼 | 우리가 고대하는 건축계 | 이상해 | 10 |
| 작품리뷰 / 고양시 덕양구청사 | 대담 : 소박함과 열정 | 최삼영 | 12 |
| | 비평 : 최삼영 건축의 조용한 울림 | 전진삼 | 24 |
| | | 김정후 | 32 |
| 회원작품 | 경동교회 선교관 | 조구현+임창복 | 36 |
| | 양구전투기념관 | 이성관 | 40 |
| | 지축동 주택 | 이관직 | 45 |
| | 흥국생명보험(주) 신문로 사옥 | 부대진·김두현 | 50 |
| | 동림동 동사무소 | 정태호 | 54 |
| 작품노트 | 점성제 | 민규암 | 56 |
| 기고 | 한국 주택의 공간구조 변천에 대하여 | 노형래 | 60 |
| 해외건축 |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설계원리와 미학(6) | 한동수 | 67 |
| 건축만평 | | 유원재 | 74 |
| 건축미당 | 협회소식 | | 75 |
| | 건축계소식 | | 76 |
| | 해외잡지동향 | | 81 |
| | 현상설계 | | 87 |
| | 법령 | | 98 |
| | 회원현황 | | 102 |
| | 통계(2000년도 12월분 설계도서신고현황) | | 103 |

Column

The Architectural Society for the New Age Lee Sang-Hae 10

Review / Deogyang-gu Office in Goyang City Choi Sam-Young 12

interview Modesty and Passion Jeon Jin-Sam 24

critique The Tranquil Resonance of Choi Sam-young's Architecture Kim Jung-Hoo 32

Works

Mission Hall of Gyeongdong Presbyterian Church Cho Ku-Hyun & Lim Chang-Bok 36

Battle of Yanggu Memorial Hall Lee Sung-Kwan 40

Jichuk-dong Residence Lee Kwan-Jik 45

Hungkuk Life Insurance Sinmun-no Building Bou Dae-jin & Kim Moo-Hyun 50

Dongnim-dong Office Choung Tae-Ho 54

Design Note

Cheom Seong Jae Min Kyu-Am 56

Feature

On the Diachronic Transition of Korean Houses Roh Heoung-Rae 60

Overseas Architecture

The Principles and Aesthetics of Traditional Landscape Han Dong-Soo 67

Architecture of China

Cartoon Yoo Won-Jai 74

Architects' Plaza

KIRA News 75

Archi-Net 76

Overseas Journal 81

Competition 87

Laws & Ordinances 98

Members 102

Statistics 103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1~4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06-7475 · 강북구건축사회/303-3425 · 강서구건축사회/631-6939 · 관악구건축사회/884-0048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339-5781 · 도봉구건축사회/954-1253 · 동대문구건축사회/923-6213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5251 · 서대문구건축사회/333-6411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6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89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88-1486 · 종로구건축사회/737-3030 · 중구건축사회/201-5740 · 중랑구건축사회/437-33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8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5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구리지역건축사회/(031)58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3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97~3 · 시흥지역건축사회/(031)694-4121 · 인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38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건축사회/(031)375-86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8-0140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3)8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1-8705 · 속초지역건축사회/(033)833-8163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658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9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3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충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543-3588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51-1537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4-3367 · 백제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1)881-428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62-378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667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852-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8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6689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3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6-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3244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4-8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6023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8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5)334-8644 · 마령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지역건축사회/(055)833-9779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6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9)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

우리가 고대하는 건축계

The Architectural Society for the New Age

이상해 /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Lee Sang-Hae

우리들은 건축에 첫 발을 들여놓았을 때, 좋은 건축에 대한 자각이나 좋은 건축을 보고 얻는 희열로 건축으로도 아름다운 삶을 구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건축에 대한 순수함 자체로 충만된 지난간 시절의 아름다운 기억을 건축인들이면 누구나 소중히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일찍이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테스트먼트』를 어렵게 사서 두고두고 읽은 적이 있다. 가슴이 뭉클하는 순간 순간으로 끌고 가는 내용으로 차 있었다. 그에게 건축은 삶 자체였다. 거기에는 고뇌에 찬 한 건축가의 진솔한 표현과 건축에 대한 애정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그는 정말 극적인 삶을 살며 건축을 하다가 간 건축가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한마디로 거인이었다.

현대를 살아가는 건축가의 이미지와 길은 라이트의 그것과 같을 수 없다. 오늘날 우리가 만나고 싶은 건축가, 고대하는 건축가는 어떤 건축가일까. 환경을 생각하고, 도시를 생각하고, 인간을 생각하고, 시대를 다시 읽고, 기술의 진보를 알고 실험을 계속하며 창작에 몰두하는 건축가일까.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그것은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논의해야 할 건축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만나고 싶은 건축가는 건축에 첫 발을 디디며 자신에게 다짐을 했던 초발심의 세계를 그대로 지니며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가다. 그런 건축가는 문명 남들과 다른 설계사무실을 꾸려나갈 것이다. 건축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는 알 되, 세속의 흥진에 찌든 건축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신의 재능을 갈고 닦으며 겸허한 자세로 이 시대 건축인이 해야 할 일을 알고 건축에 임하는 건축가, 자신의 재능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세상을 탓하지 않는 건축가, 고독과 싸우고 연습하는 절망감을 딛고 일어서는 건축가, 잘못된 건축계의 관행에 대해서는 결연히 대항하는 건축가, 그런 건축가를 시방에서 보고 싶다. 그런 건축가가 소중하게 받아들여지는 세상을 보고 싶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한 상황과 다르게 움직인다. 그런 건축가들은 현실세계에서 사무실 문을 닫게끔 되어 있는 것이 우리 건축계다.

2001년이 시작되었다. 시작은 누구에게나 다른 때보다 더 의미가 크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설계계까지 만들며, 과거를 되돌아보게 하고 앞날을 준비하게 만든다. 바로 엇그제, 새 천년이 시작된 지난 해 연초에도 우리는 해맞이를 하며 지금과 같이 부푼 기대를 걸었다. 결혼을 앞둔 여인이 결혼만 하면 현재 생활의 질곡에서 벗어나 백마 타고 온 왕자님과 댄 세상에서 공주처럼 행복하게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던 것처럼.

아무 것도 아닌 2000이란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는 패들에 휘말려 새 천년의 한 해가 가고, 또 새해

가 시작됐다. 새해니, 새 천년이니 하는 것은 호들갑을 피우기를 좋아하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덧없는 언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휘말려 다시 자신과 자신이 몸담고 있는 주변을 되돌아 보게된다. 시작이라는 것에 의미를 둔다면, 2001년을 맞는 한국 건축계는 유난히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앞날을 준비해야 할 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것은 직설적으로 말해 우리 건축계가 안고 있는 과제와 어려움에 관한 것들이다. 지금 우리 건축계는 헤쳐가야 할 난제들을 많이 안고 있고, 또 우리 건축계에는 불황이라고 슬렁대는 정도를 넘어 사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래서 새해 우리 건축계는 유난히 더 쓸쓸하다.

건축실무를 하는 설계사무소는 일이 없고, 대학 졸업예정자들의 갈 길은 어둡기만 하다. 지금 한국건축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분수령에 서 있다. 한 세기를 넘어가는 고갯마루일 뿐 아니라 개방화, 세계화와 함께 IMF의 한파로 건축계의 상황이 걸려 있는 분수령을 헤쳐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암울한 한 해를 맞으며 우리 모두 지치고 초췌해졌지만 되돌아보고 새로 다짐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한국의 건축인들은 제 살을 감아먹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다. 서로가 남의 밥그릇을 넘나본 지 오래되었다. 건축의 세계와 영역을 넓히고 키워나가 먹거리가 더 많도록 해야 할 시기에 한국의 건축인들은 그들 세계 속의 주어진 밥그릇을 누가 먼저 어떻게 차지하느냐에 더 관심을 쏟았다. 그 좋은 예가 건축가의 고유 권한과 영역에 속하는 건축 감리와 설계비에 관한 것이다.

우리 건축계에는 특정 건물일 경우에 건축가가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이 어떻게 시공되어 세워지는지 볼 수가 없게 장치가 된 지 오래되었다. 내가 낳은 아이 보육을 남에게 맡기는 형국이다. 건축 설계에 대한 설계비를 제대로 받도록 하는 장치를 박탈당한 지도 오래되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노동부에서는 건축사 자격을 부동산중개사, 주택관리사, 안경사 정도의 전문직으로 이해하고 이들 자격자에 대한 “자격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만든다고 한다. 그리고 거기에 건축사(가)도 포함돼 있었다. 이때까지 건축사는 의사, 변호사와 같은, 그야말로 선망의 대상이 되는 전문가 직종인 줄 알았는데, 건축사를 단순한 산업기술자로 보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 법률(안)은 건축사협회의 반대 의견이 반영되어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건축사는 제외되었다고 한다. 여하튼 앞으로 건축사(가)의 사회적 위상에 대해서는 건축계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고, 그런 측면에서 건축계가 대처해야 할 일도 많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건축계가 시대의 흐름이나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는 정도는 부끄럽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 대표적인 예가 건축교육 및 건축사 자격 국제공인에 관한 문제다. 이미 1990년대 초를 지나면서 이 문제는 국제적으로 가시화되어 거론되기 시작하였고, 1996년 바르셀로나 UIA총회 때는 이미 공론화 되어 총회에 참석한 건축가들 사이에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어졌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이에 대처하였다. 건축교육제도는 진작 고쳐야 했고, 건축사(가) 자격 국제인증 문제는 일찍 대처했어야 했는데도 이제야 건축(학)계를 슬렁이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일에 책임질 사람이 없다. 그런 현실이 마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우리 건축계다

우리 건축계는 의견 수렴이 제대로 안 된다.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앞으로 건축이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열어내는 건축계의 원로나 지도자 그룹이 없기 때문이다. 어렵고 어두운 시대 상황일수록 현실을 직시하고 밝히며 방향을 제시할, 건축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건축의 사회적 위상을 지켜줄 역할을 제대로 할 지도자(그룹)가 건축계 전면으로 부각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변화가 급진적인 시대일수록 필요한 것은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의사결정 능력인데, 우리 건축계는 그렇지 못하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우리 건축계가 가야 할 방향 설정을 위해서도 우리 건축계에 몸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인식의 전환을 하여야 한다. 건축관련 단체가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을 더욱 다지는 모임 정도로 머물러 있다면, 어서 거기서 벗어나 새롭게 거듭나는 단체가 되어야 한다. 건축단체들이 서로 발목을 잡는 작태가 있으면 시정하여야 하고, 서로 힘을 합쳐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따로 따로 사업을 벌려서는 안 된다. 당장 닥칠 혼란이 두려워 계속 잘못 낀 단추를 채워나가는 일을 우리는 그만두어야 한다. 조잡하게 학연과 지연에 얽매어 건축계를 이끌어갈 사람에게 표를 던져 단체의 대표를 선출하였다면, 이제 그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기로 작심했다면 더 이상 건축계의 어려움에 대해 탓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것은 자기 자신과 주변에 대한 집착과 욕망과 관계되는 데에서 비롯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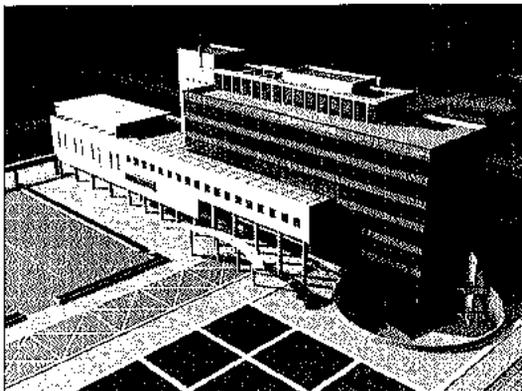
이제는 세계다. 한국 건축계는 세계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세계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할 때다. 우물 안에서 아웅다웅 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세계적 지평을 가진 시각이 필요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국제적 형세를 읽을 사람과 단체가 필요하다. 이러한 세계로 한국건축이 가도록 우리가 바라는 건축계의 모습은 새롭게 변신되어야 한다. ㉮

Deogyang-gu Office in Goyang City

최삼영 / (주)기외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i Sam-Young

건축개요

| | |
|------|---|
| 대지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55 |
|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
| 대지면적 | 19,832.00㎡ |
| 건축면적 | 2,531.68㎡ |
| 연면적 | 17,109.38㎡ |
| 건폐율 | 12.77% |
| 용적률 | 48.56% |
| 규모 | 지하 1층, 지상 6층 |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 내부마감 | 바닥 - 시멘트몰탈위 T.30 화강석물갈기 벽 - 수성페인트 천정 - 암면흡음텍스 |
| 외부마감 | 화강석버너구이, T.18복층유리 |
| 설계담당 | 강계숙, 변정석, 이수용, 이동우, 정은숙, 성은경/CG |
| 구조 | 정일구조 |
| 설비 | 설화ENG |
| 전기 | 성원ENG |
| 감리 | 신화ENG |
| 시공 | 태영+동부건설 |
| 사진 | 박영채 |



"소는 소이고 말은 말일뿐. 이 소는 그냥 소다. 이 말도 그냥 말이다. 또 게르니카 안에 새 한 마리도 있는데 그게 무슨 새인지 생각도 나지 않는다. 그것들은 모두 어떤 상징들이지만 화가가 이런 상징들을 믿는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뭔가를 말하고 싶다면 그림을 그리는 것 보다 글을 쓰는 것이 나올 것이다. 사람들은 소나 말 속에서 그들이 느끼는 바대로 상징들을 보아야 한다. 동물들이 뒤틀려 있다. 내게는 그것이 전부다. 사람들은 그냥 자신이 느끼는 대로 보면 되는 것이다."

피카소는 그의 그림을 이렇게 설명한다. 하물며 내가 하는 건축에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는가. 그냥 보고 체험하고 느껴지는 그대로 외에는 설명할 그 무엇이 없다. 애시당초 결과로 예시되는 상징이나 철학적인 개념을 설정하고 작업을 시작해 본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그저 그곳에 누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에게 어떤 편안함과 또 다른 무엇이 필요한가를 중심으로 실마리를 풀어나간다. 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축이라든지 상징을 가설로 머리속에 만들어 보지만 만들어진 건물에서 좋은 결과로 나타나질 때만 비로소 그 가설과 상징이 정당화되고 의미를 갖게된다. 간혹 회화나 조각은 건축을 풀어나가는 실마리로 막막한 백지 위에 줄을 그어 나갈 수 있게 만든다.

화정역과 이어지는 보행자 도로와 만나는 25m도로는 덕양구청사를 자리잡게 하는 실마리를 풀어준다. 직교하는 4면의 도로는 대지위에 가상의 선을 비둑판처럼 긋게 하고, 비둑판위에 남향으로 길게 장방형 매스를 얹는다. 좌측엔 강당을 두고 우측엔 글라스 커튼월로 된 업무동을 둔다. 두 매스를 앞뒤로 감싸주는 저층부의 긴 판벽은 조형의 통일을 유도하면서 민원동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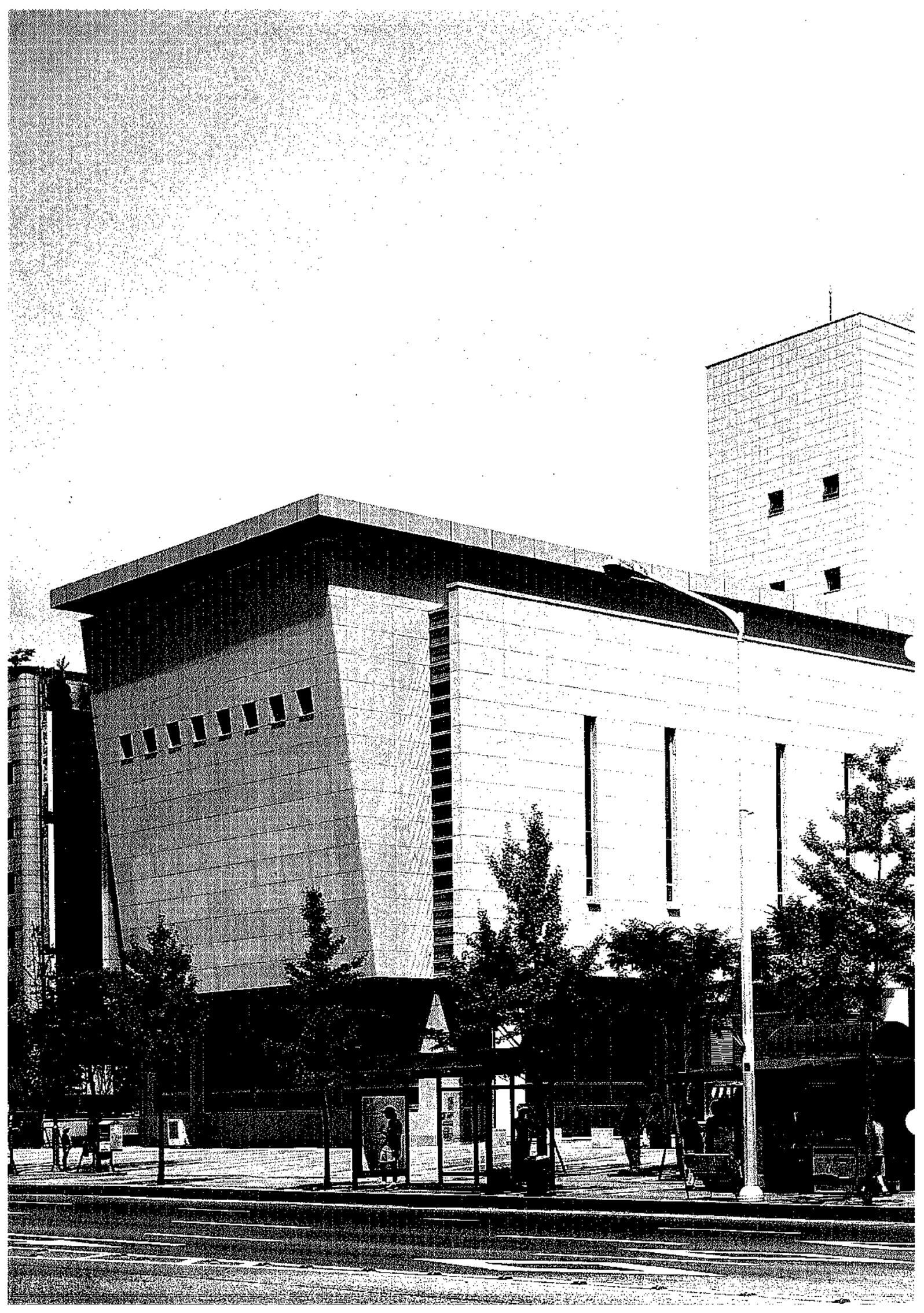
만들어 준다. 긴 판벽에 따라 다양한 용도의 방들을 기능에 맞게 각자에게 필요한 모양의 창을 뚫어준다. 좁고 긴 창, 정방형 창, 살짝 빠져나와 드러누운 창 등 크기와 형태가 다른 창들이 저층부의 표정을 다채롭게 하면서 그 속에 담길 외부환경을 조율한다.

전체적으로 사용된 주재료는 화강석 판재와 투명한 유리이다. 흔히 관청사 건물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재료지만 두 재료의 사용을 기능에 따른 동별로 크게 분리시켜 사용하였다. 업무동의 글라스 커튼월은 경직된 관청사 이미지를 벗어나 투명하고 미래지향적인 관청사로서의 새로운 이미지를 제안하고자 했다. 스파드럴 부분의 수평띠는 날씨에 따라 그 선명도가 틀려 시간에 따른 표정변화를 기대한다. 이미 필자가 공간 재직시 '여의도 동부 화재보험 빌

딩'에서 사용한 바 있는 이 디테일은 당시 컴퓨터 스캐너의 제품 디자인에서 그 형태를 빌려 발전시킨 것이다. 견고하고 무거운 느낌을 주는 화강석 판재를 강당과 저층부 판벽에 사용하고 투명한 유리를 고층부에 사용한 것은 안정감 있고 덜 차폐적인 도시환경을 위한 배려이다.

보행자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우측 공지는 향후 어떤 용도의 공공서 건물이 될 지 모르지만, 덕양구청과 공동의 외부공간으로 묶여질 것이라고 가정하여 건물의 우측은 빈 대지쪽으로 진행하는 형태로 완결지었다. 보행자 전용도로가 향후 두 대지의 중심이 되어 바라볼 때 서로 조화롭고 더욱 완결 지어진 형태의 도시환경을 창조하길 기대한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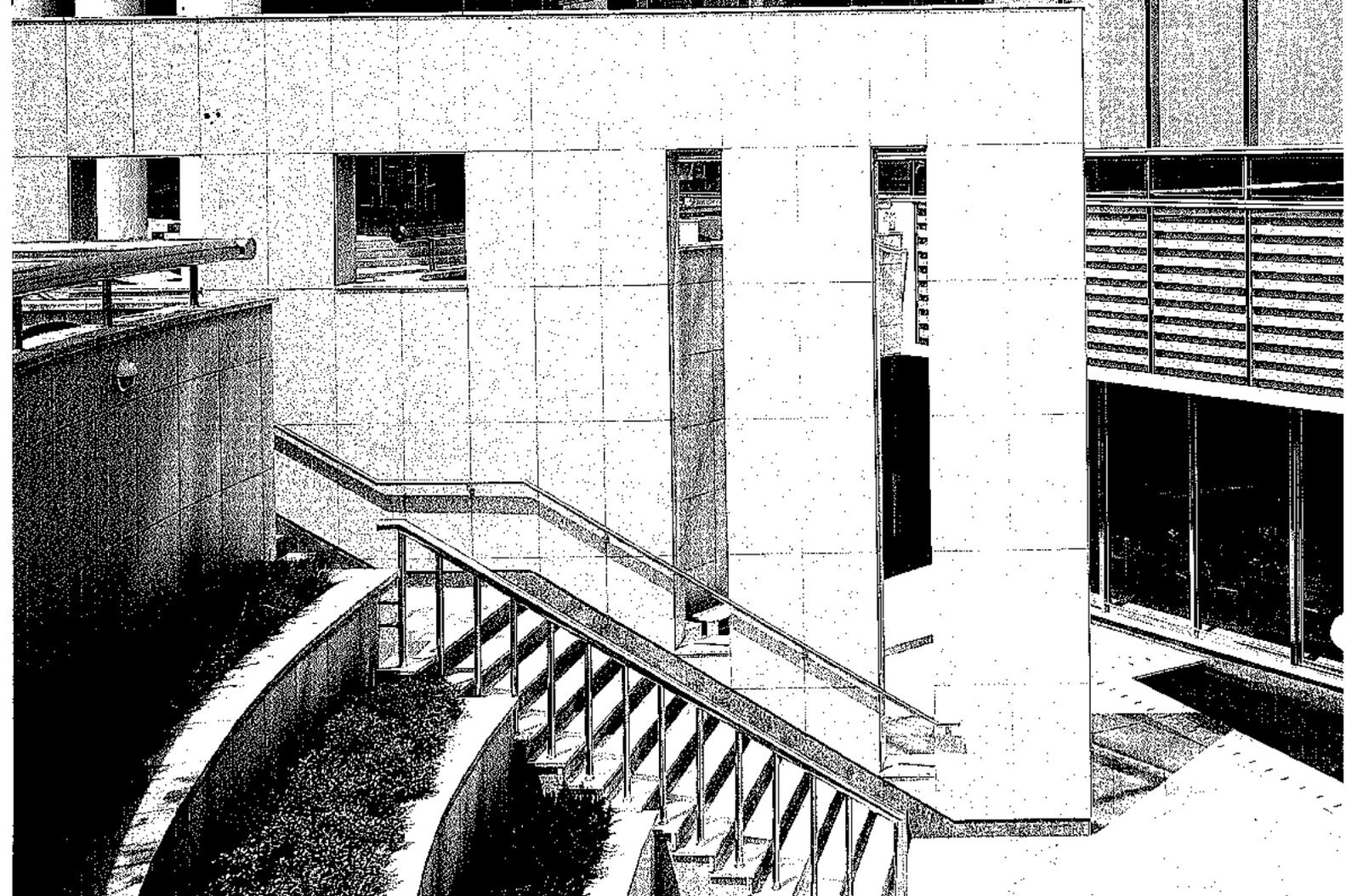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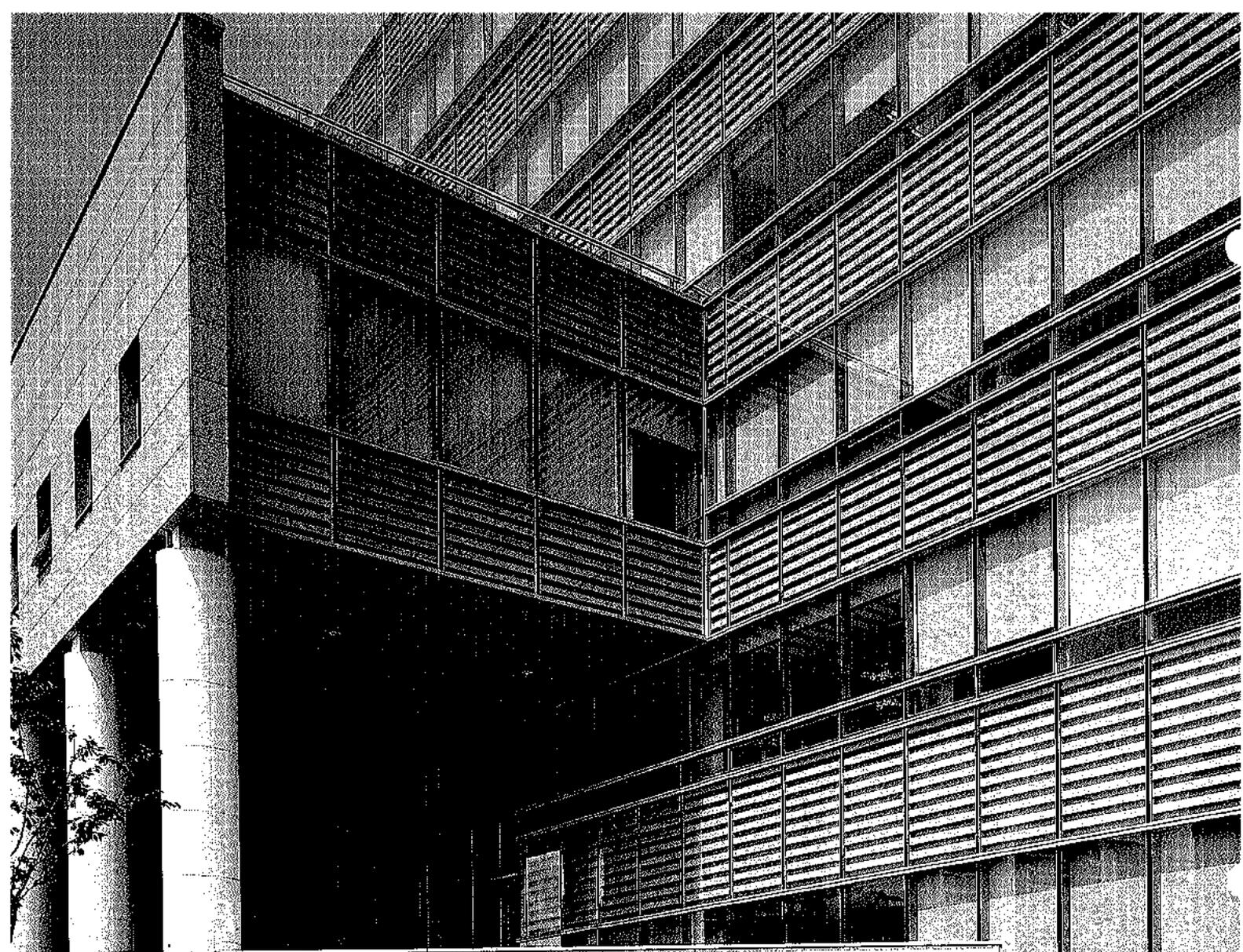




새 년을 선도하는 희망찬 새 고양

제 가족 사랑 음악회
일시: 2000년 8월 19일(수) 오후 7시
장소: 고양시 문화예술회관(고양시청내)
주최: 새 고양시... 후원: 경기도-고양시

시민과 함께
고양이...
일시: 2000년 8월 19일



"A cow is a cow, and a horse is simply a horse. This cow is also a cow, this horse only a horse. There is also a bird in Guernica, but I don't remember what sort of a bird it was. These elements are all symbolic yet it is of no importance that the painter has such intentions. If one wishes to say something, he should write them down in letters, not draw a painting. People should read the meaning of these cows and horses as they like. The animals are deformed. That is all what they are to me. Everyone should be free to feel in them as they lik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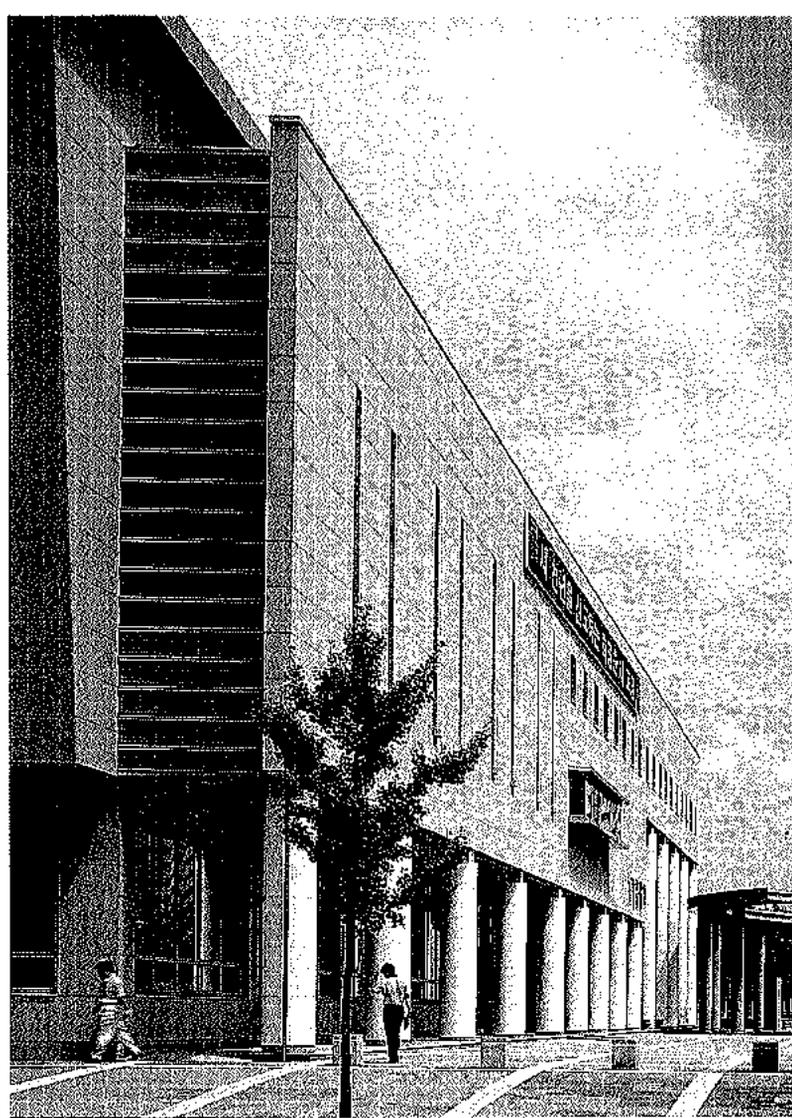
Thus spoke Picasso of his masterwork. Considering his stance, should I have anything to say about my work of architecture? I have no explanation to give of the building; it simply should be viewed, experienced, and felt. I don't recall ever working with a preconceived symbol or philosophical ideas in the design process. Point of departure for the planning comes from the reflections on the people who will occupy them, and how to supply comfort and other desirable values to those users.

At times a conceptual axis or symbol is brought in inside my mind as a hypothesis of the work, but it is only when they are successfully incorporated into the overall building that the *raison d'être* of these pre-given meanings is given justification. Paintings or sculptures sometimes provide a clue to draw a line on the white sheet in the process of designing architecture.

The 25 meter-wide road to which the pedestrian path is connected from Hwajeong station was the starting point in the layout of the Deogyang-gu Office. The perpendicular crossings of the four sides generate an imaginary grid upon the site, on which in turn a linear mass towards the south is placed. On the left side is the auditorium, while the office portion covered with glass curtain walls occupies the right.

The long plate wall of the lower part encompasses the two volumes from front and behind, at once forming a unity in the formal design and functions as the civil affairs office. On this wall are attached rooms with various functions with windows of accordingly diverse size and shapes.

A narrow window with height; a square window, a window slightly projected from the wall: these openings of different sizes and forms enrich the facade of the lower stories, and control the exterior environment that will be housed within it. The main materials used for the project are granite plates and transparent glasses. These are of course the usual choices for government buildings, but here they are separately applied in each volu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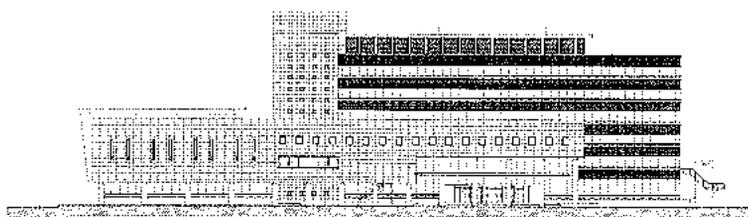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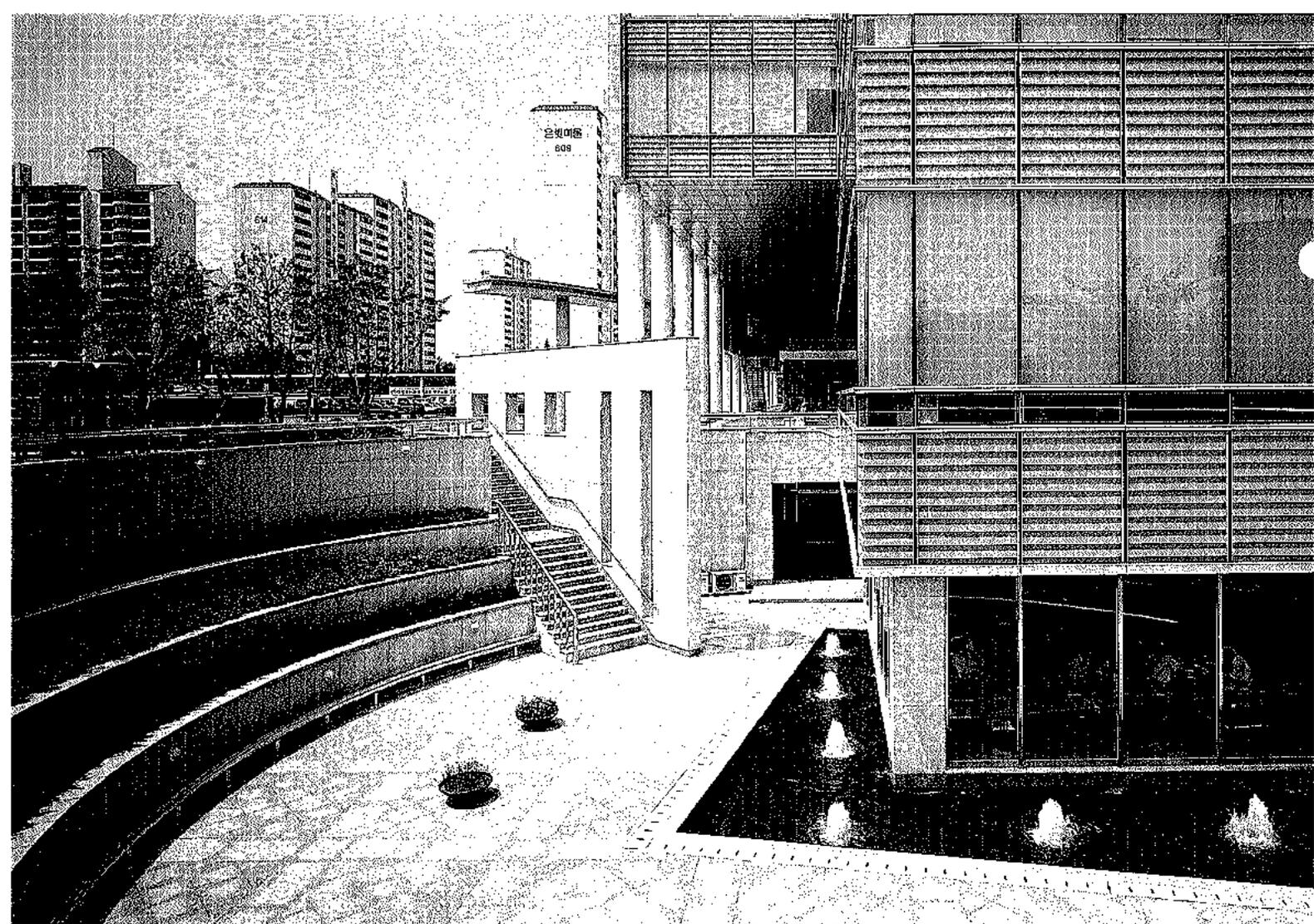


The glass curtain wall of the office part marks a step away from the rigid images of previous administration offices, replacing it with a transparency that actively looks into the future.

The opacity of the horizontal band on the spandrel changes along the weather, and gives the elevation a temporarily changing quality. This detail - already used in the Dongbu Fire Insurance Company Building in Yeouido, Seoul, during my days at the design firm Space - had been derived and developed from the design of a computer scan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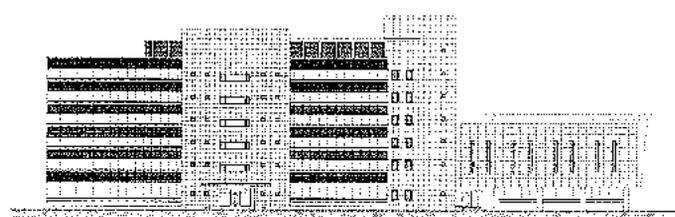
The solid and heavy granite plates were used in the auditorium and the lower plate wall, while the upper portions were mostly finished with glass. This created a stable atmosphere and enabled the building to be more open to the urban context.

The unused property across the pedestrian path on the right of the office is to be developed as the site of another government building. Its specific function is not determined, but its outdoor spaces will be merged into those of this building, the right hand side of which is directed towards this empty plot. The complex of the two buildings, seen from the pedestrian path that should run between, will hopefully become a harmonious whole and create an urban environment with further refinement.



0 4 3 16

정면도



배면도

Location 955 Hwajeong-dong, Deogyang-gu, Goyang
City, Kyonggi Province, Korea

Area Specification Residential District

Site Area 19,832.00m²

Building Area 2,531.68m²

Total Floor Area 17,109.38m²

Building Coverage Ratio 12.77%

Gross Floor Ratio 48.56%

Number of Floors 7 including one basement floor

Structure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Interior Finishing Floor - T30 granite over cement mortar
Wall - Water gas paint
Ceiling - Sound absorption textile

Exterior Finishing Granite, T18 double glass

Design Team Kang Gyaе-sook, Byun Jung-suk, Lee Soo-yong, Lee Dong-woo, Chung Eun-sook, Seong Eun-kyung(C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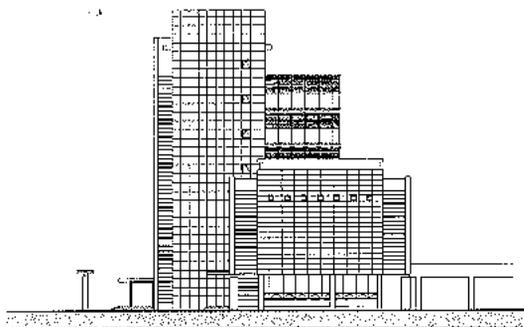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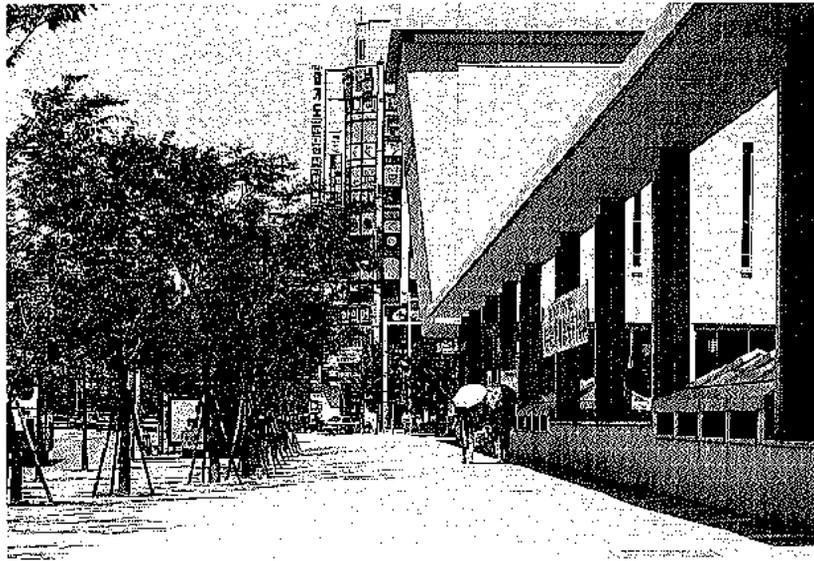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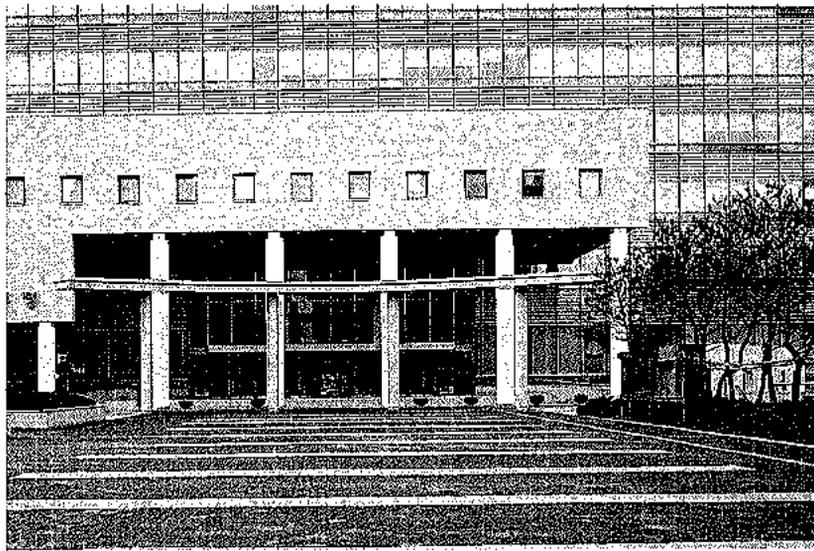
Structural Engineering Jungil Engineering

Mechanical Installations Sulhwa Engineering

Electric Installations Sungwon Enginee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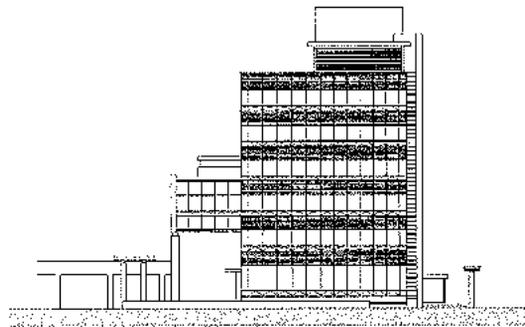
Construction Management Shinhwa Engineering

Construction Tae-young + Dongbu Construction Enginee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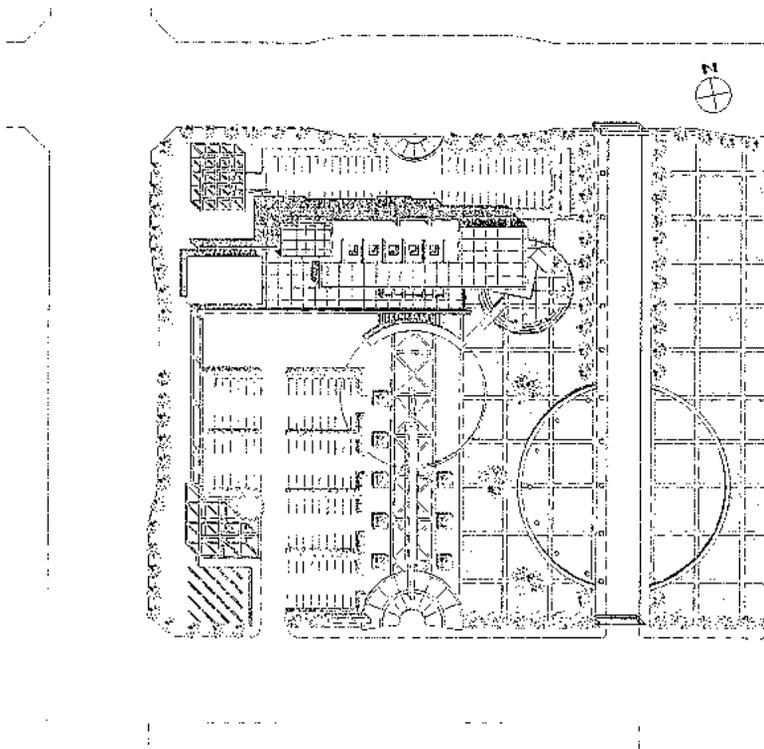


0 4 8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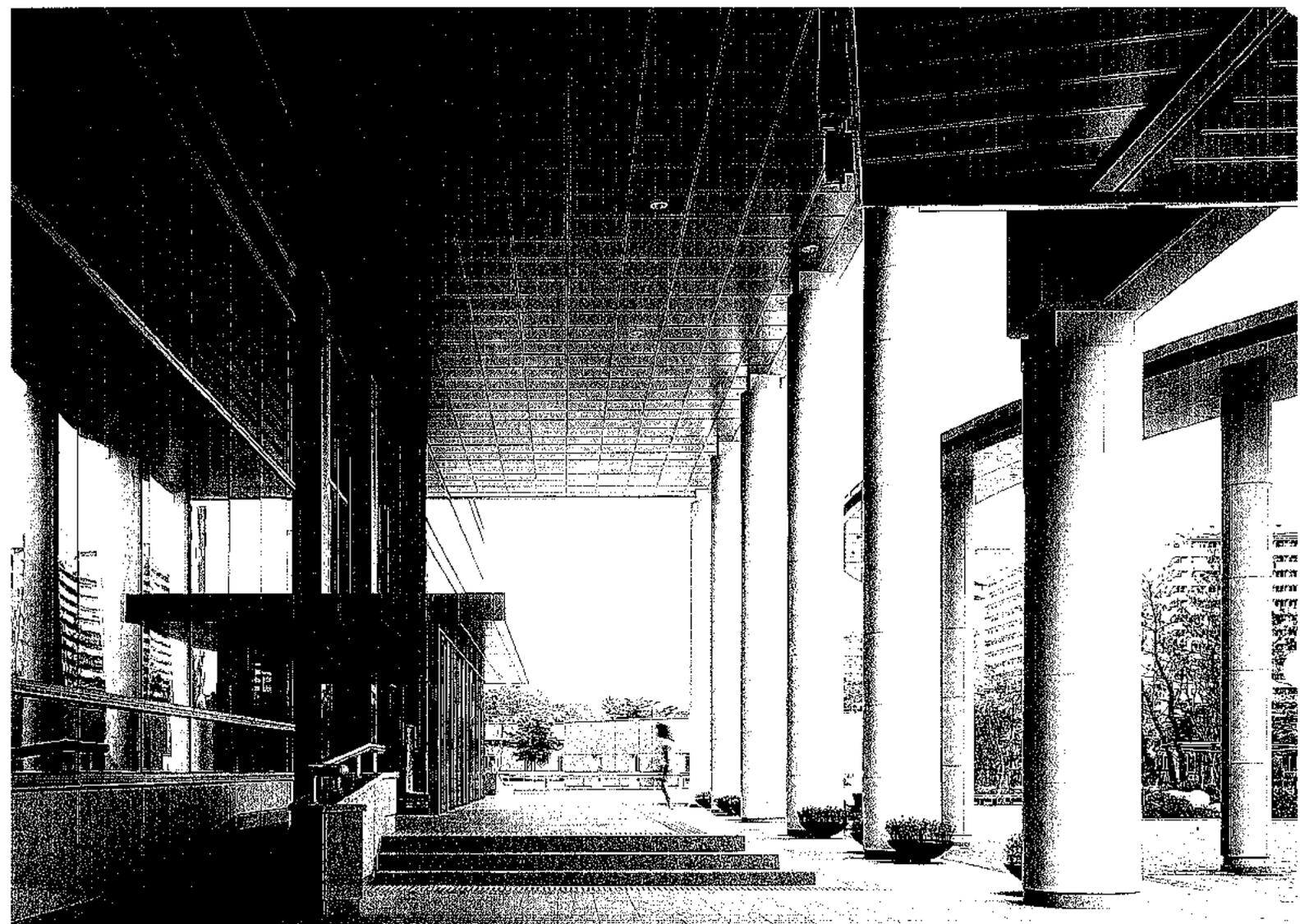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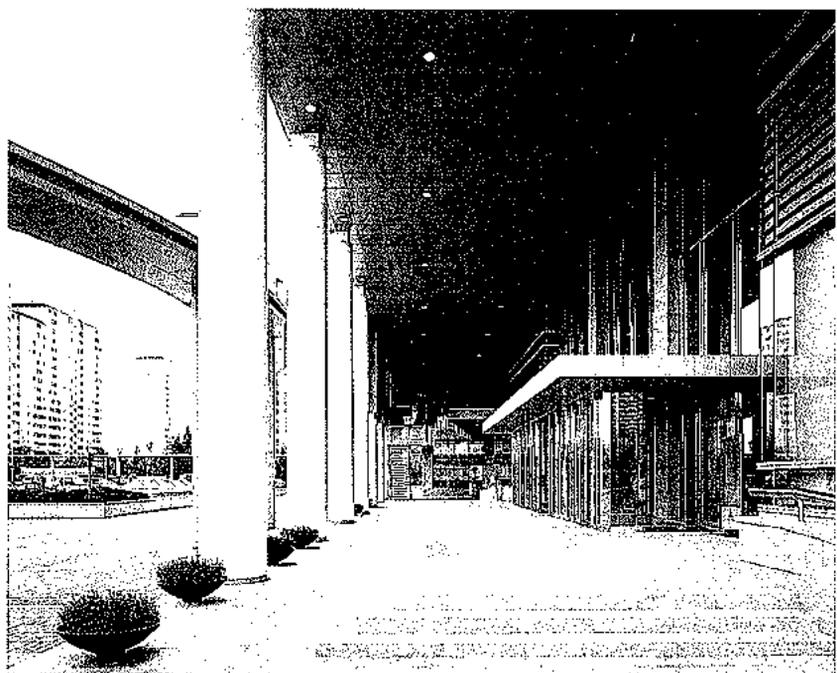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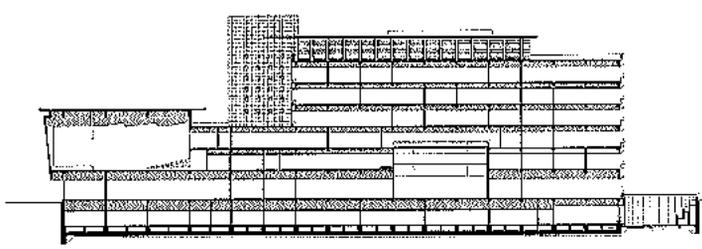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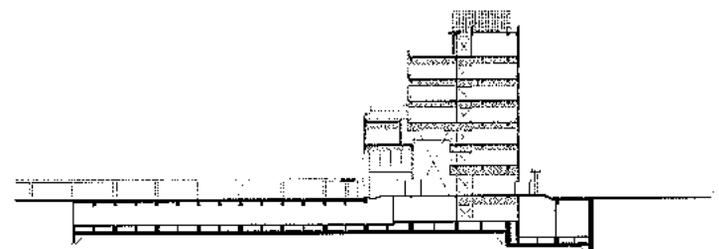


- 1. 주출입구
- 2. 부출입구
- 3. 로비
- 4. 민원실
- 5. 소회의실
- 6. 대회의실
- 7. 상환실
- 8. 총무과
- 9. 기획실
- 10. 건설과
- 11. 건축과
- 12. 예비실
- 13. 회의실
- 14. 선관위사무실
- 15. 정산교육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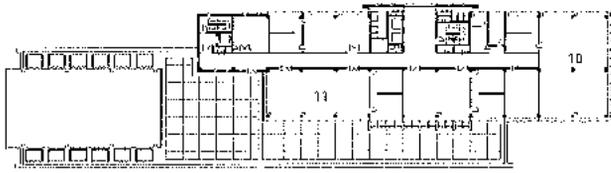


0 4 8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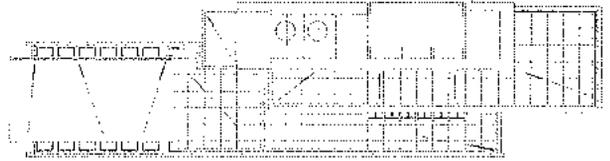
평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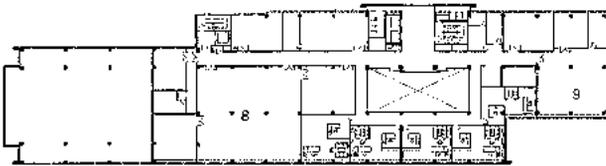
종단면도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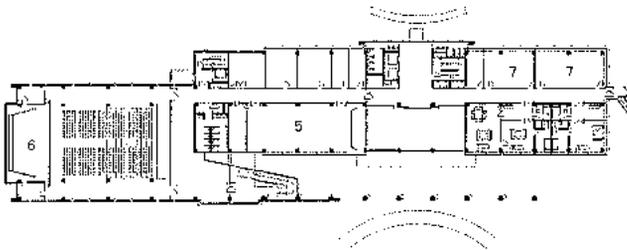
지붕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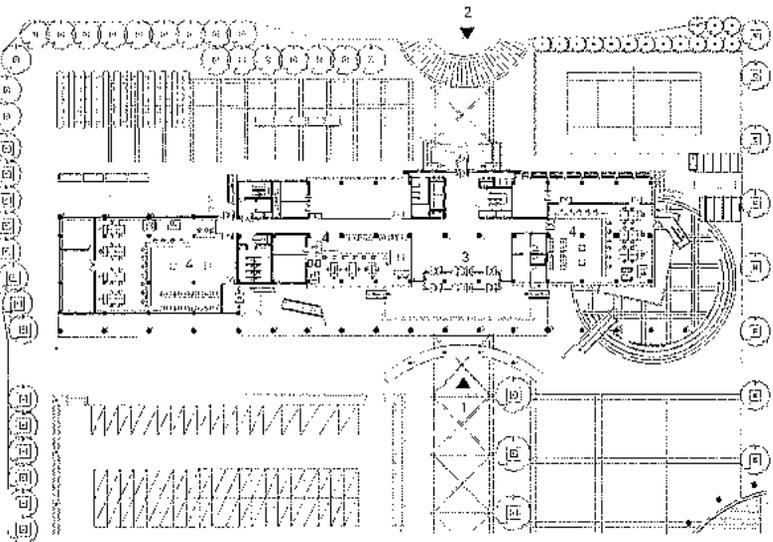
6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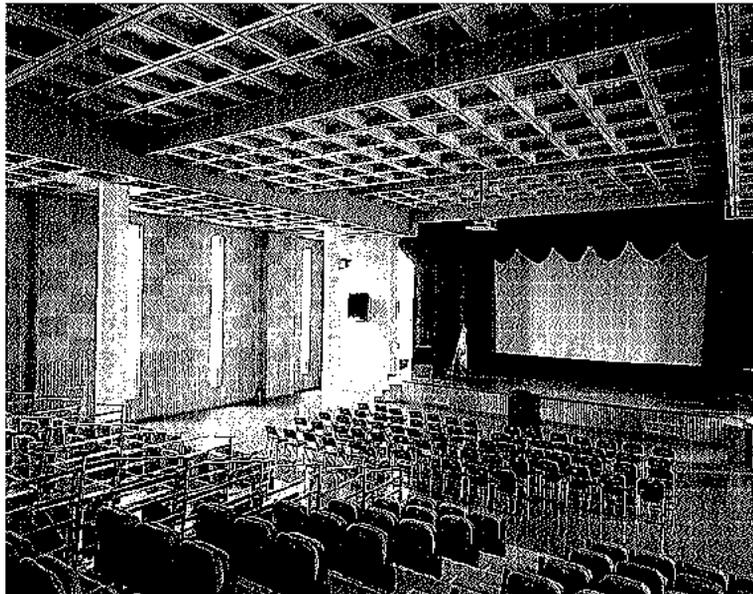
2층 평면도



5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소박함과 열정 Modesty and Passion

건축사 / 최삼영(가외건축 대표)

대담자 / 전진삼(건축발전연구소 소장, 월간 건축인 포어 편집자)

일시 / 2001년 2월 8일

장소 / 가외건축



대담장경 (왼쪽:최삼영, 오른쪽:전진삼)

전진삼___ 본격적인 대담에 들어가기 앞서 입가심으로 당장에 떠오르는 궁금증을 풀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언젠가 이 프로젝트를 설명하면서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정형의 땅이 갖는 속성상 답이 너무 많아 곤혹스러웠다는 표현을 쓰고 있음을 보았는데, 이처럼 좌우시방으로 열려있는 평면한 대지의 공간위계를 정하는데 동원하는 작가 자신의 특별한 수법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최삼영___ 비법은 없습니다. 접근성, 향, 대지이용, 정면성, 인지도 등에 기초를 둔 기능적인 해법에서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현상공모니까 남들보다 튀는 답을 만들고자 하는 의욕은 늘 공모기간의 시간을 반쯤 까먹고는 포기를 하게 되지요. 못생긴 땅을 숙제로 받으면 고민은 되지만 해법에 쉽게 동의하게 되고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게 되니 마음은 편합니다.

전진삼___ 이미 이 프로젝트에 관련해서는 여러 지면을 통해서 소개된 바 있고, 작가 입장에서도 수 차례 반복되는 건축이야기를 쏟아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인즉 오늘 대담은 가급적 이 프로젝트가 구청사이고 하니 행정과정의 대관 업무 진행에 있어서 설계자가 특히 유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가 궁금해집니다. 질문을 좀더 우선은 행정기술상의 면에서 최소장께서 경험했던 불편한 기억을 더듬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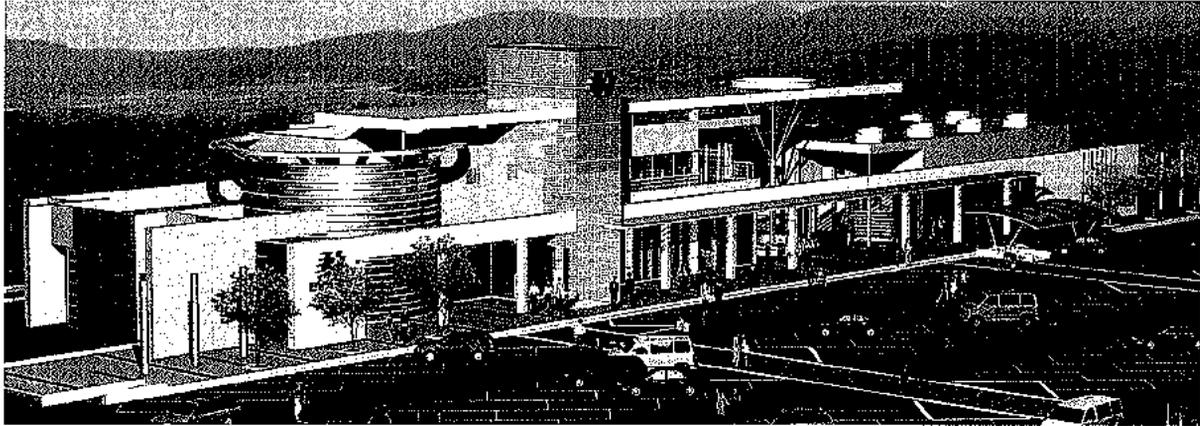
최삼영___ 답하기도 어렵거니와 예측키 어

려운 변화무쌍한 원칙들과 마주치게 되는 것이 대관 업무이다 보니 현상공모로 당선된 관공사를 주업무로 하는 저의 입장에서 보면 공모안이 당선되면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생기는 것은 내가 건축을 선택하여 얻는 많은 기쁨 대신 겪는 보상이라 생각하며 삽니다.

관공사 아닌 다른 수주방법으로 먹고 살 수만 있다면 현상공모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현상공모 당선에 결코 실력으로 인정받기보다는 이를 백안시하는 곱지 않은 눈들이 많은 것은 스스로의 경험으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진삼___ 감리자 선정 단계에서 탈락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할 말이 많으시겠습니까?

최삼영___ 세사사는 일이 의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데는 엄청난 수업료를 들여야 했습니다. 당시 타사들은 설계만 하면 입찰에서 전차 응역 점수로 쉽게 감리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간단히 될 줄 알고 감리 회사를 무리하여 만들었다가 막대한 손실과 함께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임 감리회사라는 것이 취지가 알겠지만 실제 설계용역 자체가 갖는 많은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감리회사에게 무한대의 설계 책임을 묻게 하고, 시공사와 설계자에게 책임을 떠 안기는 것 또한 이 제도의 모순입니다. 감리회사를 만들어 불공정하게 계약된 용역비를 총당하자는 것도 아니고, 단지 공사



양재동 만남의 광장 휴게소 현상공모 당선작(공사중)

가 설계의도 대로 진행되어지고 혹여 잘못 해석되어져 추궁될 설계책임에서도 벗어나고자 만든 책임 감리회사는 오늘까지도 아물지 않은 아픈 상처를 남겼습니다.

전진삼 ___ 대화 초기 단계에서 우울한 애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아 독자들도 덩달아 우울할 것 같군요. 그림 분위기를 바꿔봅시다. 관공서라는 것이 설계비가 높지 않다 뿐이지, 관공사가 지불조건도 좋고, 하나 잘해놓으면 그와 연관된 부수 프로젝트도 엮어질 수 있는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흔히들 영양가 타령을 하는데 덕양구청사의 경우 이제까지의 여타 민간 프로젝트에 비해서 월등히 좋다고 보는 관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삼영 ___ 저야 민간 프로젝트 비중이 낮다 보니 관공사가 좋은지 민간공사가 좋은지 잘 모르지만, 흔히들 계산하는 평당 공사비야 관공사가 좋고 때일 열려도 적은 곳이니 단순비교로 보면 영양가가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무소는 왜 이리 영양실조로 허덕이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관공사는 외주범위도 넓고, 일량이 많다는 것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덕양구청사는 설계비 계산이 희한하여 같은 시기에 타 프로젝트 용역비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을 대하는 기술과 자세를 랑으로 경제적으로는 영양가 없는 프로젝트였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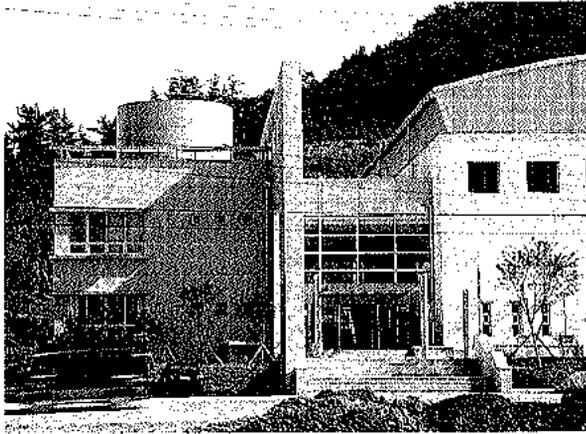
전진삼 ___ 전반적으로 시공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공사진행에 어려움은 없

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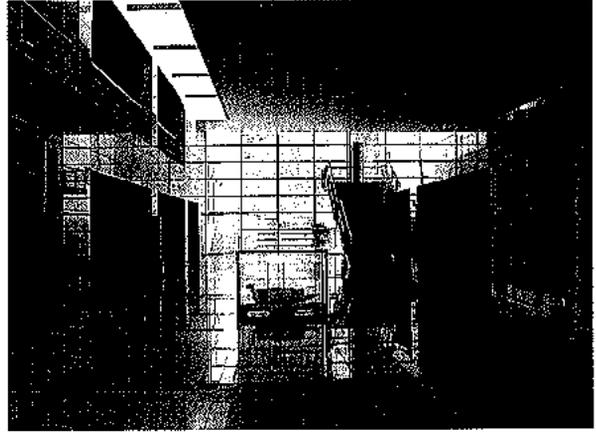
최삼영 ___ 공사진행은 예상한 것보다야 덜 어려웠습니다. 시공사 규모도 큰 편이었고, 감리도 철저했었는데 욕심을 내지면 제 무능함으로 미처 못 챙긴 설계가 끝내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지어졌다는 것이 어디 하소연 할 데도 없고 자책만 해야 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안타깝습니다. 공사기간 중에 또는 마무리 시점에 몇 차례 대안을 제시했건만... 어쨌든 설계에 충실한 시공과 감리였음을 감사드려야지요.

전진삼 ___ 외부마감재의 경우 처음부터 의도된 재료로 최종 마감까지 갔다고 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건물이 갖는 조형성향과 건주어 완벽처럼 튀어나온 파사드면의 외부 화강석 마감은 왠지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똑같은 돌의 질감도 어떻게 다루었냐에 따라 그 느낌의 편차가 클텐데 말이지요. 외관 구성에 있어서 작가가 의도에서 벗어난 부분들은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크게 부담스러운 질문이 아니라면 구체적으로 그 연유를 밝혀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최삼영 ___ 부끄럽습니다. 설계 소홀도 있고 깊이 생각지 못하고 뒤늦게 발견되었으나 이미 시공되어 있었습니다. 기본설계 때 그린 투시도에서는 판벽과 강당동 외벽은 같은 화강석이지만 질감과 돌나누기 비례가 다릅니다. 시공에 좀 더 관심을 가졌거나 감리를 했더라면 좀 더 나왔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전면 책임감리



남해문화체육회관



남해문화체육회관 로비

제도에 설계자가 끼어들 제도적 보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진삼 _____ 그런 일이 있었군요. 더하여 묻겠습니다. 1층 홀의 화강석으로 마감된 디테일의 조형성을 보면 외관의 주요한 장식성을 갖는 건물 우측 업무공간 존의 커튼월 내부 디테일의 선들이 1층 홀 내부공간과 연결되는 지점에서 서로 다른 재료가 절묘하게 만나는 디테일로 연속성을 가지며 상승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또한 앞의 이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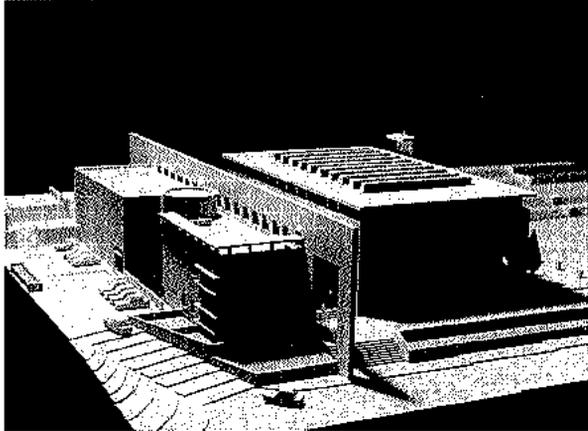
최삼영 _____ 많이 들키는군요!

전진삼 _____ 대화가 자연스럽게 건물 내부로 이어졌습니다. 내부 기능실 배치에 대한 정보는 이미 첨부도면을 읽은 독자들에게 큰 무리없이 전달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만큼 단순한 평면구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 한 방향으로 긴 매스의 건물의 일반적 속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공간의 수직적 전개보다는 수평적 전개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읽히는데, 그러다보니 이 건물 내부공간에서는 가슴조릴 만한 대공간의 한타지는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최근 거대한 천창에 의존하여 대형 아트리움 형식의 실내공간을 갖는 구청사들이 출몰하고 있는데, 공간의 에너지 씹씹이에 대해서는 파잉설계라는 의문을 살만한 사례들 일 수 있습니다. 그것들에 비하면 이 건물은 극히 소극적으로 메인 홀의 공간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애당초 설계경기가 부여되었던 스페이스 프로그램상의 제약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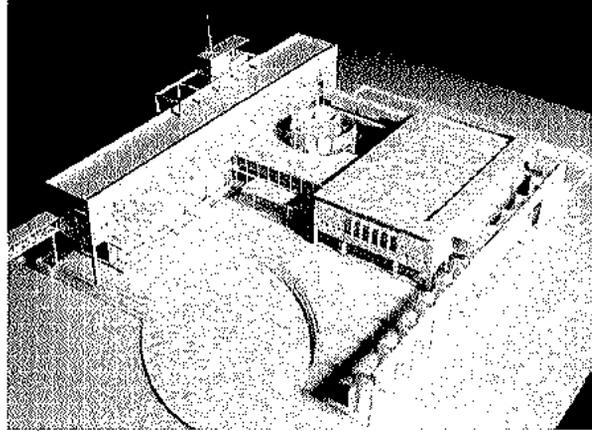
했던 건가요? 아니면 이같은 종류의 건물들에서 찾아야 할 또 다른 건축가치의 기준이 달라서였던가요?

최삼영 _____ 질문과 답변을 동시에 해 주신 것 같군요. 대개 공모안이 나오면 공사비를 어떤 근거로 만 들었는지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모에 참여한 많은 업체들은 경험상 공모안에 제시된 공사비를 무시하기 일쑤인데, 이는 공모안을 심사하시는 분들이 대개 공사비와 무관하게 당선작을 뽑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저희는 당시 공모에는 초보인이라 주어진 공사비와 프로그램에 상당히 집착했고, 당선 후에야 이런 공사비 책정이 설계비에서 예산을 줄이자는 담당 실무자의 알팍한 충성심인지 알았습니다. 설계비 아까운 줄은 알아도 공사비나 유지 관리비 아까운 줄은 모르는 것은 그간 우리들이 저지른 의식 없고 무책임한 설계관행 때문이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밤낮없이 일하고도 쥐꼬리만한 월급이나마 챙기기 힘든 사무실 식구들을 바라보면 웬지 억울하고 분합니다.

전진삼 _____ 분심이 과하면 몸에 지장을 주니 고정하시는게 좋겠습니다.(웃음) 말씀의 불똥이 행정편의주의적 제도의 문제로 튀었으니 방향을 잡을 겸 화제를 옮겨보죠. 제 생각으론 과당 에너지 소비가 염려되는 대형공간이 관공서에 적용되는 데는 대민 서비스라는 덕목이 한 몫을 거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역민들의 건축공간에 대한 신선한 충격을 기대한다는 공간 전략보다 앞서, 각급 지자체들이 갖고 있는 공간적 허영심을 건축가들이 역이용한 결과라고 한다면 이는 바람직한 방



남화문화체육회관 현상공모 당선작



경상대 50주년 기념관 현상공모안

향이 아닐 수 있다는 거지요. 소위 공무원들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 쓰기를 겁내지 않는다 말입니다. 물론 그것을 감독하는 각급 의회가 존재하지만, 때론 그들이 앞장서서 세금 아까운 줄 모르고 헤프게 집행해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감시자로서 부산히 움직이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관공서에 환타직한 공간을 배제시키자는 극단론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어느 지점에 선가 건축가의 역할이 존재하게 될 터인데 큰 것을 노리다가 정말 쓸모 있어야 할 작은 공간을 다듬는 데에 소홀할 수 있다는 시선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최소장께서는 건물 내부 공간에서의 과잉투기를 최대한 절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메인 홀 상부 3층 복도에서 만나는 좁고 길게 찢어놓은 천창에서 뿜어지는 자연광의 환희는 실로 아름다운 공간적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내친 김에 이 건물의 조명계획에 대해서 보다 충분한 설명이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최삼영___ 이 건물은 땅의 생긴 비례에 맞지 않게 길고 좁은 비례의 땅을 보여 줍니다. 학교 건축에서 자연광을 끌어들이기 위해 쓰는 수법과 동일하게 보일 것 같군요. 면적의 효율성을 위해 중복도형이긴 하지만 외피가 외부와 많이 면하여 채광 효율을 높이기도 하고 환기도 용이하지요. 저층부 로비는 깊이가 있어서 3층 복도에 천창을 두어 소극적이거나 자연 채광을 얻고자 했습니다. 기준(Typical)층의 홀에도 한 모듈정도 실을 배제하고 휴게 공간을 두어 넓이와 밝기의 리듬감 있는 복도를 연출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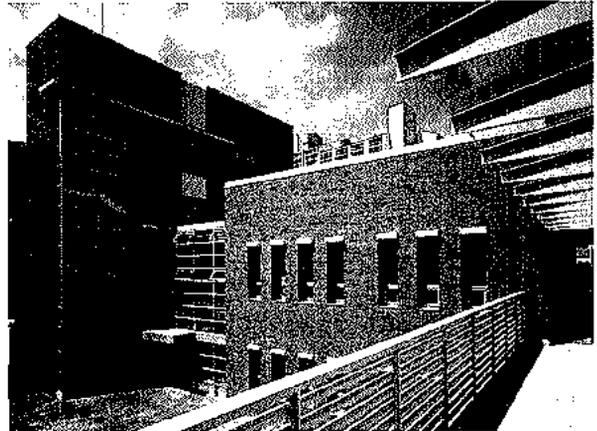
요. 나머지 인공 조명계획은 별로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가장 많은 전력이 소모될 각 업무실들은 창호를 극대화하는 글래스 커튼월(Glass Curtain Wall)로 처리했습니다.

전진삼___ 오늘 우리가 함께 건물 내부를 돌아보는 동안 국부 조명 빼고는 대체로 중복도의 공간이 절전을 위해 소등되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둡다고 느껴졌던 복도를 걸으며 어두운 골목길을 걷는데서 오는 불편함보다는 오늘처럼 청청하게 맑은 날 자연광에 의존하여 걸을 수 있는 이 덕양구청사에서 속으로 얼마나 유쾌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유리면으로 외기에 개방적인 남향한 사무실에서 무의식적으로 전등을 키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건물의 조명설비는 보다 적극적인 사용자들의 자연광 살려 쓰기 운동에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보다도 더욱 강조된 자연광 들이기가 건물 내 각 부분에 적용되어야 할 듯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문제도 적지 않을텐데, 이 건물을 중심으로 그 가능성을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최삼영___ 아까 말씀하신 대형 아트리움 이라든지 거대한 천창은 환상적인 공간감 연출이나 깊이 있는 채광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공사비나 유지 관리비가 매우 많이 듭니다. 작으나마 필요한 공간에는 아트리움, 천창 등의 수법을 병행하며 리듬 있고 적절한 공간 배치로 내·외부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은 어떨는지... 생각을 더 해봐야겠습니다.



성동노인종합복지관



성동노인종합복지관

전진삼___그럼 이 건물의 의장적 요소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말씀을 나누었다고 보고, 이제부터는 이 건물의 생명작용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구조 등 설비 디자인과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옹도가 분명한 건물의 성격상 사용빈도별로 기계 및 전기 설비 등의 프로그램이 다를 텐데요, 이 건물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시켰습니까?

최삼영___주차장, 민원동, 업무동 등으로 기능이 총별로 조닝(zoning)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정리되어집니다. 대개의 관청사 건물이 갖는 냉난방 방식인 F.C.U 방식과 공휴일 등에 쓰이거나 사용시간대가 다른 존(zone)은 패키지(package)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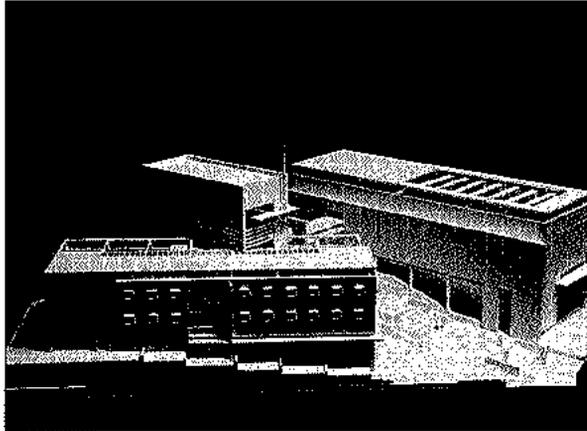
전진삼___결국 설비디자인이라는 것이 공간의 효율성을 어떻게 받쳐주는가에 그 성능의 질적 평가를 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건축물의 디자인이 건축가의 영역 안에서 전부 이뤄지는 것처럼 쉽게 간과하고 대중 넘어가는 부분이 이같은 설비쪽의 전문 영역이라고 보는데, 건축가가 자기 디자인의 완성을 위해서 이 부분과 관련지어 얼마만큼 깊숙이 간섭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군요.

최삼영___약점이었던 부분에 대해 말씀드려야겠네요. 구조나 설비는 학교 때나 건축사 시험때 듣고 배운 지식 외에는 상당히 무지합니다. 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주문은 습관적으로 하지만 구체적인 관여에서는 늘 밀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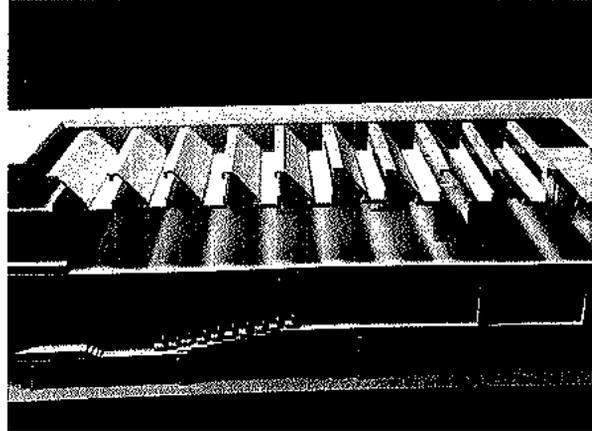
전진삼___사실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들어가는 설비 부분의 비용이 그 건물의 의장적 요인 이상으로 사용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부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향후 친환경적 건축 운운할 때는 더욱 심해지겠지요, 그런 각도에서 설비 영역 각각의 전문가들에게 의존성이 심화될 것은 뻔한데 건축가가 그것에 대한 자기 생각이 없을 때는 그만큼 결과 속이 따로 노는 건물을 생산해 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건축사들이 거기에 익숙해져 건물의 생명작용을 주도할 수 있을까요?

최삼영___우선 알아야 관여하고 조종하지요. 적어도 설비영역 전문가의 업무를 핸드링 할려면 건물의 운용에 대한 프로그램을 잘 이해해야 하고, 구조 전문가 등 설비 외 전문가들과도 잦은 미팅을 통하여 서로 간의 관계를 정리해야 잘 통합된 합리적인 시스템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전진삼___자칫 지루한 질문의 반복이 되지 않을까 고심하며 질문했는데 비교적 간결하고, 선명하게 입장을 정리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내부 공간보다도 외부공간에 있어서 작가가 공들인 부분이 눈에 띄게 많습니다. 앞서 논의되었던 커튼월의 디테일은 그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본관 1층 열주 주변과 지하 1층 식당 전면 선크가든 등에서 작가가 그랬을 법한 공간 활용의 프로그램이 잘 읽히지 않았습니다. 계절타도 있었겠습니까만... 그러나 계절 타도로 돌리기



창원 장애인 복지관 현상공도안



창원 장애인 복지관 현상공도안

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왜 그같은 의문이 끼어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삼영 _____ 본관 1층 열주 주변은 많은 사람들이 흐르는 직선적이고 동적 공간이라면 식당 전면 선큰은 많은 사람이 여유를 즐기며 휴식을 하는 원형의 정적인 공간입니다. 건물형태가 갖는 직선적인 동선의 마침표와 같은 원형의 선큰은 너무 그늘과 물로서 풍성한 휴식공간이어야 하는데 큰 나무 하나 없이 메미른 분수공간은 지칫 삭막해 보임을 부인할 수 없군요. 보완하자면 조명과 조경으로 더 채웠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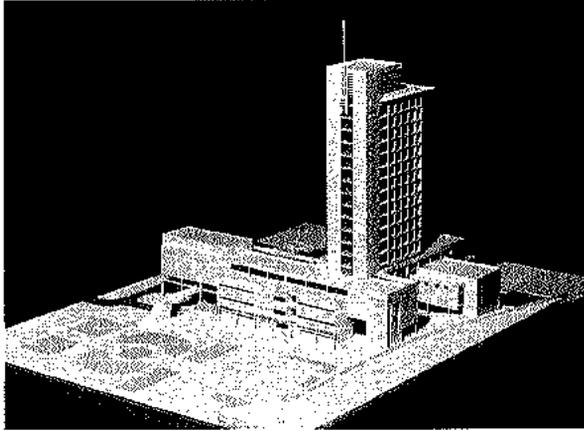
전진삼 _____ 이 건물은 전체적으로 처분한 형태, 정제된 컬러로 보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일련의 관공서가 갖고 있던 고압적 디자인 과잉에서 오는 거부감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계경기 당선안으로서의 안정된 자리 앉힘의 포맷은 이 대지의 바깥 경계를 주도하는 간선도로에서 볼 때 측면성이 강조된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달리 보면 현재의 건물이 완결된 모습이기보다, 전면의 넓은 주차장과 대로에 면한 대지 가장자리의 기벽을 통해 지시하는 앞으로의 성장성을 감지케 하는데, 이 건물의 완성형은 어떤 모습을 띠게 될까요? 수직적 증축보다 수평적 증축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 건물의 정면성이 강화될 수 있게 될까요?

최삼영 _____ 사실 건물이 한 토막 더 있어서 조금은 닫힌 마당을 만들어 훗날 지금의 정면을 풍부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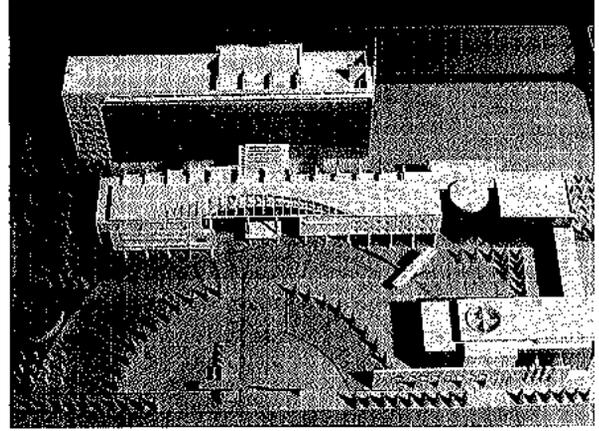
하고 싶어 증축된 모형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앞으로 업무의 디지털화 등으로 업무동은 더 증축될 리 없겠지만 주민들의 참여공간인 저층부는 더욱 확대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건물전면 좌측 주차장 부지에 1층을 필로티로 띄운 3층 짜리 건물을 지어 강당과 Bridge로 연결하고자 합니다. 현재 측면이 얇고 정면의 일면성만 확보된 다소 외로운 배치를 증축으로 인해 측면성을 확보하게 될 뿐 아니라 외부 공간의 효율도 더욱 높아지리라 봅니다.

전진삼 _____ 풍부한 외부공간의 구획이 이 덕양구청사의 매력 포인트 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저는 가끔 건축가들의 도면상 스케일이 현실세계에선 비인간적인 스케일로 다가오는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우선이 아니라 건물의 입면형식에 압도당하는 오버 스케일로 인간성이 형편없게 취급당한다 말이지요. 이 건물도 그렇습니다. 측면 대로면 기벽의 키라든가, 건물 파사드 판벽을 지지하는 열주랑들이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이렇듯 규모가 큰 건물의 입면 형식에 있어서 사용자를 전제로 한 휴먼 스케일의 적용은 도상에서의 도시적 스케일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걸까요?

최삼영 _____ 반찬 만드는 아내가 나에게 간이 맞는지 물어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만든 음식 맛을 만드는 이가 잘 모를 때가 많고 자신을 객관화시키기 힘들다는 말이었지요. 작업을 하다 보면 자기 도취에 빠져 함정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전소장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미처 살펴보지 못했군요. 저층부의 판벽이 다소 답답하고



외대본관 현상설계안(하나건축/박성규 공동작)



전주시청사 현상공모안

무표정하리라 생각되어 기능에 맞추어 수직으로 길게 찢거나 수평으로 돌출시킨 다양한 형태로 창을 만들어 표정을 만드느라 노력했습니다. 열주들은 출입구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정면성을 강조하고자 했죠. 연속된 열주랑들은 강당으로 깔려드는 찢어진 계단으로의 접근에 리듬과 긴장을 주고자 합니다. 다소 오버 스케일인 것들은 아마 관청사가 가지는 조형에 대한 선입견을 벗어나지 못한 탓은 아닐런지요.

전진삼 ___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게 좋겠군요. 현재의 덕양구청사와 작년말 한국건축문화대상 본상을 수상하여 화제가 되었던 성동구 노인복지회관의 두 경우가 설계경기 본 게임을 준비하는 도중에 연습게임 차원으로 응모했던 것이 당선을 하고, 그중 하나는 큰 상까지 받은 결과를 낳았는데 마음을 비운 작업하고, 욕심을 부린 작업하고의 차이 차고는 무척 재미있더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실 본게임, 연습게임이라고 하는 구분은 우스개 말씀이겠지요. 그러나 최소장이 설계경기 당선으로 건축계에 데뷔한 셈이란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당선확률이 높다는 주변의 평을 받아온 것이 사실인데, 당사자 입장에서 당선확률이 높았을 때를 견주어 설계경기의 덕목같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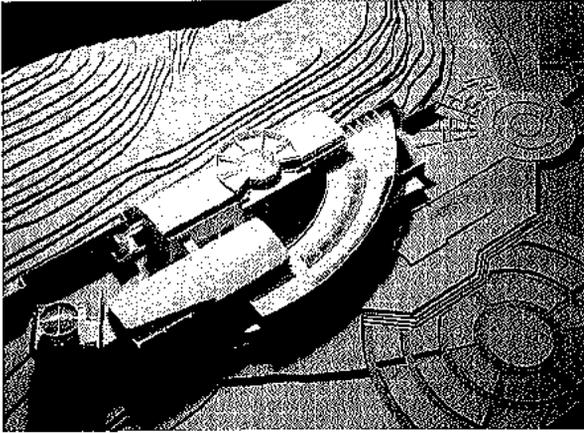
최삼영 ___ 아시다시피 현상공모 당선이 결코 주변에서 좋은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닌 것은 잘된 이웃이 배 아프다는 것이 아니라 실력 외의 힘에 의존했을 것이라는 추측 때문이겠지요. 실제 그런 오해를 하기도 하고 받

기도 했지만 당선작을 뽑는 심사에 손이 안으로 굽는다든지 잘 모르니 목소리 큰 옆사람 따라 손드는 일은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눈치를 잘 살피 누울 자리로 발을 뺐어야 함은 전략이지요. 실제 경기가 그리나 빠지지 않았던 IMF 이전에는 용역비 낮은 프로젝트에는 참가율이 그리 높지 않아 경쟁해 볼 만했죠. 그리고 가능하면 관심거리이고 재미있을 만한 프로젝트에 우선 순위를 두고 다음은 규모 큰 유명 건축사무소를 피해서 살길을 찾았지요. 말하고 보니 창피스럽군요.(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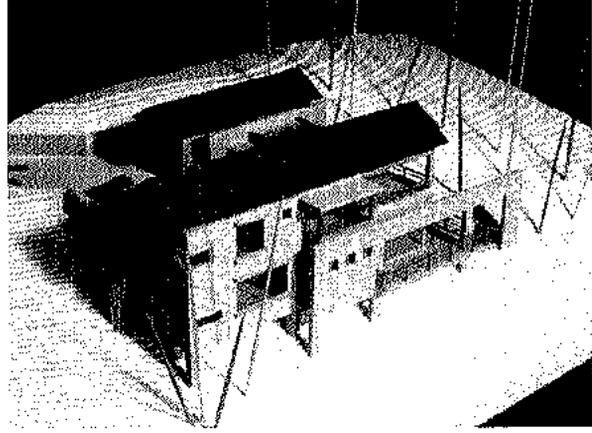
전진삼 ___ 재미있군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부쩍 최소장의 당선소식보다는 2등, 3등 권에 들었던 경우의 수가 더더욱 많아진 것 같은데, 그 까닭을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최삼영 ___ 사실 요즘 규모에 상관없이 참여사의 실력들이 쟁쟁한 것 같습니다. 대충 덤비는 이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한대로 마음을 비우고 덤벼야 하는데 먹고 살겠다고 눈에 불을 키고 욕심을 부려서 그런 걸까요....

전진삼 ___ 가슴아픈 곳을 찢른 것이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대답을 정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설계경기를 통해서 추진된 덕양구청사는 최소장 입장에서도 비교적 풍부한 자본과 행정적, 시공 기술적 뒷받침 하에 운용되었다고 자신해도 좋을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켜보면 아쉬운 점이 만만치 않았던 것 같



경남 산림박물관(공사중)



고양시 내유동 주책

습니다. 대담 중에 나눠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주시면 어떨까요?

최삼영___ 이미 지어진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새로 지어지거나 보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곳이 많습니다. 옥상에 조그만 휴게소 하나 만드는 것이라도 설계자에게 상의해 주면 정성껏 도와 드릴텐데... 초록색 옥상계단 뚜껑이 못내 맘에 걸리고 미처 보완 못한 열주 기둥 굽기, 가벽의 기둥, 빗물처리, 조경 등은 꼭 보완하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계일 말고 담당 공무원과의 여러 사건들, 감리회사 설립과 입찰에서의 고배 등에 말할 사건들은 지면을 피하고 술자리에서나 해물 이야기지만 평생 잊을 수 없는 서글픈 추억들이지요.

전진삼___ 그런 점이 있었군요. 오늘 건축 현장을 둘러보면서 눈엣가시같이 느껴지던 옥상부분의 마구잡이 댐방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의 생각여하에 따라 개선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만, 기습 답답한 것은 저 같은 상황이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는 데에 있긴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최근 몇 개의 프로젝트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셨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1년 살림이 쉽지는 않으실 터인데 나름대로 대비책이 있다면 끝인삿말을 대신해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오늘 장시간 함께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최삼영___ 건축가가 먹고 사는 일이사 늘 상 불안하지요. 이 일이 끝나면 대기된 다른 일이 있는 것

도 아니고 막연하게 현상공모하나 접수해놓고 거기에 목을 매야 하니 그나마라도 건진다고 만사가 해결되는 것 또한 아닌데.....국수가 안 팔리면 라면 장사로 바꾸기라도 해봐야죠.(웃음) 그래도 안되면 이런 자위라도 해야지요.

"건축 설계일 보다 재미진 일 하는 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래!"



덕양구청 경당 진입 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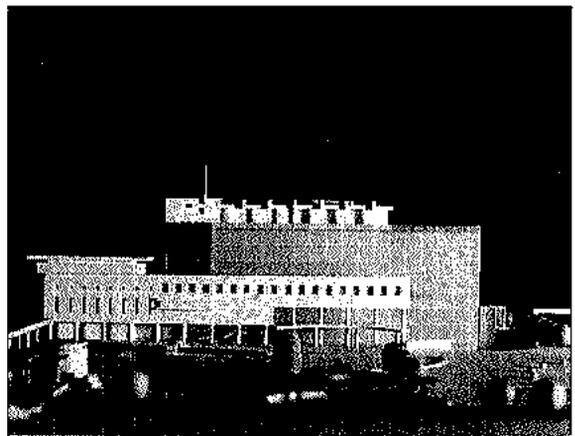
최삼영 건축의 조용한 울림

The Tranquil Resonance of Choi Sam-young's Architecture

김정후 / Studio O.N.E.
by Kim Jung-Hoo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지방 행정을 담당하는 청사 건물의 신축과 그 지역의 특성이나 특화된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각종 박물관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청사들이나 박물관들은 여러 가지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보편 타당한 공통적 측면이 존재한다.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며 주민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등으로 시작하는 너무나 막연하고 광범위한 설계지침 말이다. 이러한 관공서 현상에 임하는 건축가들은 역시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고 동시에 관공서 프로젝트가 가지는 한계를 적절히 의식하며 루지(?) 않는 디자인을 제시하게 마련이다. 사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관공서 현상설계에 등장하는 작품들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작품들을 전반적인 하향평준화로 유도하는 경우까지도 종종 보게 된다. 한편으로 우리의 관공서 건물에서

With the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policies, the architectural community was met with large demand of work for its administration offices and their related projects, such as local museums that takes on the symbolic role of displaying the regional colors. Though their circumstances vary, most of these offices and museums share a facet of universality - with the competition for their designs is attached the general if not vague guide to supply "a space for development of the region and their citizens reflecting the tradi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area." Architects participating in such competitions approach the design with a mind suitable to such demands - to fully acknowledge the limits of such projects and submit a design that isn't so 'over the top.' As a matter of fact, in result, it is often difficult to choose from so many similar suggestions, in many cases whose quality is generally averaged in an undesirable level. On the other hand, it would be unnecessary to emphasiz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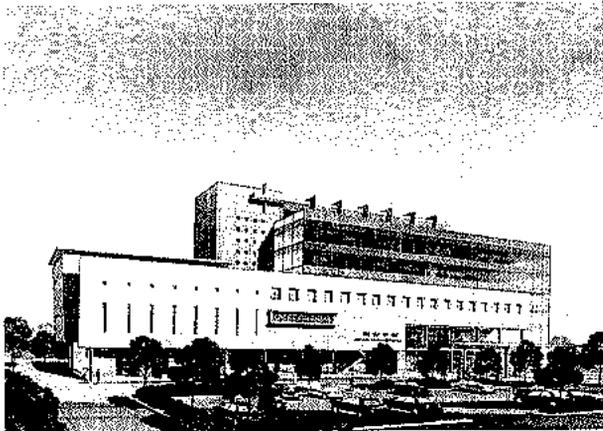
고양시 덕양구청사 모형

요구되어지는 기능과 공간들은 새삼스럽게 언급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명쾌하게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적어도 이러한 요구들에 대해서는 어지간한 경력의 건축가라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이러한 관공서 프로젝트의 승패는 외부공간을 포함한 배치 계획과 건물의 조형성 혹은 상징성 등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건축가 최삼영의 가장 큰 강점은 여기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독립 후 초기부터 현상설계에 집중함으로써 스스로 게임의 법칙과 생리를 체험하였고, 이러한 체험과 시행착오를 통하여 철저하게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현상설계에서 요구되어지는 보편 타당한 해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철저한 건축적 퀄리티(quality)를 유지하는 작품들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덕양구청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주목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그가 공간으로부터 독립한 후 초기부터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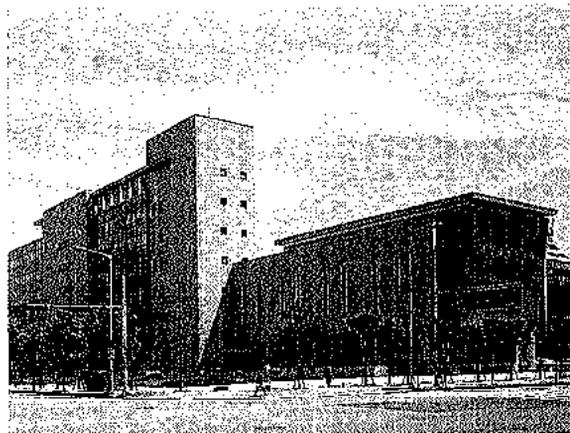
the degree of tightness with which the functions and spaces requested in these projects are defined. Since an architect with some experience can easily come up with a solution to the given problems, the deciding factor in these competitions concerns in large part the overall layout including the exterior spaces, and the formal and symbolic qualities of the building - the same area where we find the strengths of architect Choi Sam-young's works. Ever since establishing his own firm he has focused his designs on competition projects, going through and learning the rules of the game and coming up with some strategies of his own through the experience. It is a strategy of maintaining a valorization between the requested universality and an architectural quality within the project.

There are several aspects that deserve our attention in the Deogyang-gu Office. First is its formal composition - ever since he left Space to establish his own firm, he has be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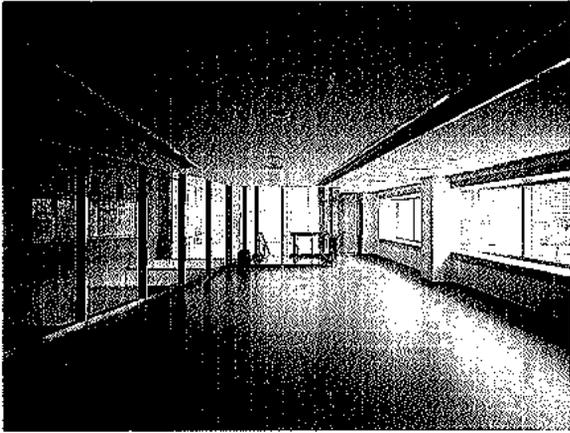
지해오고 있는 형태구성 방법으로서 시각적으로 명쾌하게 구분되며, 동시에 솔리드(solid)함과 보이드(void)함의 적절한 비례를 통하여 사각형 매스의 조형적 추상성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을 필자는 '추상적 채나눔' 정도로 정의해 보고자 한다. 현대 한국건축에 있어서 건축가 이일훈의 주요 개념으로 대변되는 채나눔의 원리는 전통건축에서 보여지는 공간구성의 수법을 현대 주거에 적용 가능한 하나의 해로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은 주로 평면상의 공간을 대상으로 한 '실제적 채나눔'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최삼영의 채나눔은 기본적으로 그 대상이 주로 1,000평 내외 혹은 그 이상의 비교적 대규모 공공건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즉, 이러한 대규모 공간에서의 평면적 채나눔은 사실 크게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가 사용하는 채나눔 기법은 공간과 형태구성의 단순로움을 극복하고 서로 다른

maintaining a coherent method of design in the works, which is one of visual clarity. The solid and the void arranged in appropriate proportion, the cubic volumes are given an abstract formal dimension. The method used in this aspect is what I would call 'abstract articulation of space.' The principle of spatial articulation, often referred in Korean architecture as architect Lee Il-hoon's primary concept, is one strategy of spatial composition derived from our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is applied in contemporary housing projects. It is usually a practical method of articulation, adapted in planimetric planning. The objects of articulation in Choi's work, however, are large buildings with areas of 3000m² and beyond. It is apparently different from those that were used in small housings. Such large scale of a building can even invalidate a method of spatial articulation, and to differentiate it from the previous concept I shall label this as an abstract tool - forming relations or interference among buildings



기능의 건물들간의 관계맺기' 혹은 간섭하기'를 위한 변형된 방법으로 이러한 의미에서 '추상적 채나눔'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기존의 관공서 건물들이 형태적으로 아직도 박스형태의 강한 대칭성이나 중심성 등을 기점으로써 그 권위적 모습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과 이러한 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터득된 방법이라 생각된다. 더불어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대규모 건물에서 얻기 어려운 깊이감이 느껴지는 건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깊이감이 덕양구청사의 경우 저층부에서 회랑과 연결되어짐으로써 더욱 배가되어지고 있다. 실제로 최삼영은 전통건축의 채나눔에서 사용되는 원리 중의 하나인 음양론에 대한 탐구를 통하여 각각의 공간들을 분류하고, 다시 이들을 적절한 매개체를 이용하여 통합시키는 원리까지도 시도하고자 함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그는 건물이 놓여지는 땅과 건물이 만나는 방법, 분절된 매스와 매스가 만나는 방법, 다시 건물과 외부공간

of diverse functions, it is useful in the attempt to provide some variety to spatial, formal simplicity. I believe it is a method naturally won from Choi's previous works, in his constant strive to go beyond the symmetrical and rigid planning of government office buildings, often drenched in authoritarian atmosphere, and has presented this work with a sense of depth not usual in a building of such size. This depth is further enhanced in Deogyang-gu office, with its lower portion connected to the wings. Choi actually researched into and made use of the principle of yin and yang from our traditional methods of articulation, classifying each space in order to integrate them through another medium. It is reflected in his work that he spends considerable amount of time in the way the building meets the ground, how each separated volumes meet together, and the methods that combine the building with its surrounding exterior. In Deogyang-gu Office, the office portion chose curtain wall as its skin and becomes the



이 만나는 방법에 설계의 많은 시간을 투자함을 알 수 있다. 덕양구청사의 경우는 업무동은 유리 커튼월을 사용하여 주요한 볼륨을 형성하고, 이를 배경으로 민원동은 화강석 판재를 사용하여 구분하고 있다. 이를 기본으로 하여 코아부분과 강당 부분 등이 모두가 독립적인 형태를 지니면서 동시에 깊이를 가지며, 끼워진 모습을 취함으로써 여러 개의 껍질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각각의 기능적 매스들은 모두다 다른 형태의 입면 디테일을 가짐으로써 시각적으로도 구분되어 지며 동시에 다양성을 획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는 덕양구청사의 경우는 배치계획에서부터 평면, 입면계획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격자 체계를 구성의 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또한 전체적인 형태가 선(線)적인 구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선적인 구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바로 저층부에 사용된 판벽과 스펀드럴 부분의 수평띠

dominant volume of the project, while the part for civic affairs becomes its backdrop with its granite finishing. Upon this basic structure, the core area and the auditorium all are established as independent forms with depth - the insertion of these objects into one another creates multiple layers within the work. These functional volumes are endowed with different details in their elevation, and thus maintain visual distinction from each other.

The second characteristic aspect of this work resides in its compositional frame of the grid, which is placed on almost every facet of the design - from principle layout to the planning of plan and elevation. This is also a proof that the whole of the office follows a linear composition. What most stands out in the linear planning is the use of plate wall in the lower portion and the stripe in the spandrels. The lines of each volume are superimposed upon each other, and the overall effect is a design strong on lines than planes. The plate wall used in this building,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건물을 이루는 선들은 모두가 일정 부분씩 중첩되어 구성됨으로써 면보다 선이 더욱 강조되어짐을 알 수 있다. 실제 이 건물에서 사용된 판벽은 가벽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최삼영 건축의 전 작품에 등장하는 중요한 건축적 모티브이다. 이 건물에서 판벽은 앞뒤로 건물을 감싸안는 듯한 모습을 취하면서 수평적으로 강한 통합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경쾌함이 부여됨으로써 청사가 지나는 권위 역시 상당히 완화되는 두 가지 장점을 동시에 얻고 있다.

셋째는 무형의 외부공간과 유형의 건물을 엮어주는 통합의 원리이다. 최삼영의 외부공간에 대한 관심과 그 처리 방법에는 분명한 원칙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건물에서 사용된 형태를 그대로 여운을 남기듯이 일정 부분씩 외부공간으로 확장시키는 방법이다. 크게 덕양구청사에서는 네 개의 원이 사용되고 있다. 주출입구 부분의 진입광

except that it is one closer to a partition, is a constant and important element in the works of Choi. The plate walls encompass the building from both front and rear, generating a strong sense of horizontal integration. It also provides a light touch to the building, relieving its program of government facility of authoritative weight.

The third is the principle of integration that links the formless exterior with the built form. One can easily detect the presence of an apparent concept in the way Choi takes interest in the outdoor spaces and deals with them in the design process. It is how he utilizes formal ideas from the building in the exterior, expanding its concept as if to suggest a trace of the internal structure. In this case, what were applied were four circles. The entrance plaza and court for citizens in the main entrance area seems to be a formal concern and doesn't bear much meaning. But the canopy of the entrance impresses its users beyond i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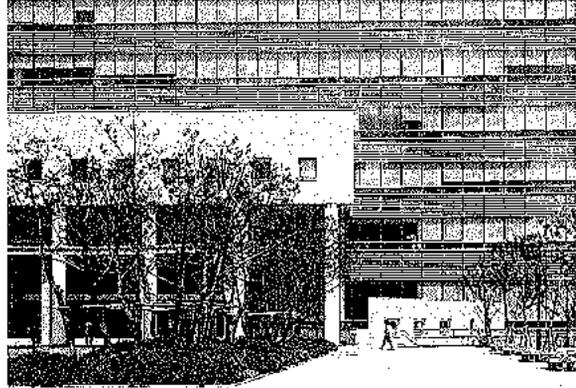


장과 구민마당은 형식적인 것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진입구의 캐노피는 시각형 매스를 배경으로 마치 도시를 감싸안는 듯한 형태를 취함으로써 그 크기에 비하여 비교적 강한 인상을 주고 있다. 또한 이 캐노피의 선이 그대로 지면으로 연장되고, 가벽과 바닥패턴을 통하여 상징광장으로 처리됨으로써 외부공간과 연계를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내부와 외부공간을 초기부터 염두에 두고 디자인함으로써 마치 대지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도형으로 인식되도록 하고 있다. 최근제가 본 바로는 아직은(?) 외부공간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현상설계를 주로 하는 건축가가 프로젝트에 상관없이 동일한 자신의 건축개념을 유지한다는 것은 한국적 상황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생각된다. 건축가의 생각이 다른 것과 상충되었을 때 우선 순위가 될 수 없고, 또한 이를

size, with its arms open to the city behind the cubic volume. The line of this canopy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ground, and, with the use of partition and floor patterns, forms the symbolic plaza, creating a close link with the outdoor space. This method, encouraging the architect to execute the design with both interior and exterior spaces from the outset, enables one to perceive the whole site as a singular big shape. It is unfortunate that, at the time of my visit, the outdoor spaces were not fully realized according to Choi's plan.

It may well be worthy of note that an architect eagerly participating in various design competitions has succeeded in maintaining his idiosyncratic vision of architecture through out his works, especially under the circumstances of Korea. The architect often becomes vulnerable when his ideas are met with oppositions, since many are not in a situation where his claims are primary. Beginning with Deogyang-gu Office, the



강력하게 주장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덕양구청사를 시작으로 최삼영이 현상을 통하여 당선된 건축물들이 최근에 하나 둘씩 완공되어 등장하고 있다. 중요하면서 동시에 어려운 점은 이제부터라 생각된다. 필자가 언급한 그의 건축에서 보여지는 특성들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언급한 보편타당함을 대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보편타당함이 적어도 지금은 그리고 당분간은 이러한 현상설계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점으로 작용하여 승산있는 게임을 가능하게 할 수는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원칙이 될 수 없다. 일정 시간이 지나 이것이 또 하나의 진부함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을 때 그의 건축이 어떠한 진보 혹은 진화의 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건축가 최삼영에게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커다란 벽이며, 이제부터 그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competition-winning projects of architect Choi Sam-young are now being realized one by one. It is from now that becomes at once difficult and important. The characteristics of his works that I have pointed out are fundamentally based on the premise of universality, mentioned at the beginning. Such universality will serve as a reference point for others and prove to be fruitful in the competitions for now and the near future, but it does not contain an absolute value. As time goes by, this will one day be accepted as another banal cliché, and Choi will have to break new grounds and progress further into this field. This problem of constant renewal is what he faces today, and only through serious researches and experiments will he find his way out.

경동교회 선교관

Mission Hall of Gyeongdong Presbyterian Church

조구현 / 신세대종합건축사사무소 + 임창복

Designed by Cho Ku-Hyun & Lim Chang-Bok

건축개요

| | |
|------|-------------------------|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 2가 303-27호 |
| 대지면적 | 2,247.90㎡ |
| 건축면적 | 373.54㎡ |
| 연면적 | 2,318.49㎡ |
| 건폐율 | 16.6% |
| 용적률 | 69.95% |
| 규모 | 지하 2층, 지상 5층 |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조 |
| 최고높이 | 26.1m |
| 외부마감 | 적벽돌치장쌓기, T24mm반사복층유리 |
| 설계담당 | 윤정현, 한철, 조용상, 김남성, 강구혁 |
| 구조 | 한샘구조 |
| 전기 | 화인전기 |
| 기계 | 테라설비 |
| 시공 | (주)태아건설 |
| 건축주 | 한국기독교 장로회 경동교회 |



투영과 지속개념에 의한 도심속의 오아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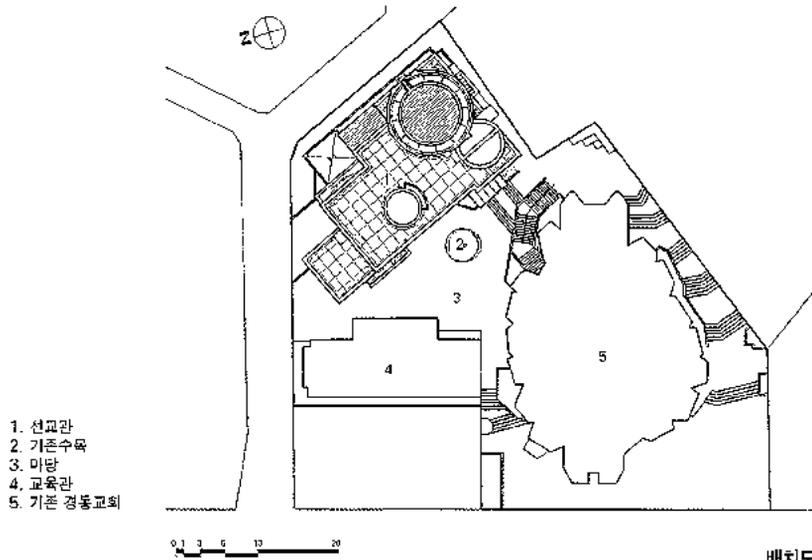
경동교회 선교관은 80년대 초 김수근에 의해 설계된 경동교회 본당 후면에 건립된 건물이다. 경동교회 본당은 건축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대로 조소적 형태로 계획되어 강한 상징성을 표현해 주고 있는 한국현대건축의 걸작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건축주로부터 경동교회 선교관을 설계수주 받을 당시 본당의 이미지와 별개로 할 것인가 아니면 본당의 부속시설의 개념으로 볼 것인가에 많은 갈등을 느꼈다. 고심 끝에 경동교회 선교관은 본당의 이미지를 '투영'시키고, 장소가 갖는 특성을 '지속'시킨다는 개념을 갖고 도심속의 오아시스를 마련한다는 시각으로 접근하였다.

이런 개념의 구현을 위해 벽돌로 계획은 하되 본당의 이미지를 투영시킬 수 있도록 유리면을 넓게 계획하였다. 외부에서 동선을 따라 진입하게 되면 경동교회 선교관에 투영된 본당은 유리면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가 되어 근접된 본당의 외관이 멀리서 바라보는 듯한 효과를 보게 하였다. 그리고 도심속의 오아시스라는 마당을 만드는 것이 또 다른 계획개념이었다. 이 마당을 매개로 기존의 본당과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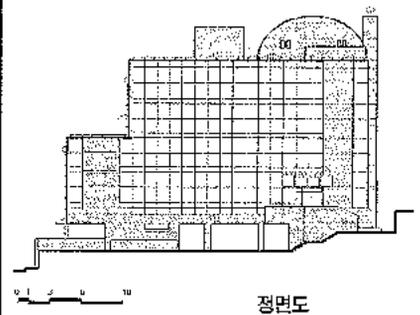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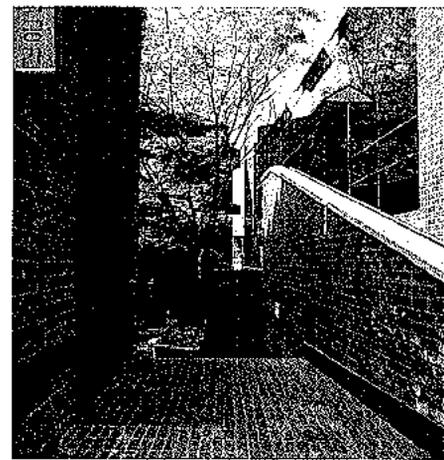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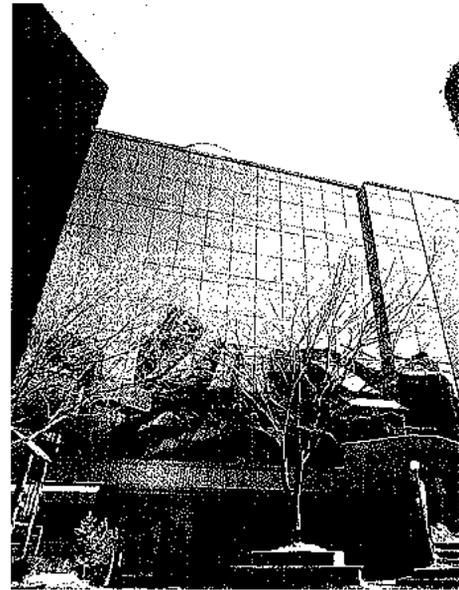
관, 그리고 새로운 선교관이 연계되도록 구상하였다.

특히 선교관 1층은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나 벽돌마당의 재질감을 그대로 이어가 공간의 깊이감을 더하여 마당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대청'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그리고 이 선교관에서는 내부의 갤러리와 장공(김재준 목사의 호) 채플이 눈여겨 볼 공간이다. 갤러리는 교인들의 작품을 전시하기고 하고 대여도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으며, 특히 본격적인 전시회가 없는 경우 전시벽을 접이 식으로 열어 가변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배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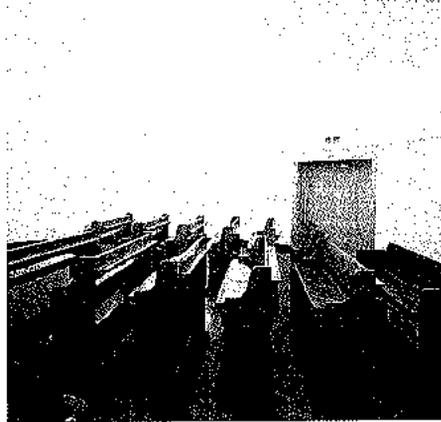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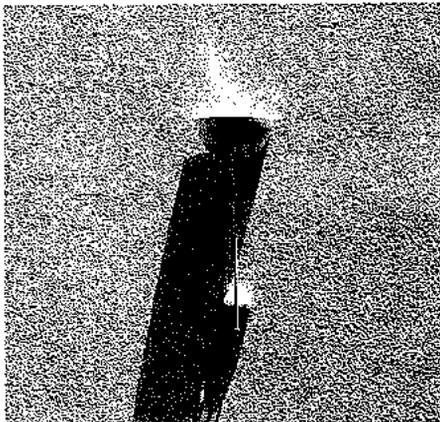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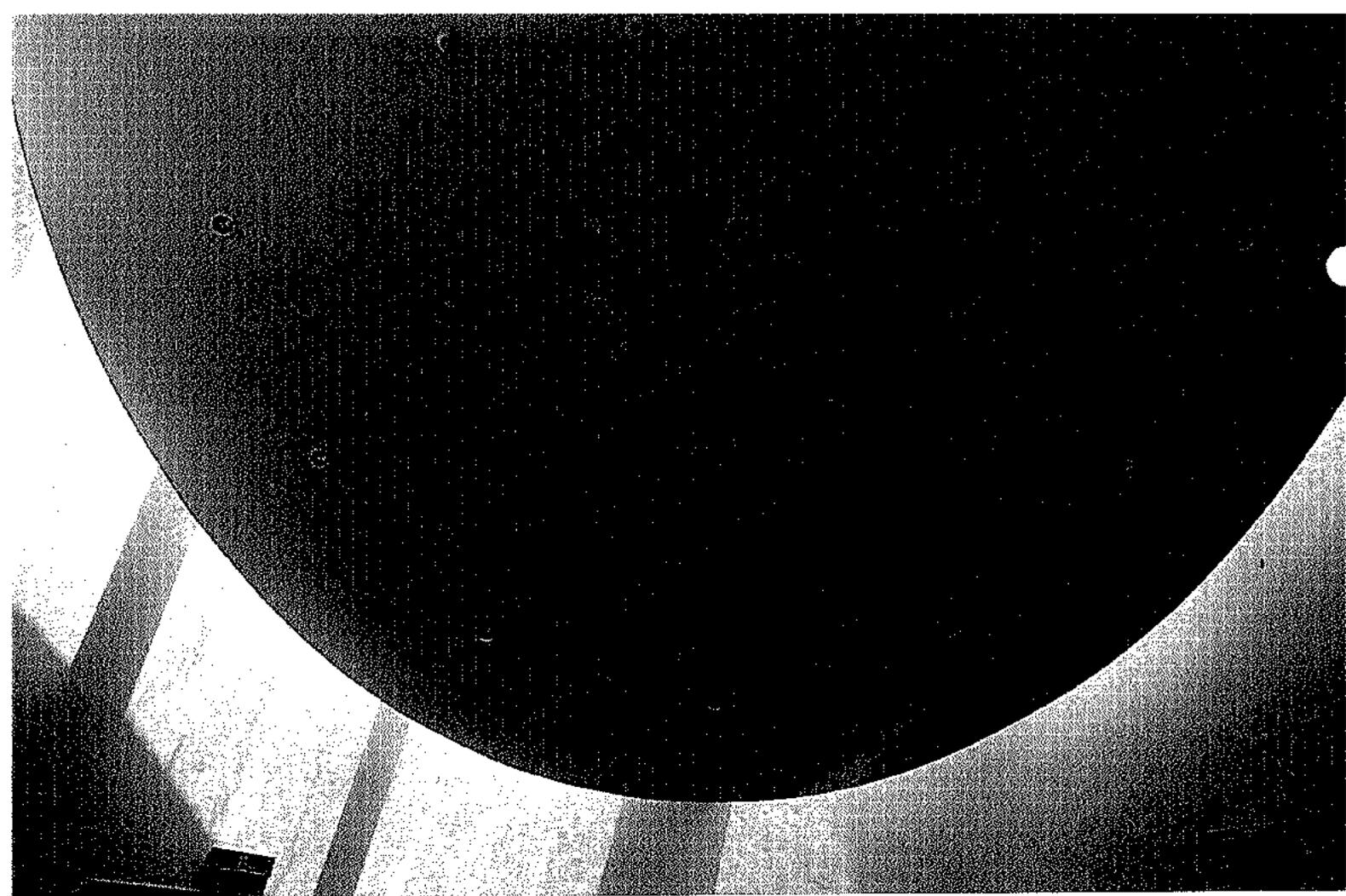
또한 제일 돋보이도록 마련된 공간은 4층의 장공채플이다. 경사진 지붕면은 주변 골목으로부터의 사선 제한을 이용한 것이고, 채플은 둥근벽체를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내부에서 보면 빛이 하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건함이 더해지는 분위기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 이 채플의 공간적 특징이며, 하늘로 부터 빛이 반사되어 나타나는 조명등의 빛꽃은 이 공간의 영적의미(Spiritual Meaning)를 한층 더 돋보이게 해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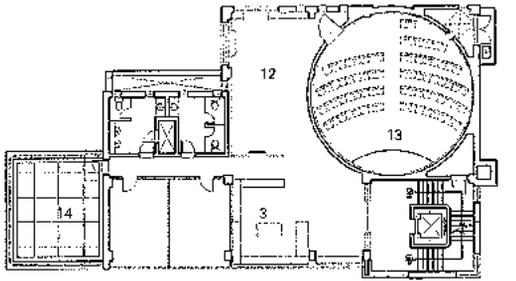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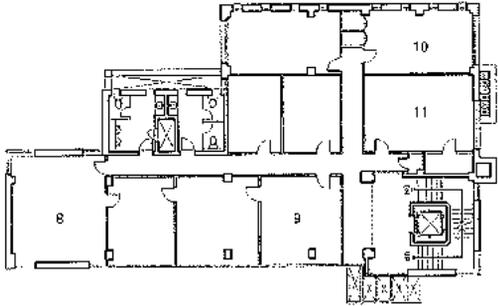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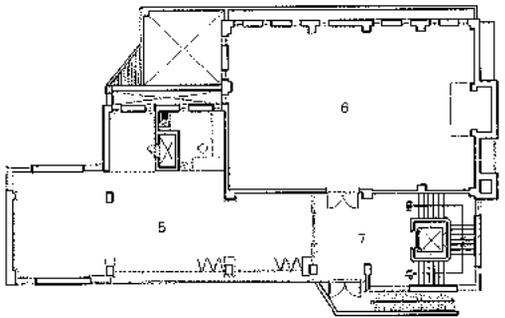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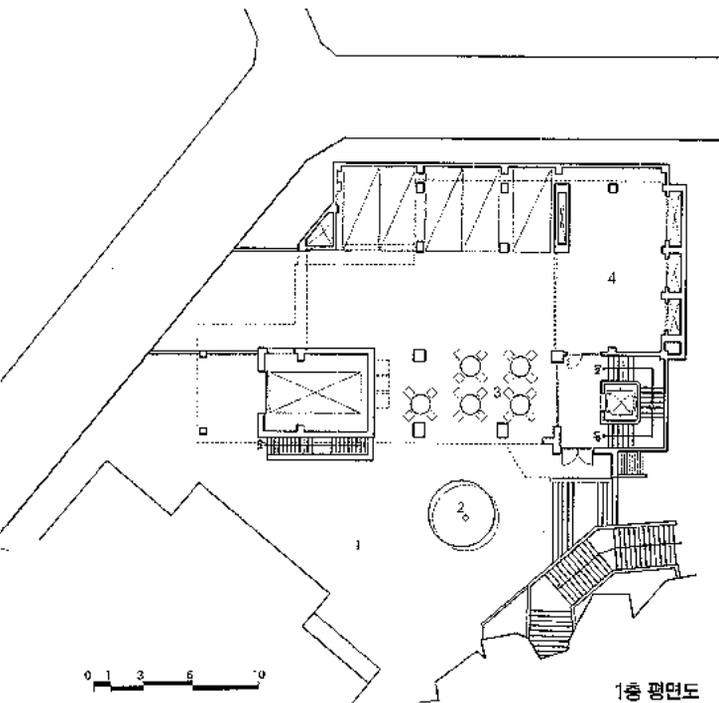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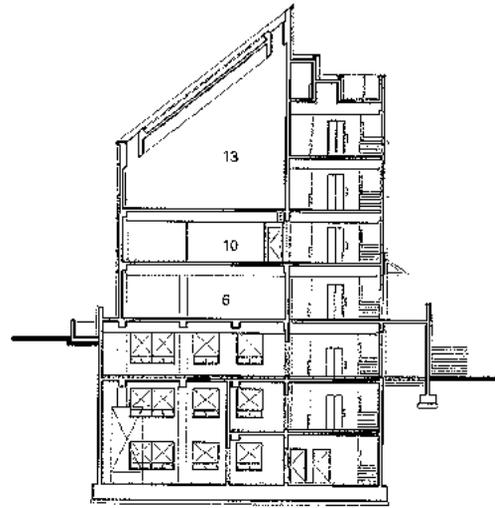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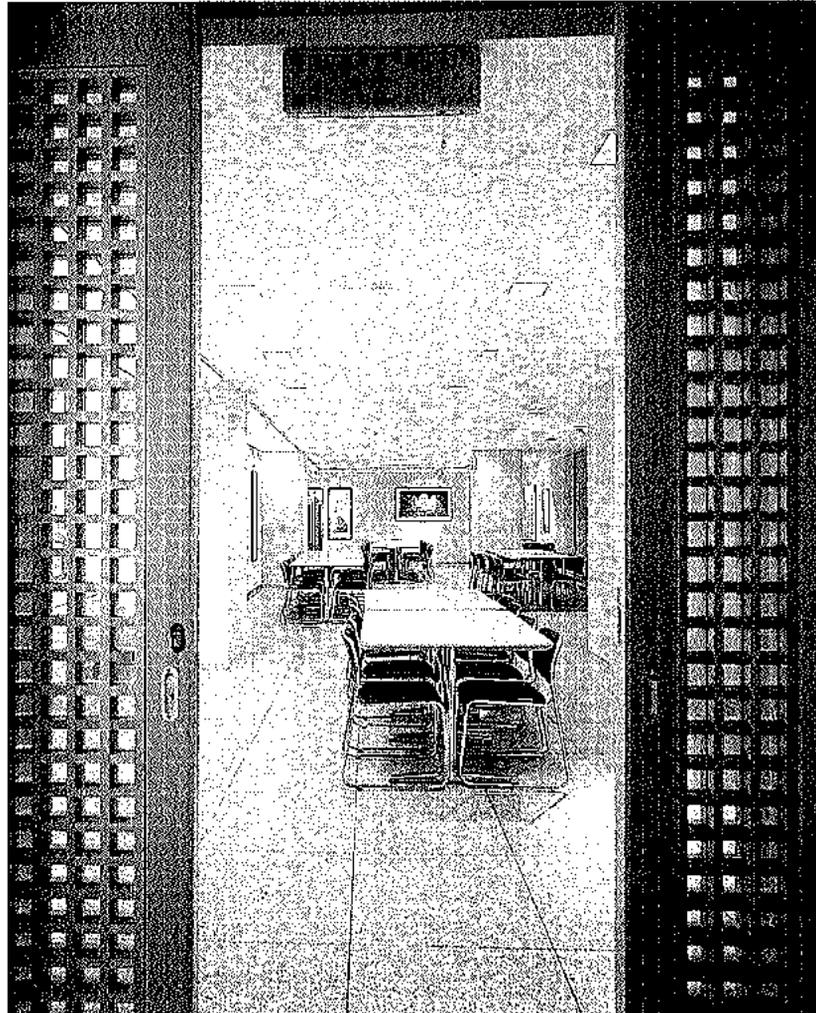


1층 평면도



중단면도

- 1. 마담
- 2. 기존수목
- 3. 휴게코너
- 4. 창고
- 5. 전시 및 휴게실
- 6. 상가대 연습실
- 7. 온
- 8. 당회장 집무실
- 9. 사무실
- 10. 여신도실
- 11. 예배실
- 12. 기념전시실
- 13. 장공 재물실
- 14. 옥상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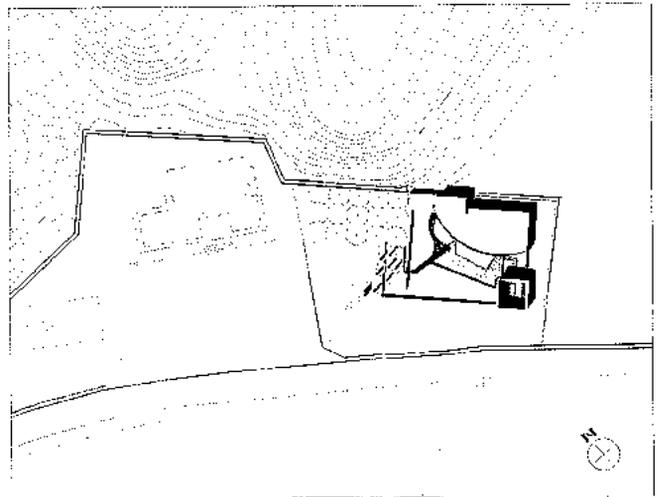


양구전투기념관 Battle of Yanggu Memorial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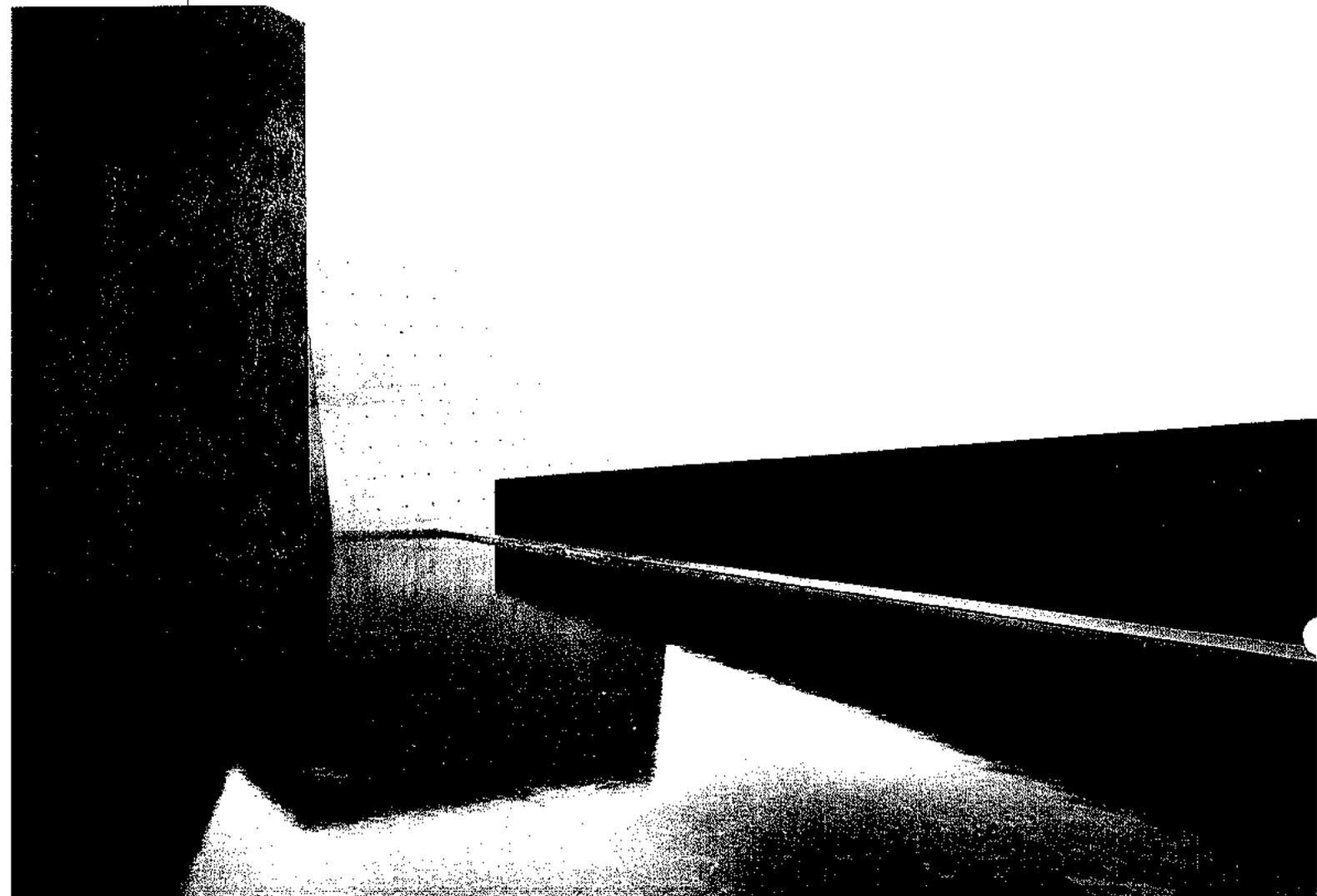
이성관 / (주)한울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Sung-Kwan

건축개요

| | |
|-------|----------------------------|
| 위치 |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후리 629번지 외 4필지 |
| 지역지구 | 준농림지역, 군사보호구역 |
| 용도 | 문화및집회시설(기념관) |
| 대지면적 | 3,491.0 m ² |
| 건축면적 | 427.63 m ² |
| 연면적 | 414.83 m ² |
| 건폐율 | 10.11 % |
| 용적률 | 11.88 % |
| 규모 | 지상1층 |
| 외부 마감 | 노출콘크리트, 보강볼록치장생기 |
| 건축주 | 양구군청 |
| 설계팀 | 정규백, 양길수, 황환진, 김성순, 송봉기 |
| 감리 | 김현조 |
| 시공사 | 영종종합건설 |



배지도



점보이고 그 능선넘어 나머지 5개 고지가 위치함으로서 관
념적으로 보이게 되는 셈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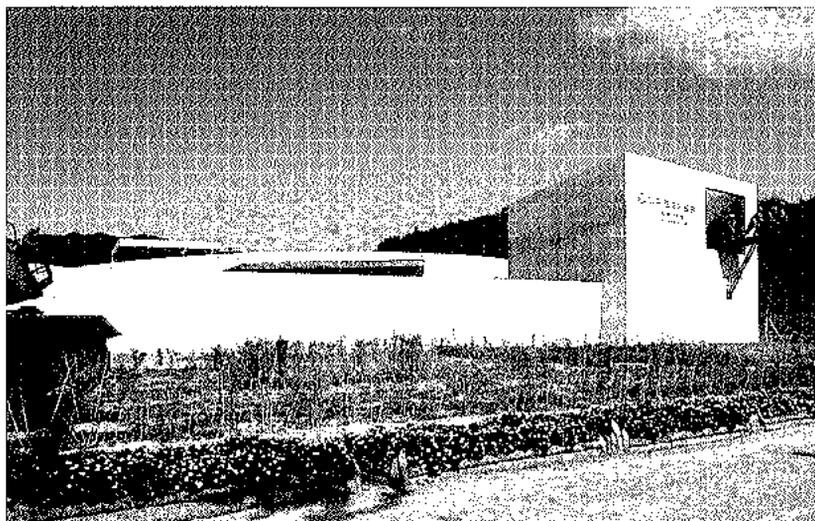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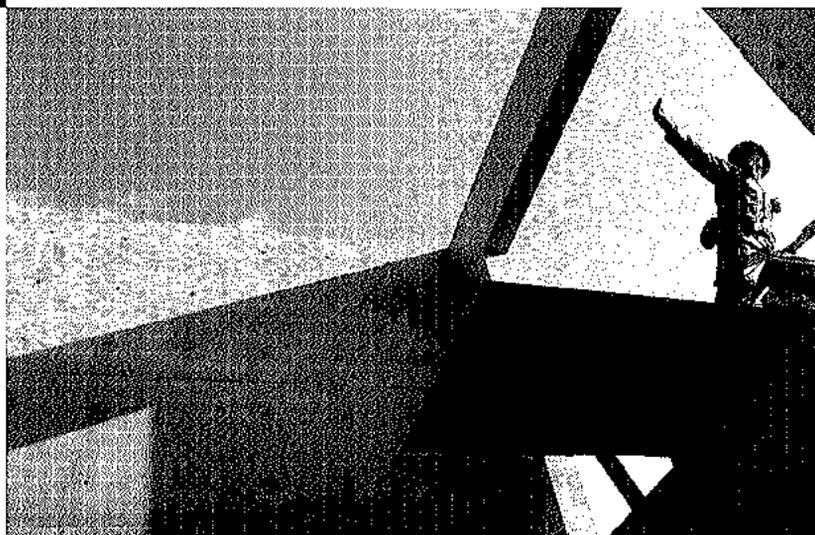
양구지구전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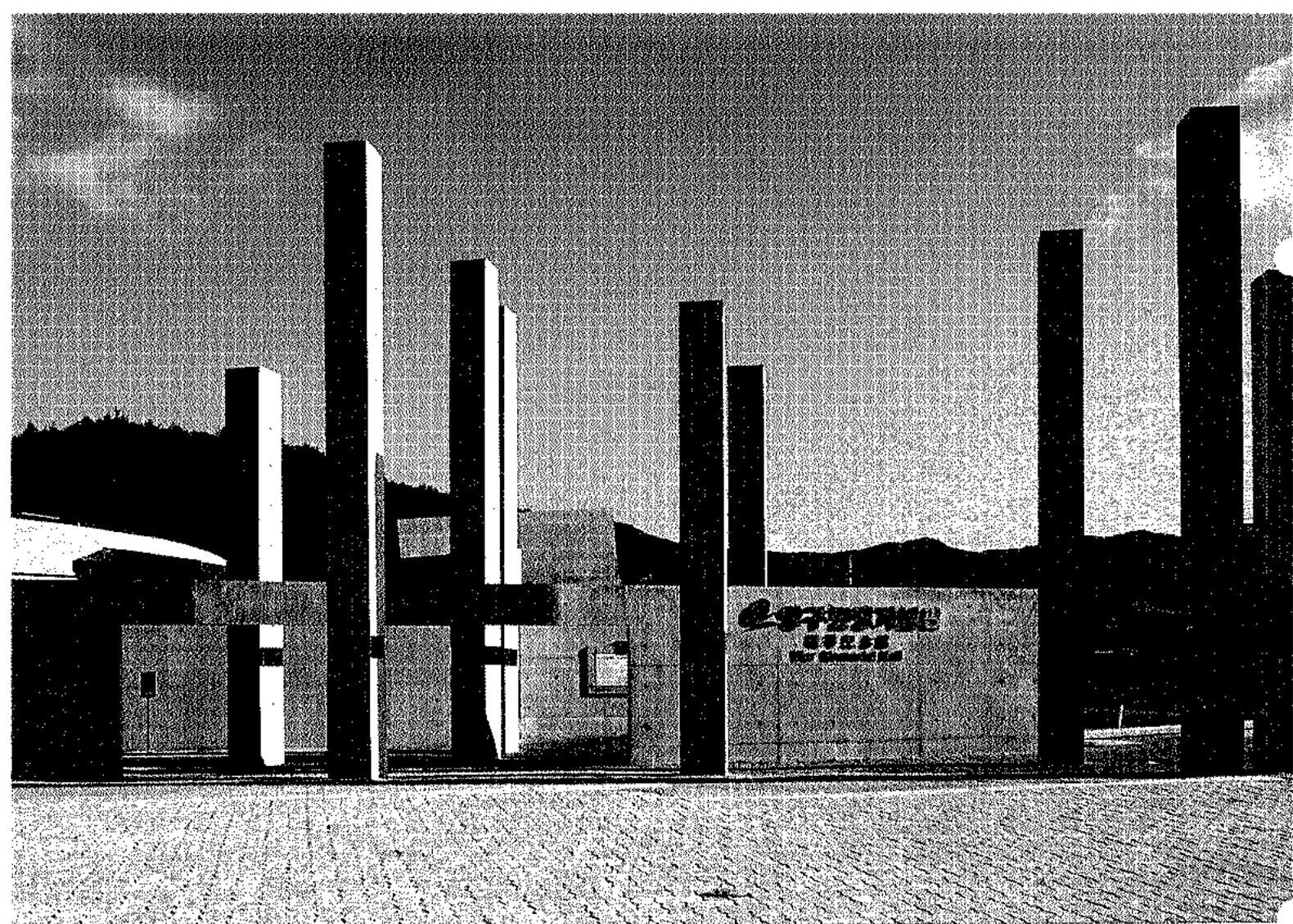
1951년 7월 20일 이후 휴전회담이 진행되
는 상황에서 유엔군과 공산진영은 휴전협상에서 지형상 유
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제한전쟁을 벌였다. 따라서 양
구지역의 전투는 전쟁을 중지하자는 휴전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치열하게 전개된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양구지
역에서는 1951년 6월에서 동년 12월까지 약 7개월간에
걸쳐 9개의 주요 지구인 도솔산, 대우산, 편치봉, 피의능
선, 단장의능선, 가칠봉, 백석산, 949고지, 크리스마스고
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그해 8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의 단 2개월간에 전개된 5개 지구 고지쟁탈전에
서만도 피아간의 전사 및 실종자만 2만명을 넘는, 전사상
단일지역전투로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고가(高價)의 격전
을 치렀으므로 중동부전선 중심에 위치한 이곳의 온 산하
는 피로 물들었고 단 한포기의 풀뿌리조차 남지 않았다. 이
를 기록한 종군기자들이 명명한 단장의 능선(Heart Break
Ridgeline), 피의능선(Bloody Ridgeline) 등의 고지 이
름만 보아도 그 당시의 전투가 얼마나 격렬했단가를 보여
주고 있다. 이 지역 전투의 유형은 공격전투로서 고지쟁탈
전으로 전개되었고, 아군의 승리와 희생으로 그만큼 휴전

해안분지(PUNCH BOWL)/SITE

이 기념관이 자리하는 해안(亥安)면은 양구군
동북부에 위치하며 사방이 해발 1,000m 내외의 산들에 의해
타원형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중앙부는 표고 500m 내외의 평
탄한 고원으로 전형적인 분지형태를 이룬다. 소양강 지류들의
차별침식으로 인해 형성된 이 분지에는 하천과 도로가 동쪽의
좁은 협곡을 통해 원통을 지나 인제군으로 남하한다. 이곳은
지리적으로는 고립되어 있으나 군사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전
략적 요충지로서 입지한다. 따라서 이 분지의 서쪽 단부 능선
에 포함되는 도솔산, 대우산, 가칠봉의 장악은 이 요충지가 확
보되기 위한 필수조건이었다.

당시 미군들은 이 특이하게 생긴 지형을 보고
PUNCH를 담은 BOWL처럼 생긴, 분지라는 의미로서 펀치
보울(PUNCH BOWL)이라 불렀다. 분지 중앙에 세갈래의
길이 교차하고 200m정도 떨어진 곳에 이 부지가 자리한다.
각각은 서남쪽의 양구읍과 동쪽의 인제 그리고 서북쪽의
DMZ내의 제4땅굴과 울지전망대로 연결되어 있다. 교차로에
서 동쪽으로 200m정도 떨어진 도로변에 기존의 북한관과 도
솔산전적비가 있고 그 중앙광장의 동편부지가 신축부지가 된
다. 이 부지에서의 조망은 편치봉과 3개 고지의 실루엣이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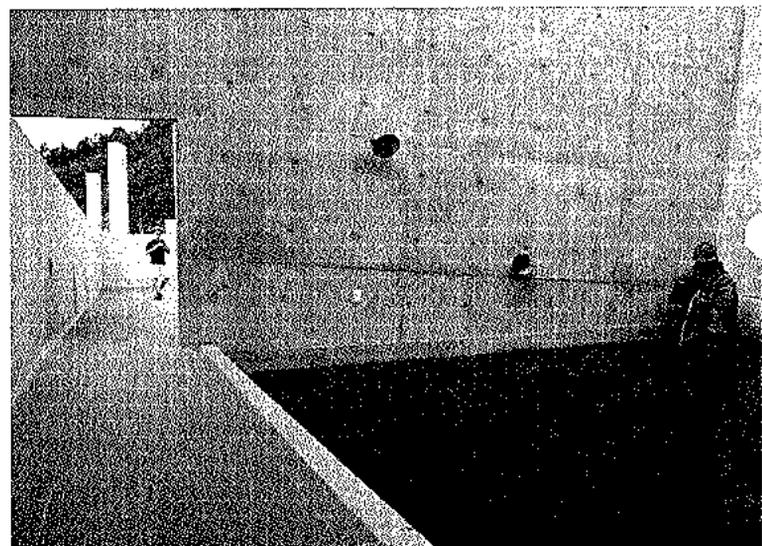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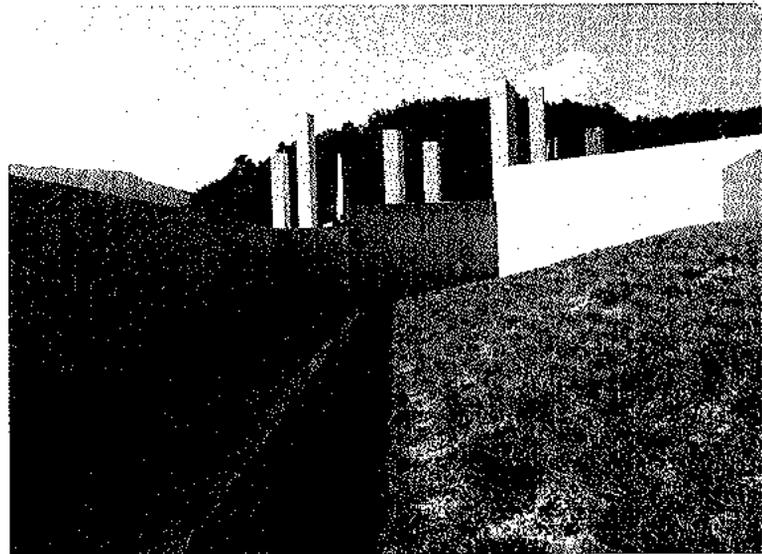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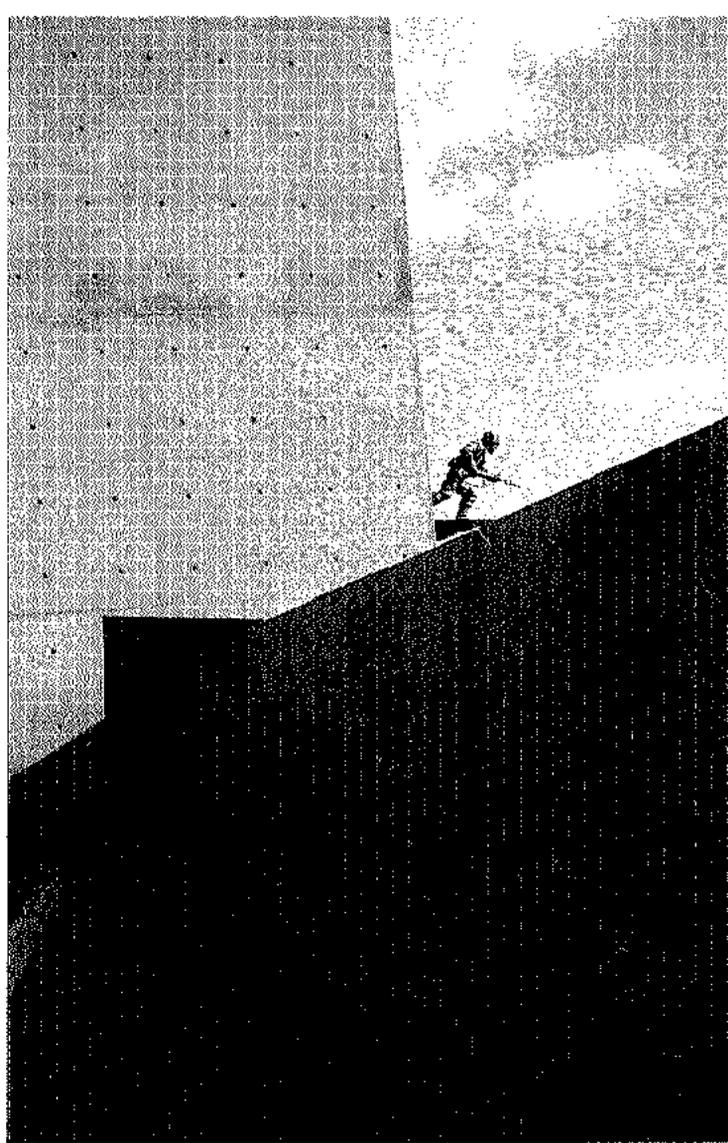


선이 북상할수 있었던 셈이다.

『○○보다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는 일상 관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한 작전지역에서 가장 높은 고지는 주변일대를 감제할 수 있어서 이를 점령하고 있는 쪽이 강력한 포사격을 집중하는데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고지를 점령한 측은 공격군보다 적은 병력을 가지고도 효과적인 방어를 할 수 있고 손실 역시 공격군보다 훨씬 적은 희생으로 끝낼 수 있다. 양구지역은 내륙산간에 있는 산세가 험준한 산악지역이고 산맥은 끝없는 고지들의 연속이며 이곳을 장악한다함은 끝도 없는 고지의 쟁탈전과 사수로 이어진다. 전형적인 이곳 지형은 보병에게는 고통과 고난의 상징이었다. 무인의 땅을 확보하고 지키기 위한 희생을 감안할 때 고지는 너무도 고가(高價)의 목표였다.

전선의 일진일퇴, 사단의 이동과 배치, 장군의 전술·지휘 등은 전사록에 공식 기록으로 남게되나 실제 육신으로 땅을 디디고 악몽같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죽음의 혈전을 치루었던 병사들의 입장에서 본 전장에서의 기록은 개개인의 뇌리에서만 기억이란 형식으로 남아있다. 당시 이 전투에 직접 참전했던 노병사들로부터 회상이란 방법으로 기억해낸 증언들은 지금 이 시점 일상의 우리에게 상상하기 힘든 극단의 상황을 전하고 있다. 영하 2~ 30°의 펀치볼 정상의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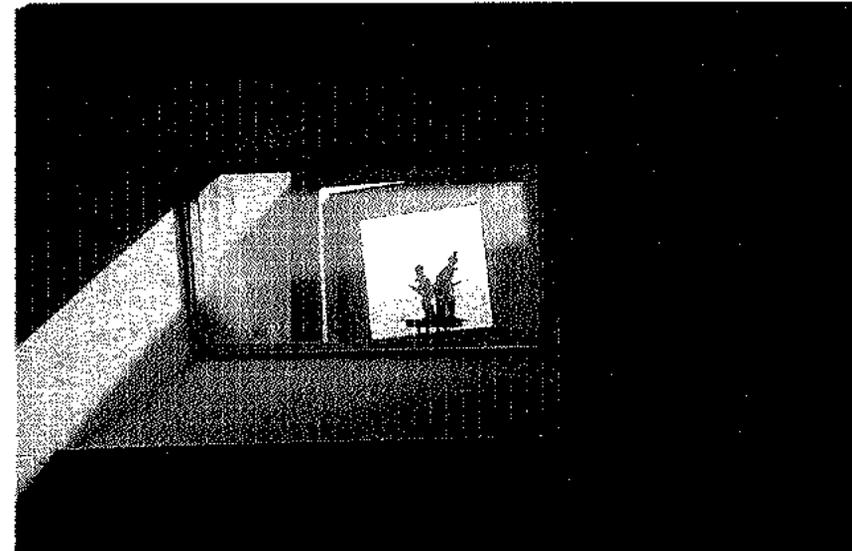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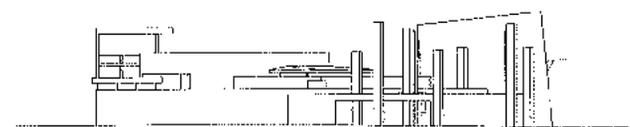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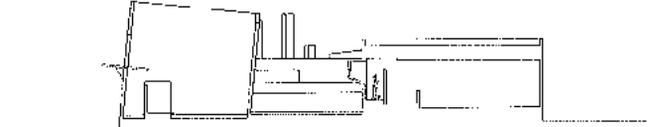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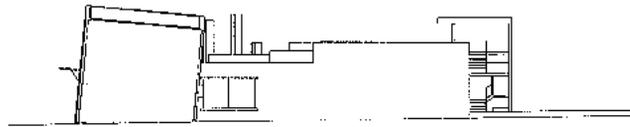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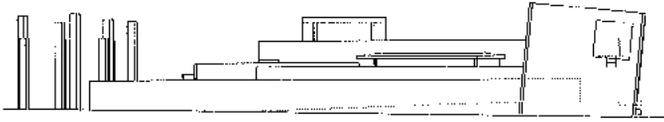


짙한 추위에서는 쇠붙이는 너무차서 맨살을 건드렸다
가 때면 피부가 금방 떨어져 나갔고 모진 추위는 흐르
는 피를 얼어붙게 해서 어느 병사의 경우는 실혈로 인
한 죽음을 면하게 해주었다고 한다. 60°를 웃도는 이
곳 특유의 가파른 경사면, 한국 특유의 점성의 진창,
장기간에 걸쳐 참호전의 고난과 장마, 몸서리 치도록
격렬했던 적의 공격, 웃음을 거둔, 굳은 얼굴로 싸움터
를 향해 나아가는 동료, 해병 저격수들의 눈속에 깃들
인 두려움의 눈빛, 집중포화로 5m나 낮아 버린 고지
전체의 표고, 이런 것들이 이곳 전장의 리얼리티였다.

전투전적기념관 / 전쟁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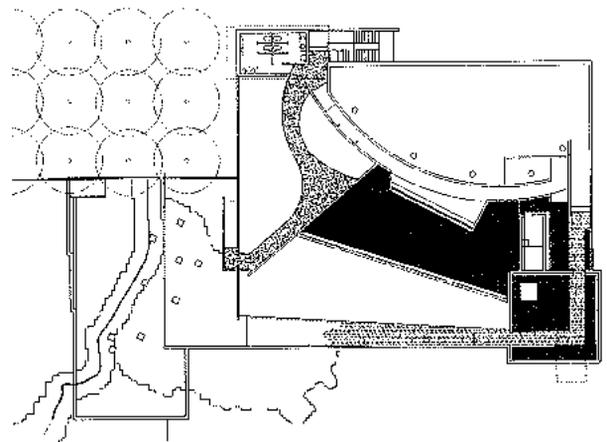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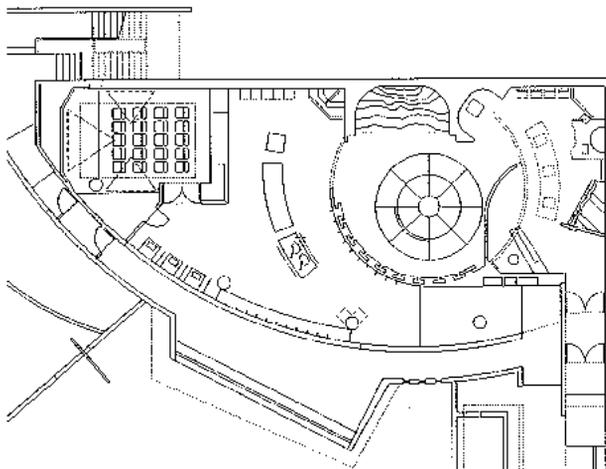
양구군에서는 당시 이곳에서 격렬하게
치루어졌던 9개지구의 전투 사실을 6·25 50주년을
맞아 기념하고 아울러 편치볼 DMZ내의 제4땅굴, 을
지전망대와 부지옆의 북한관과 도솔산전적비 등 기존
의 안보관광지와 연계하여 개발하는 것이었다. 한정된
저예산하에 개략 100평 규모의 소규모 기념전시관으
로서, 군에서 원하는 내용을 단일 건물타입의 홍보전
시관 개념이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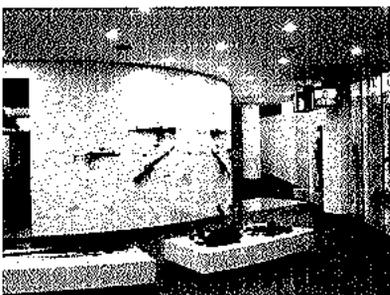
입면도

단면도



전시실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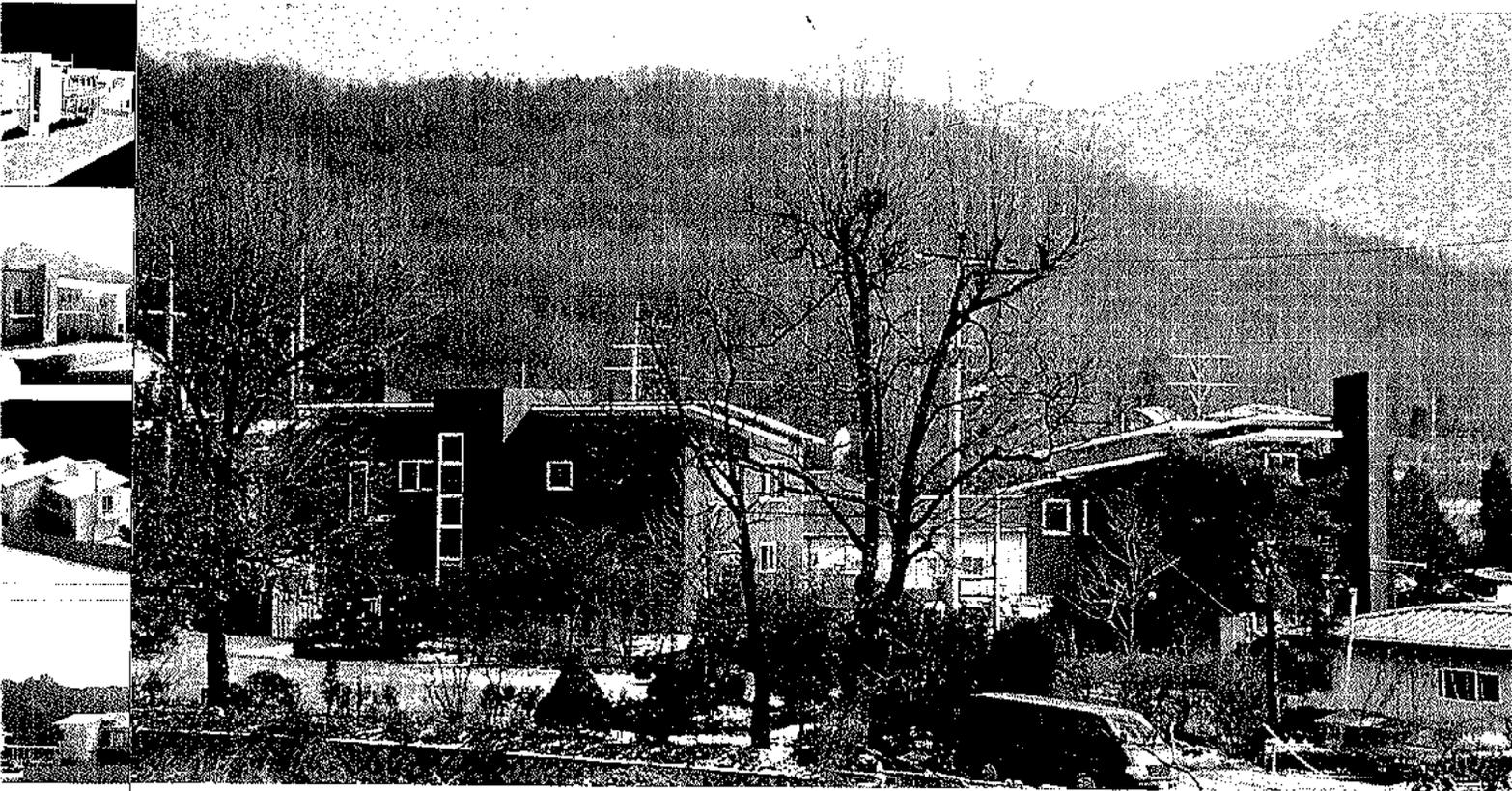
평면도



지축동 주택

Jichuk-dong Residence

이관직 / 비온드스페이스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Kwan-Ji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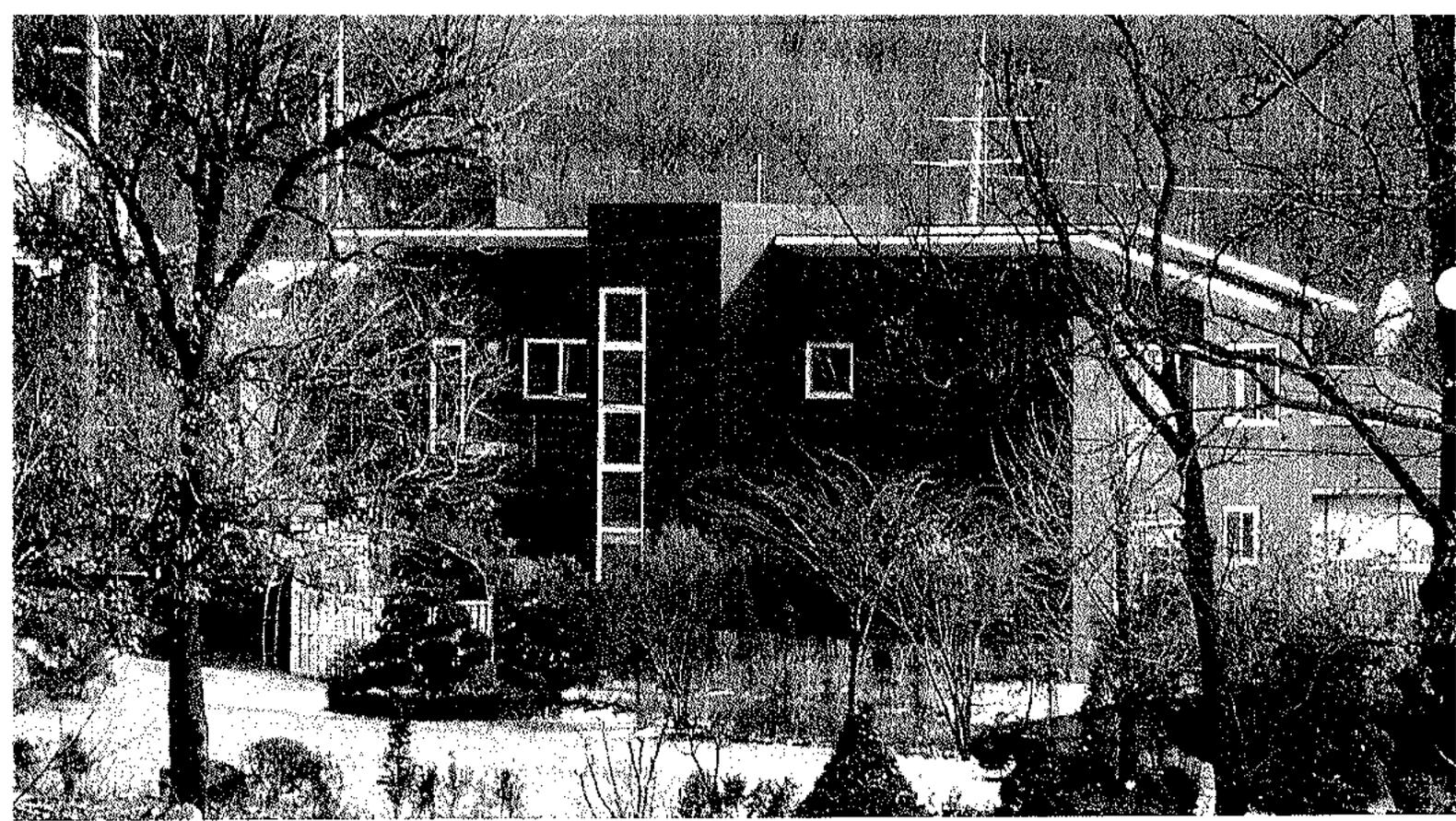


A주택 - 들꽃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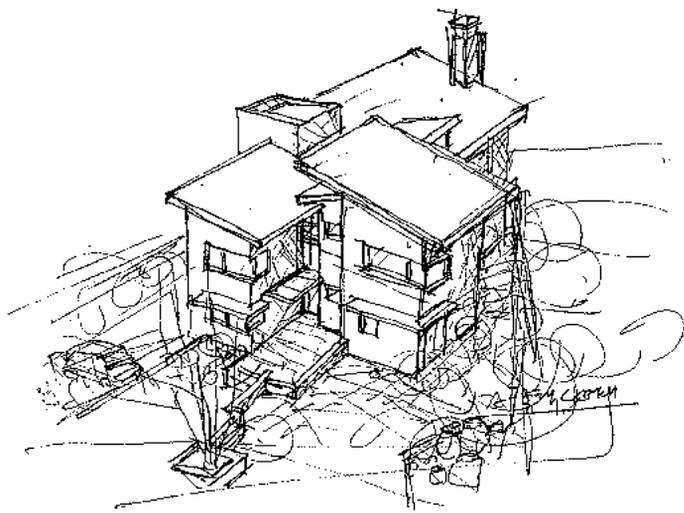
| | |
|-------|--------------------------|
| 대지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01-3 |
| 대지 면적 | 527.00㎡ |
| 용도 | 단독주택 |
|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
| 연면적 | 210.05㎡ |
| 건축면적 | 105.02㎡ |
| 건폐율 | 19.93% |
| 용적률 | 39.86% |
| 주차 대수 | 1대 |
| 층수 | 2층 |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 주요외장재 | 외단열공법-수지물탈 |

B주택 - 누덕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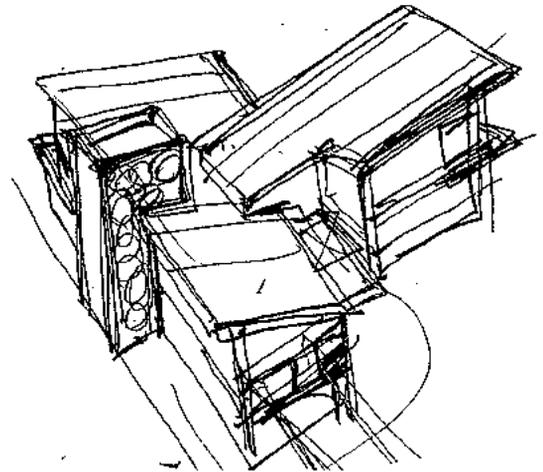
| | |
|-------|--------------------------|
| 대지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01-1 |
| 대지 면적 | 527.00㎡ |
| 용도 | 단독주택 |
|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
| 연면적 | 162.97㎡ |
| 건축면적 | 104.75㎡ |
| 건폐율 | 19.88% |
| 용적률 | 30.92% |
| 주차 대수 | 1대 |
| 층수 | 2층 |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 주요외장재 | 외단열공법-수지물탈 |



A



A 주택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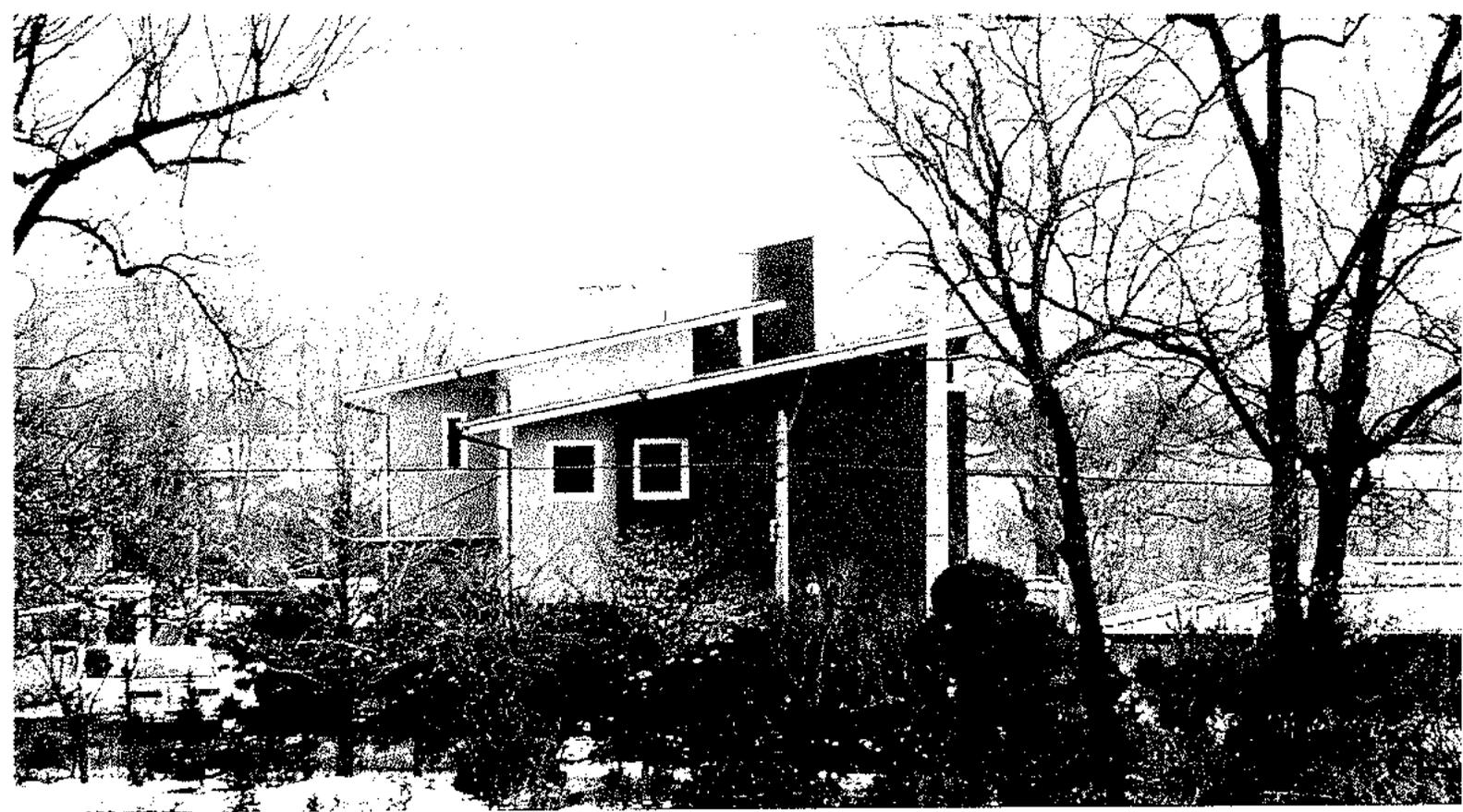
A 주택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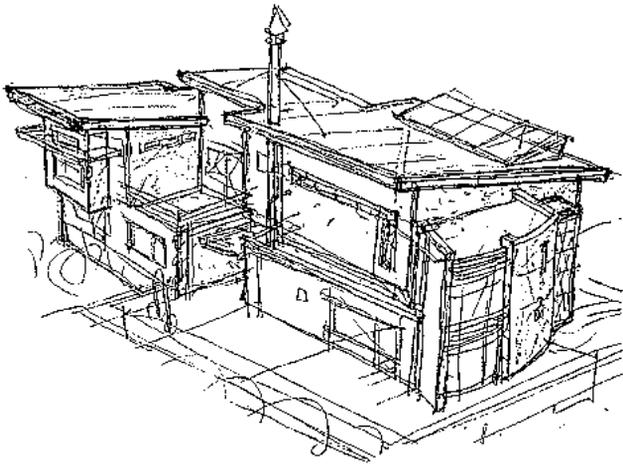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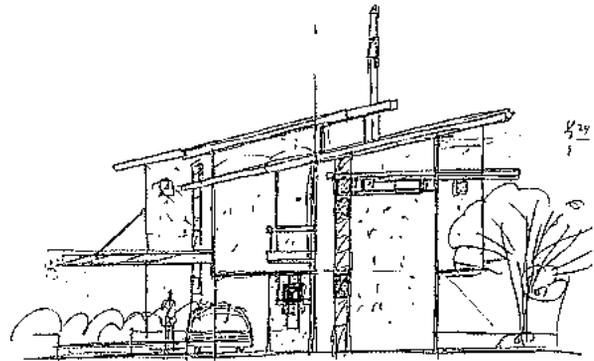
A



B



B 주택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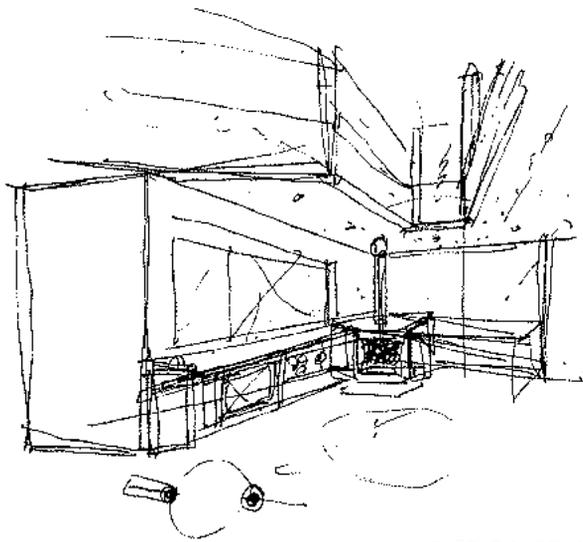
B 주택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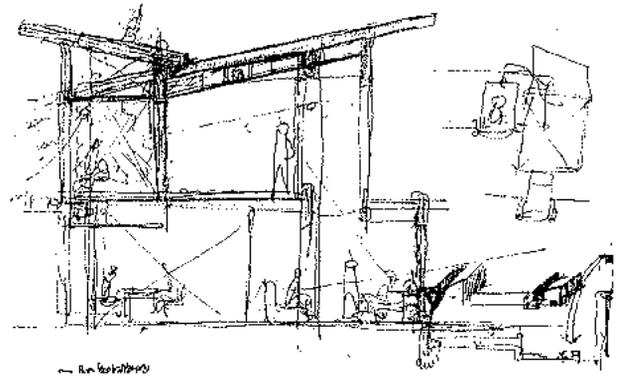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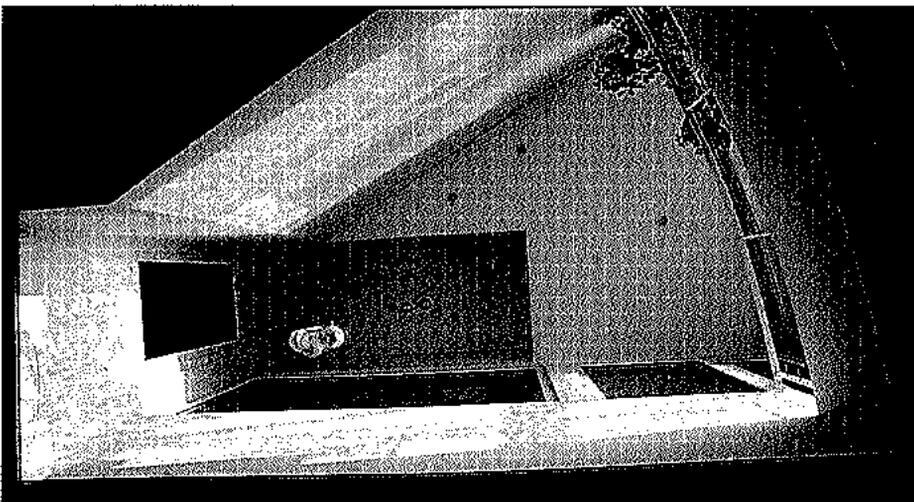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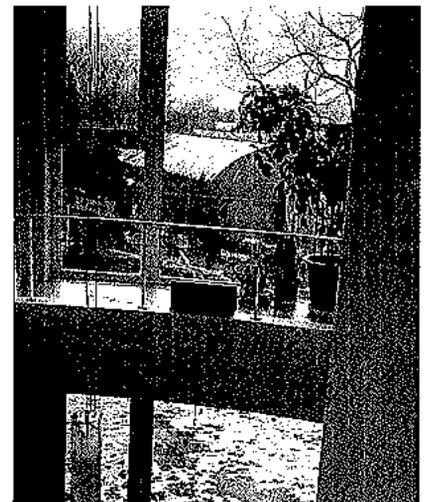
B 주택 거실 초기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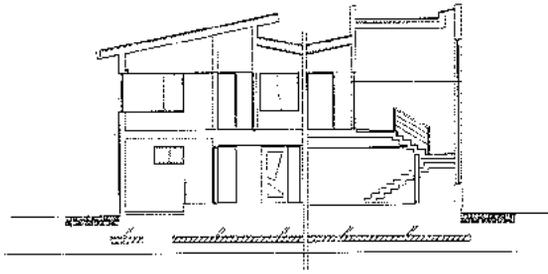
B 주택 단면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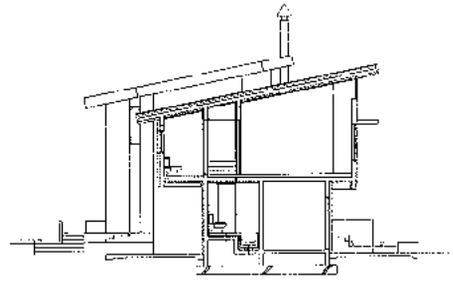
B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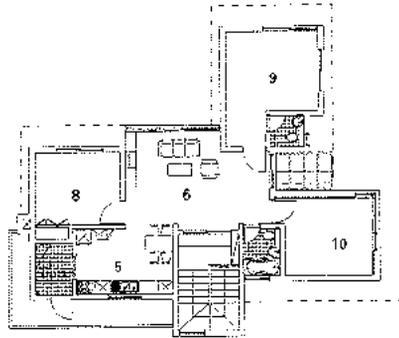


A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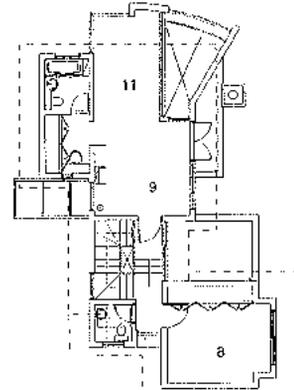


B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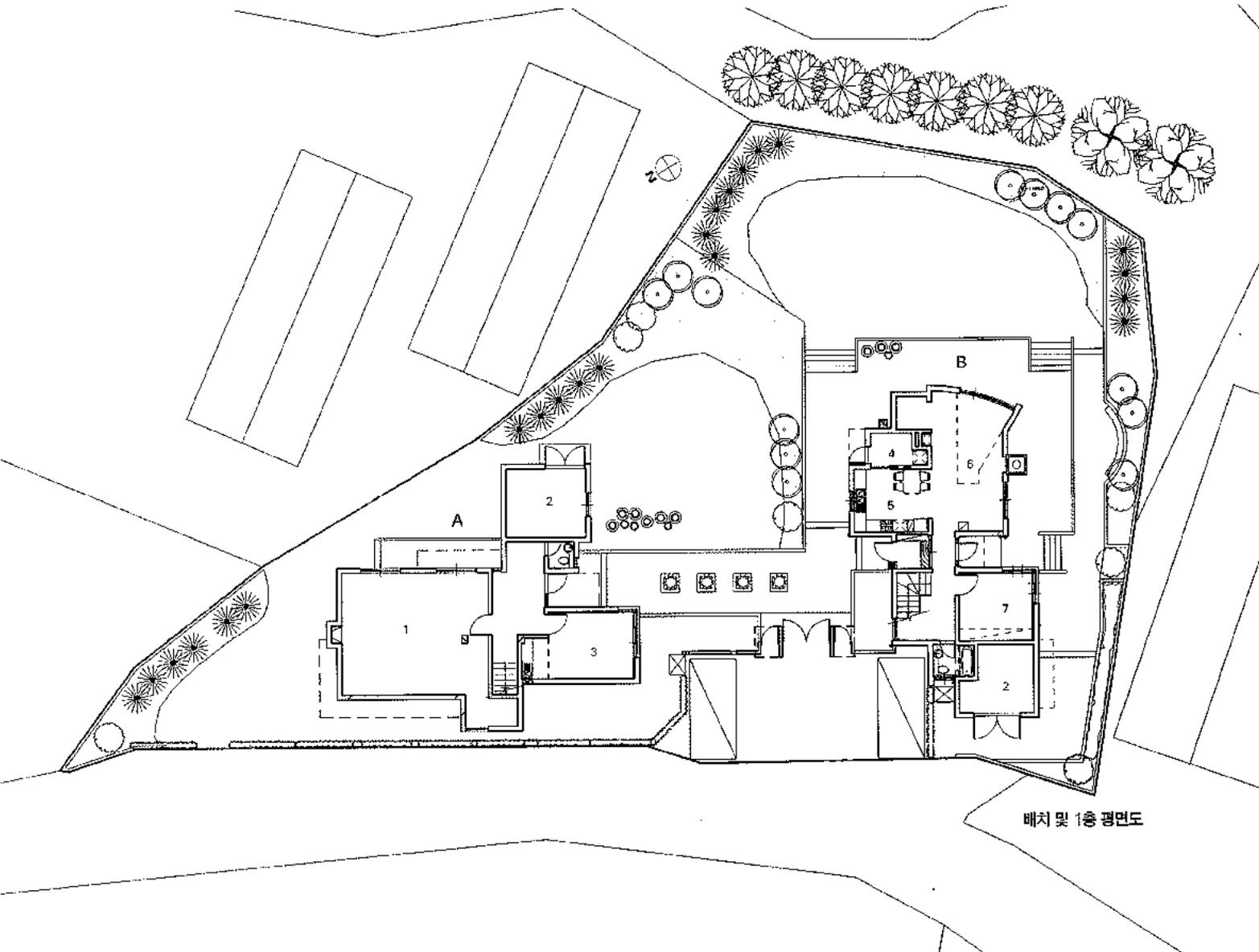
1. 작업실
2. 보일러실 / 창고
3. 아이방
4. 다중도실
5. 식당 / 주방
6. 거실
7. 노부모방
8. 아이방
9. 안방
10. 할머니방
11. 서재



A-2층 평면도



B-2층 평면도



배치 및 1층 평면도

흥국생명보험(주) 신문로 사옥

Hungkuk Life Insurance Sinmun-no Building

부대진 · 김무현 / (주)진아건축 · 도시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Bou Dae-jin & Kim Moo-Hyun

건축개요

| | |
|------|-------------------------|
| 대지위치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226 |
| 대지면적 | 4,815.30㎡ |
| 건축면적 | 2,133.03㎡ |
| 연면적 | 72,054.16㎡ |
| 건폐율 | 44.30% |
| 용적률 | 1,496.36% |
| 용도 |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
| 구조 |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
| 규모 | 지하 7층, 지상 24층 |
| 설계담당 | 홍승훈, 황요한, 윤보근 |
| 구조설계 | (주)창 · 인우구조 |
| 전기설계 | 한양전설(주) |
| 기계설계 | 삼영설계기술(주) |
| 시공 | LG건설(주) |
| 사진 | 채수욱 |

PUBLIC ZONE - mass communication spac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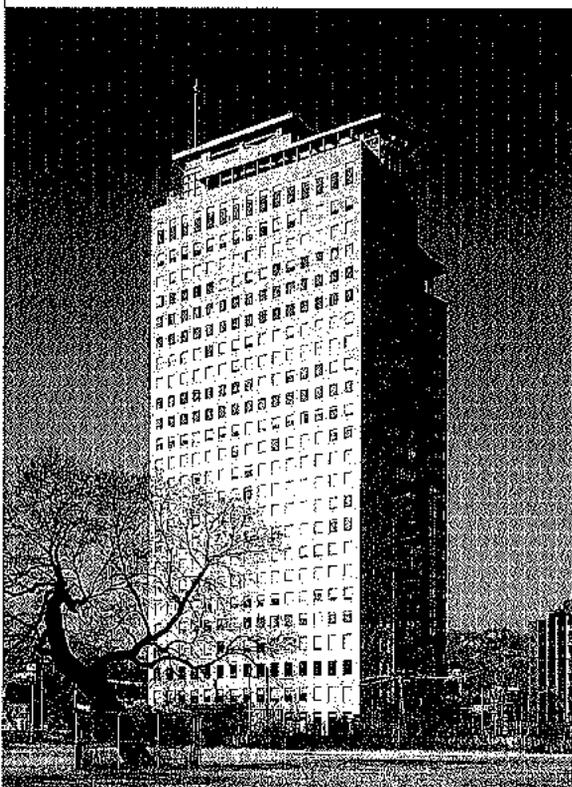
오피스건물을 설계하는데 있어 필자가 가장 고민하는 곳이 public space다. 가장 많은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수년간 public space라는 개념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public space라는 개념 자체가 19세기적인 발상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우선 public(公衆)이 의미하는 바에서 출발해보자.

Crowd(군중)은 사람들이 동일장소에 집합한다는 단순한 전제로써 형성되는데 비해서, public(공중)은 분산하여 존재하며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를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자유로이 자기 의견을 가지는 것이다. 20세기 초 근대 건축이 형성되는 시점에서 'public(공중)'은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를 잡게된 것이다. 그러나 사회학계에서는 현재, public(공중)의 이념은 현실과 맞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현대는 'public(공중)의 시대'에서 'mass(대중)의 시대'로 이행(移行)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mass(대중)의 시대에서 public(공중)은 소수의 엘리트와 대다수의 mass(대중)로 분열되는데, 소수의 엘리트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획일화되고 무기력해진 '모래와 같은 대중' 위에 균립하며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mass(대중)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살고 있다. 더 이상 public(공중)의 시대는 아닌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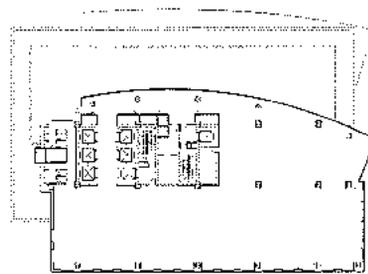
사전적 의미로 공간은 '직접적인 경험에 의한 상식적인 개념으로 상하 · 전후 · 좌우 3방향으로 퍼져 있는 빈 곳'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의 개념은 각 학문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

특히 건축에서의 공간 개념은 독특하다. 건축에서 공간은 매우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이자 구성 요소이다. 결국 공간적인 구성이 건축의 결과이기 때문에 공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공간의 질을 가지고 건축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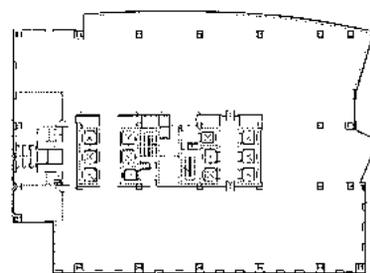
20세기에 공간이 정치적, 철학적 의지를 반영한 개념은 public space(공중공간)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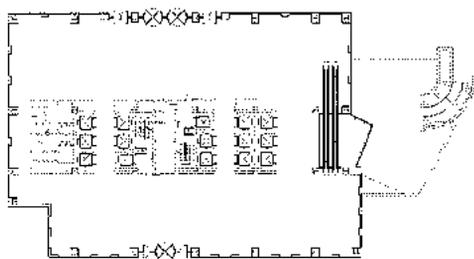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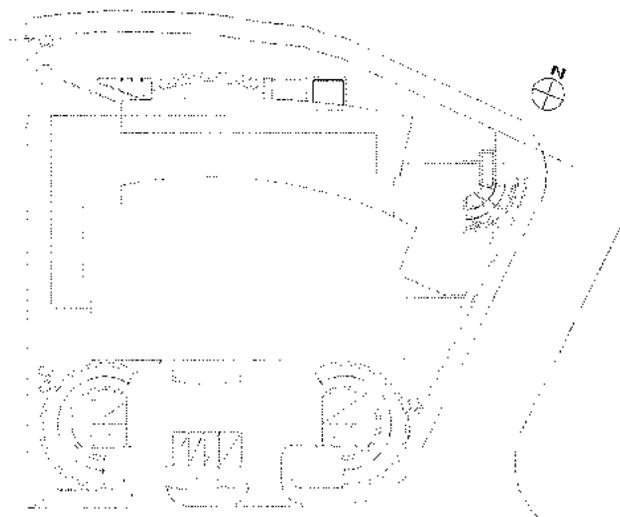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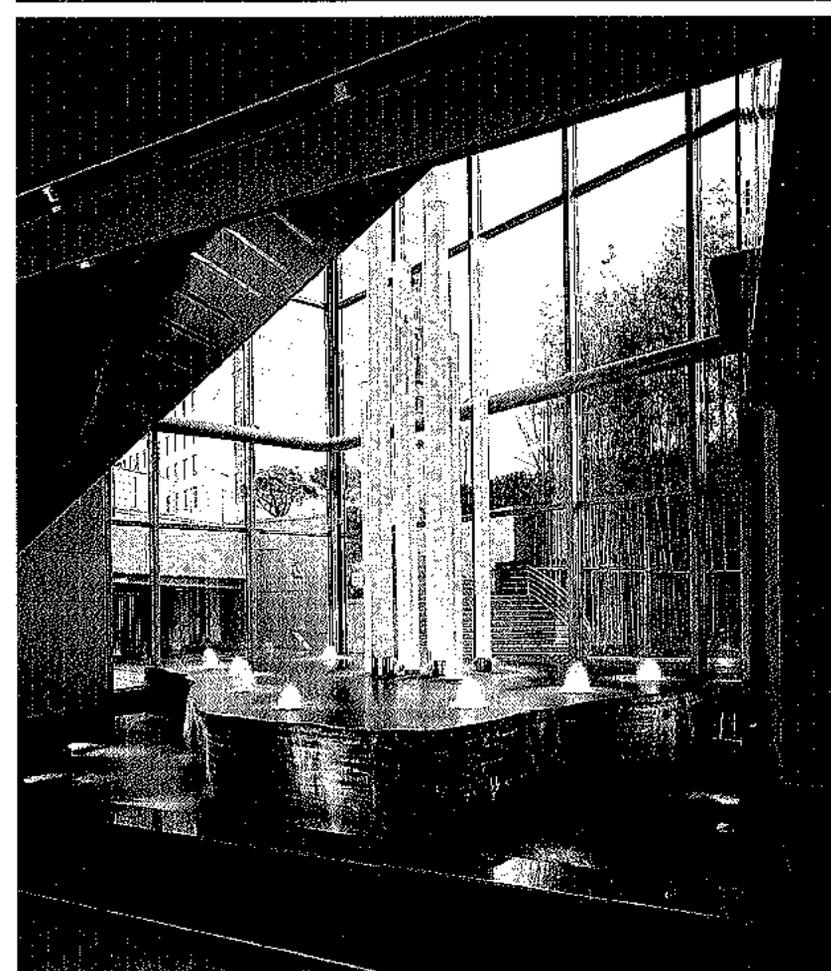
24층 평면도



기준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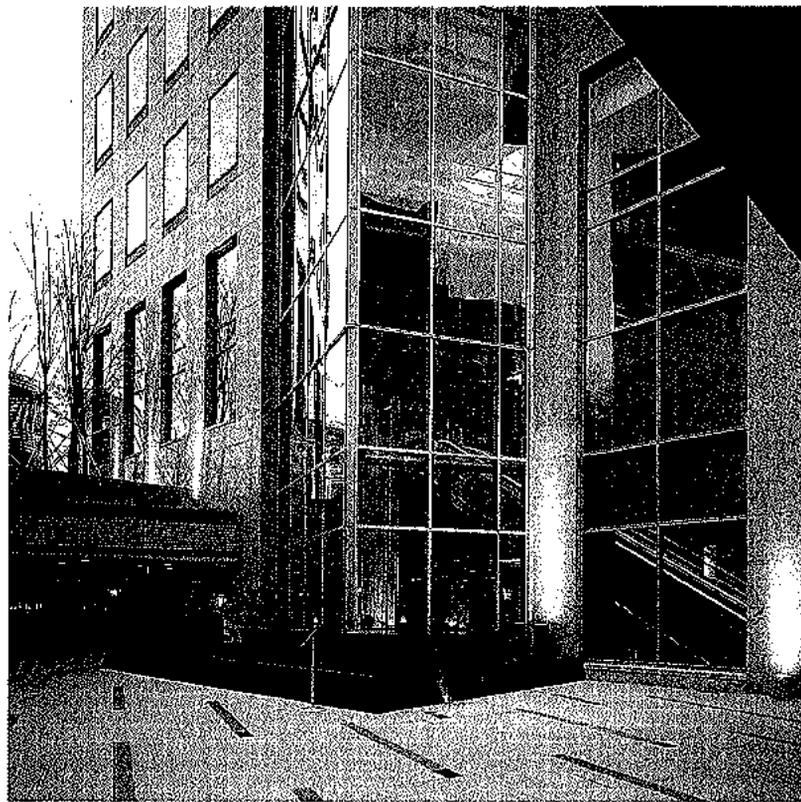
01 5 10 20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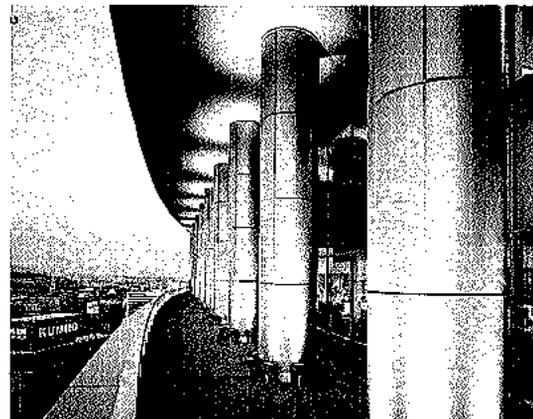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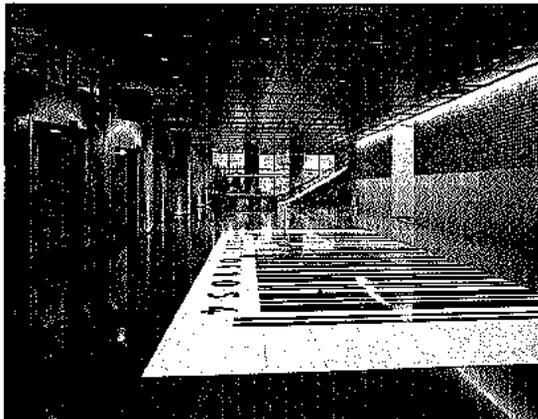
유명사처럼 쓰이는 개념이 되어버렸지만 이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철학적 어원에 충실하자면 합리적·독립적·자유적 존재들의 공간이 public space다. 이런 공간은 어디에 있을까? 몇 가지 예를 들면, 명동성당 앞, 서울역 광장, 시청 앞 등이 생각난다. 그러나 이들 공간은 합리적·독립적·자유적 존재들의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원래는 다른 기능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들이다. 또한 요즘은 가상공간에 대한 논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가상공간'이라는 단어에 '공간'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 건축가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다. 앞에서 밝힌 사전적 의미로도 공간 - 직접적인 경험에 의한 상식적인 개념으로 상하·전후·좌우 3방향으로 퍼져 있는 빈 곳'은 물리적인 공간과 가상공간 모두를 포용하는 개념이다. 직접적인 경험에 의한 상식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피스 건물에서의 public space의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일까? 우선 오피스 건물은 기업이 소유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은 이익 창출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기업이 저마다 자유롭고 독자적인 의견을 가지는 public(공중)을 위한 공간을 무료로 제공할 아무런 의무도 책임도 필요도 없다. 물론 이에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기업은 이윤을 내는데 집중을 하는 것이고 정부가 공중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건물의 로비는 public space가 아니다. 기업 소유의 공간(corporate space)이다. 지하 상가도 public space가 아니다. 기업 소유의 상업공간이다. 기업 전시관이나 건물 내에 있는 각종 방문자를 위한 공간 또한 기업 소유의 공간이다. 오피스 건물 어디에도 엄밀하게 말하면 public space는 없다. 모두 기업공간(corporate space)이다.

오피스 건물의 소위 'public space'는 근본적으로 public(공중)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기업 이윤을 내기 위한 공간이다. 그리고 이 공간은 이러한 이윤추구의 목적에 따라 대중의 새로운 욕구에 따라 mass communication space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하기를 원하는 공간이다. 왜냐하면 기업이 소유하고 있



는 mass(대중)의 공간에서 public(공중)은 소수의 엘리트가 운영하는 기업과 다수의 mass(대중)로 분열되는데, 소수의 엘리트가 운영하는 기업은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획일화되고 무력해진 '모래와 같은 대중' 위에 군림하며 여론의 조작을 통해 사업 확장을 더욱 강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건물 안에서의 public space는 새로운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단지 대중이 모이기 위해 공짜로 주어지는 빈 공간으로는 시대의 필요충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된 것이다.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매체의 발달(new mass communication)을 고려함과 동시에 개별적인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공간(public space)이면서 공간을 소유하고 이용하는 양 측면의 이윤 체계를 고려한 공간(corporate space)이 이미 필요하며, 또 그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 또한, 이 새로운 시대 사회적 욕구에 부합되는 건축이 그 예술적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서는 건축가 일반의 깨달음이 시급할 것이며, 이러한 복합적 공간이 고려된 물리적 공간의 예술적 표현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건축가에게 커다란 도전이 되어 주리라 믿는다. (글 / 부대진) ㉮



동림동 동사무소

Dongnim-dong Office

정태호 / (주)건축사사무소 영일&필
Designed by Chung Tae-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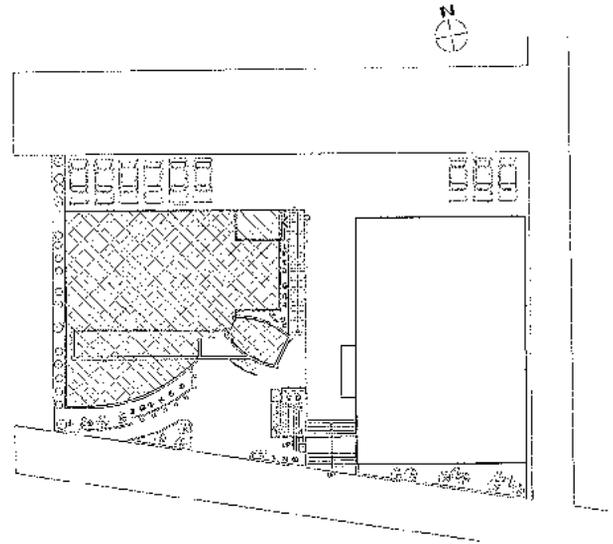
건축개요

| | |
|------|------------------------------|
|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1156-3 |
|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
| 대지면적 | 1,415.2㎡ |
| 건축면적 | 기존 발동(404.4㎡) + 자치센터(336.4㎡) |
| 연면적 | 기존 발동(792.0㎡) + 자치센터(654.6㎡) |
| 건폐율 | 52.34% |
| 용적률 | 102.2% |
| 규모 | 지상 2층 |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라멘조 |
| 외부마감 | 알미늄 복합패널 + 인도사암 + 드라이버트 |
| 구조 | 도화구조기술사 광주사무소 |
| 전기 | (주)선강 엔지니어링 |
| 기계 | (주)환경설비 |
| 시공 | 혁신산업개발(주) |
| 설계담당 | 이귀섭, 박주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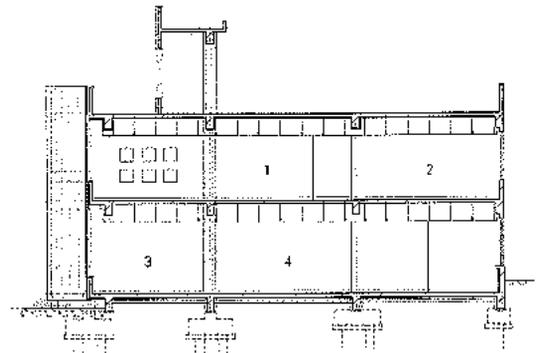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고 X세대 N세대는 말할 것이다. 현시대에 있어서는 강산은 마음만 먹으면 변하고 자고 나면 집 한채 정도는 온데 간데 없이 사라져 버릴 수 있다. 지금껏 관공서 건물은 관료적 의식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 시대의 변화와는 무관한 듯 보였다.

하지만 관공서의 목적은 변하고 있다.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의식의 변화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의 외형은 관공서 이니까 하는 틀속에서 계획이 이루어져 왔고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의식의 변화와 함께 그 의식을 담을 수 있는 공간도 변하여야 한다. 형태, 색채, 모든 것이 변하여야 한다. 동사무소의 기능은 주민자치센터라는 용어로 변환되고 있으며, 주민등록초본이나 발부하는 업무는 부분적 기능이며, 주민을 위한 공간 배려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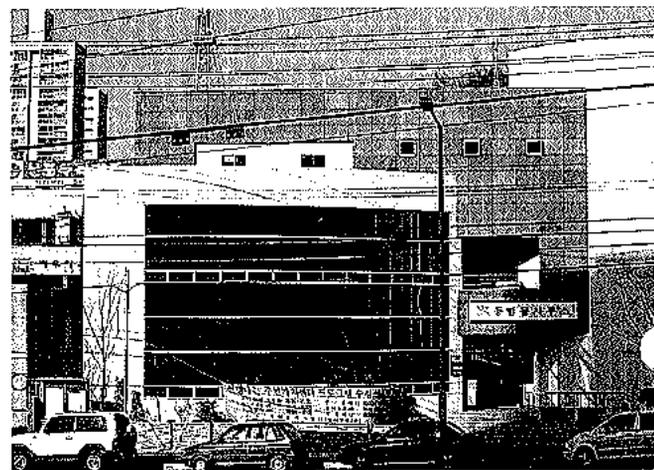
지역주민의 장으로서 지역주민의 중심권으로서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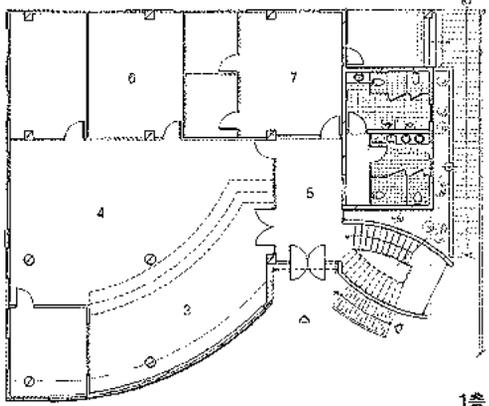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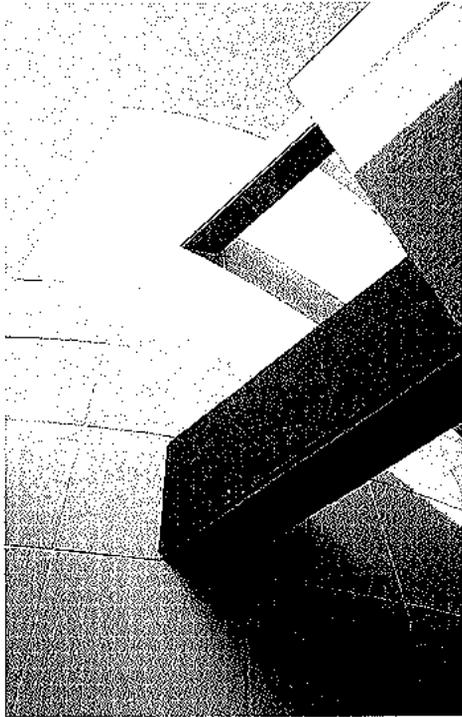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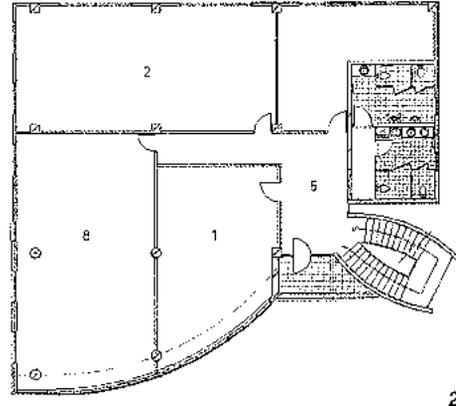
단면도



1. 회의실
2. 독서실
3. 민원대기실
4. 사무실
5. 오피스
6. 민원상담실
7. 예비군주대본부
8. 보육실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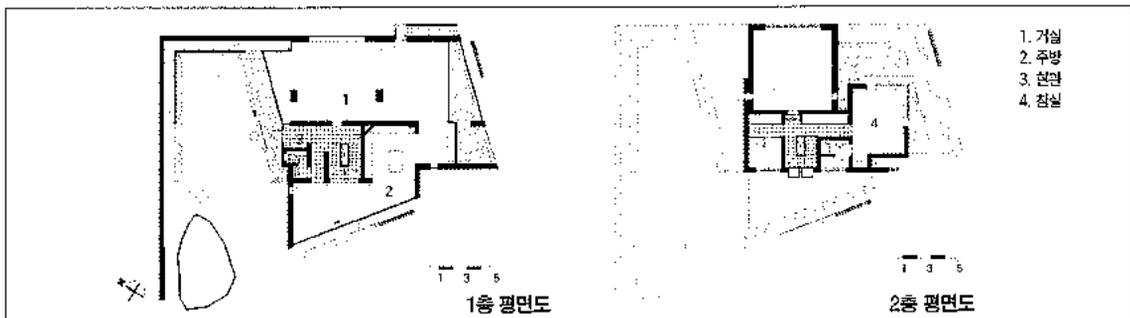
2층 평면도



침성제

Cheom Seong Jae

민규암 / 토마건축사사무소
by Min Kyu-Am



막 공사마무리를 지은 이 집에서 며칠 전 몇몇 친구들을 불러모아서 조촐한 오프닝 하우스 행사를 가질 수 있었다.

늦은 오후 속속 도착한 그들은 친구가 설계한 이 집의 이곳저곳을 둘러보기 시작했고, 궁금한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한 친구는 이 집 모양이 왜 여객선 같은 느낌이 나는지 모르겠다며 가우뚱거렸고, 다른 친구는 그것은 아마도 측면의 등그런 네개의 창이 소실 해서 이만리에 나오는 잠수함의 그것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 건물 측면의 외부 구조물이 마치 노를 곧바로 세운 바이킹의 전선과 같은 모양을 띠기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설계자의 머리 속을 온통 복잡하게 휘저으며 난감한 질문들을 쏟아 붙던 그들이 갑자기 쥐죽은듯 조용해진 것은 그들을 데리고 이 집의 중심공간인 거실로 안내했을 때였다.

먼저 그들은 이 집의 거실공간의 수직적인 높이에 압도된 듯 보였다. 사실 이 집은 일반 주택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9m높이의 공간적 깊이를 갖는 거실을 갖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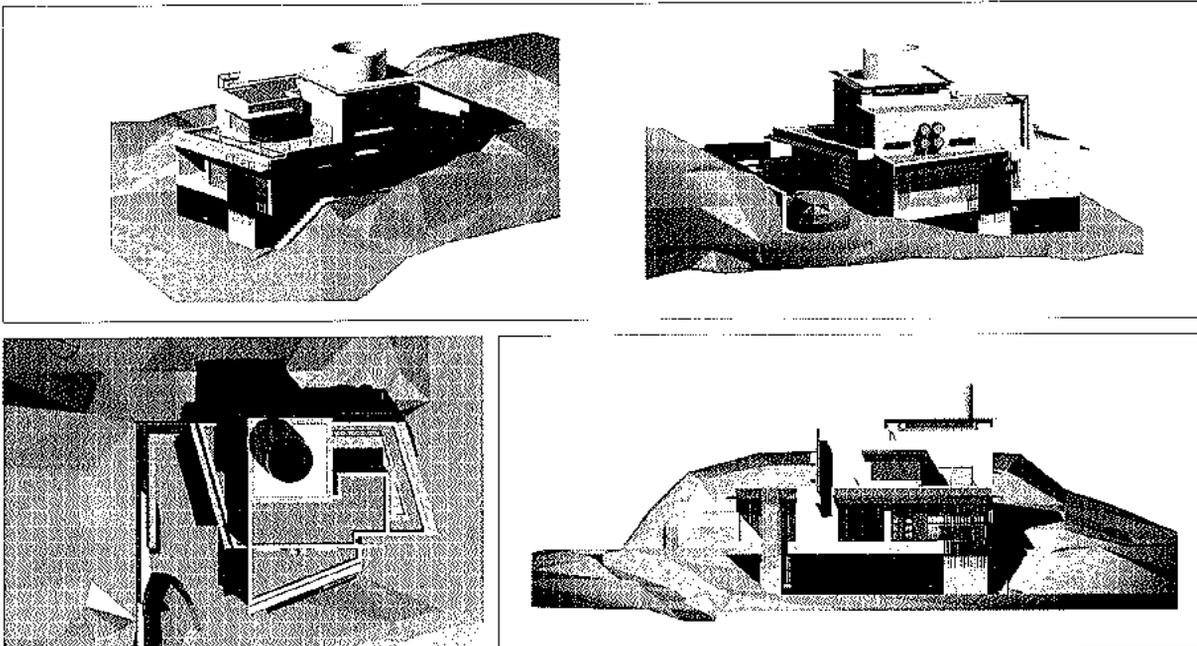
있다. 그것은 거실 바닥에서 그 상부의 천장을 통해서 보았을 때 그 위에 또 다시 존재하는 둥근 구멍을 갖는 구조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써 그 구멍이 다시 하늘을 향해 그저 열려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주택 거실의 천장 높이는 9m를 넘어서 무한대의 높이 바로 그것일 것이다.

그러나 무한대의 깊이를 갖는 거실에 대해 놀라던 친구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계속되어 오던 질문공세를 재개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하늘에 구름이 다 보이네! 밤에는 별도 보이냐?” 그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고, 내가 왜 이런 하늘이 보이는 집을 설계했는지 모두들 궁금해 하지 않았다.

그날 그들의 지속적인 질문공세에 지쳐있던 나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불현듯 났었노라고 적당히 얼버무리고 말았다.

처음으로 이 집을 의뢰 받고 건축주 내외분과 함께 이 집이 들어설 자리를 방문했을 때 두 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그것은 대지 주변의 자연이 너무도 훌륭하다는 것이었다. 대지 바로 옆에는 아름다운 시



넷들이 흐르고 있었고, 그 주위에는 멋진 거대한 검은 바위들과 죽어 수백년은 됨직한 소나무가 있었다.

반면 놀랍고도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필자가 사용할 수 있는 땅의 규모가 단지 100여평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었다. 대지를 보고 오자마자 계획에 들어간 필자는 주변의 여러 자연 요소들을 온통 건물과 연관시키기 시작했다.

거실에서는 바로 앞의 소나무를 보게 만들었고, 그 옆의 식당과 부엌에서는 시냇물 소리를 들으면서 검은 바위들을 감상할 수 있게 배려하였다.

그러나 설계가 점점 무르익어 갈수록 무엇인가 허전하다는 느낌이 더욱 더 가중되고만 있었다. 그것은 주변환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왜소한 대지 규모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고 있었고, 머리 속은 항상 무엇인가 좀 더 이 집의 한계성을 극복해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없을까 하는 생각들로 가득차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이 집에 대한 이런저런 궁리로 잠자리에 누워서도 쉽게 잠을 청하지 못하고 뒤척이던 필자에게 아주 오래 전 어린 시절의 작은 꿈 하나가 불현듯 떠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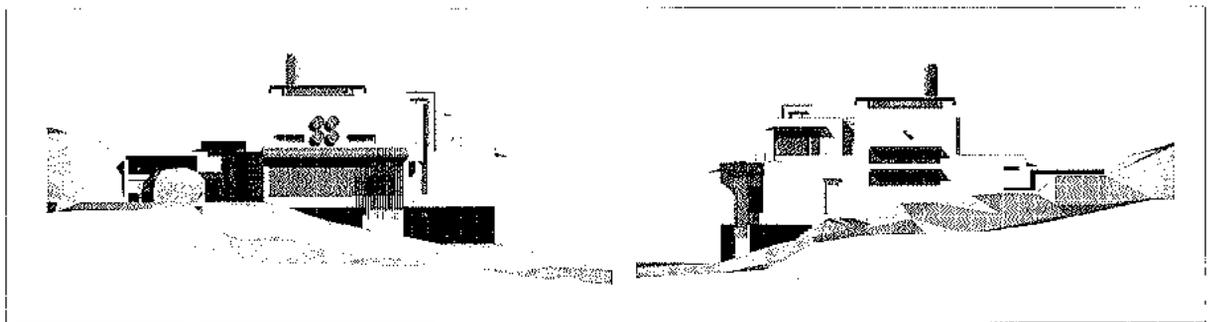
‘자기 전에 누워서 내가 잠들기 전까지 그 저 별들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최초로 보는 것이 맑고 푸른 하늘이라면 또 얼마나 기쁠까?’

어린 시절의 소망을 막상 이 집에서 실현시켜 보기로 마음먹었을 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먼저 거실상부의 모든 부분을 유리로 된 투명한 천창으로 전부 개방한다면 여름 내내 과도한 일사량으로 이 집은 찜통이 되고 말 지경이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 3m높이의 깊은 원통형 구조물을 상부에 설치했고, 이로써 과도한 일사가 실내에 침입하지 못하게 했다.

친구들에 의해서 물탱크로 오인된 이 원통형 구조물을 통해서 실내에 적절한 일사량이 제한적으로만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가능했고,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태양의 고도에 따라서 실내에는 하루종일 태양광선이 만드는 한편의 드라마가 상영되기 시작했다.

한편 원통형 구조물의 하부에는 실질적으로 외부의 비바람에서 이 집을 보호해줄 유리면으로 된 v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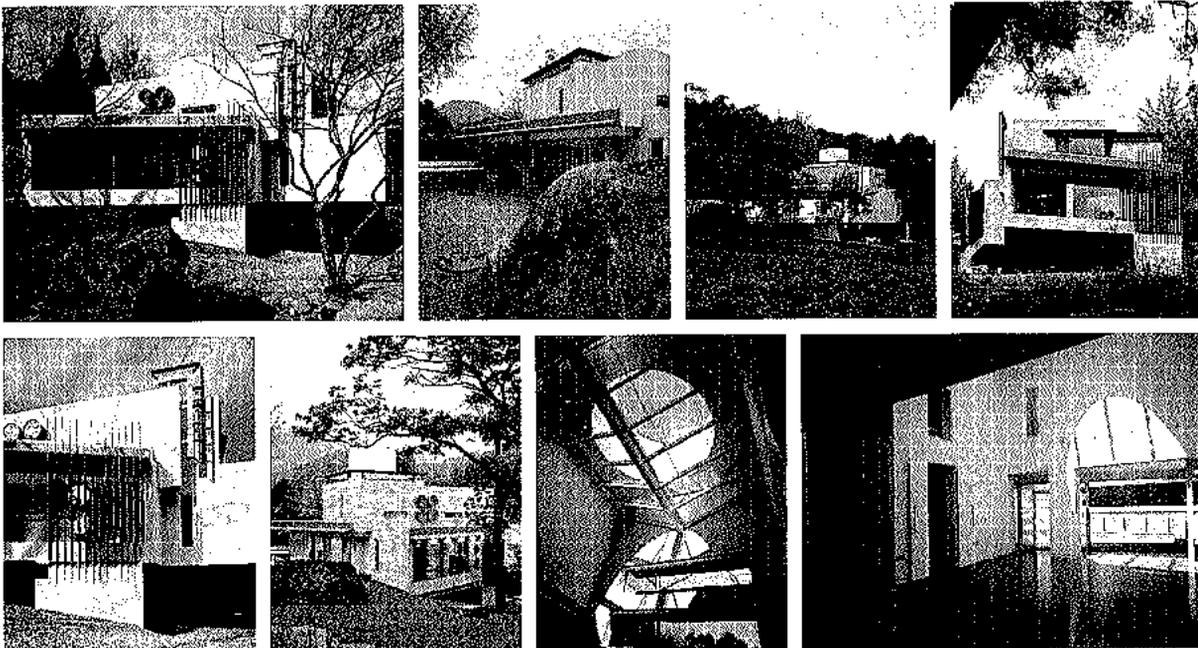
형의 천창이 설치되어졌는데, 이 형태의 구조물은 빗물을 자연스럽게 모아서 한편으로 배출시키는데 용이하도록 고안되어진 것이었고, 또한 그 가운데 놓인 대형 철골보를 이용해서 쉽게 먼지에 오염되는 천창의 유리면을 직접 청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하부의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3중의 라미네이티드 복층유리를 사용해서 파손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로써 보통의 천창이 갖는 과도한 일사량조절, 적절한 우수의 배출 및 오염에 대한 유지보수성 그리고 안전성의 문제 등을 모두 해결해 낼 수 있었다.

친구들이 너무 늦지 않겠다며 일찍 서울로 차를 몰고 떠나버린 그날 늦은 밤 나는 처음으로 집안의 모든 전등스위치를 내리고 나서 그 넓고 넓은 거실마루바닥에 홀로 누워볼 수 있었다.

사방은 모두 철쭉같이 째깍했다. 그리고 등근 망원경 같은 상부의 원통구조물과 V자형 천창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잿빛의 구름들이 어렴풋이 흘러가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서 몇 개의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다. ㄷ

| | |
|--------|---------------------------------------|
| 대지위치 | 경기도 가평군 허면 하판리 |
| 주요용도 | 전원주택 |
| 대지면적 | 405.34㎡ |
| 건축면적 | 141.51㎡ |
| 연면적 | 196.00㎡ |
| 건폐율 | 35.78% |
| 용적률 | 48.35% |
|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
| 구조방식 | 철근콘크리트 구조 |
| 외부 마감 | 드라이비트 뿔철+마찬석 물갈기 |
| 내부 마감 | 바닥 - 온돌마루판, 대리석 벽, 천장 - 석고보드위 백색락카 |
| 주요설비방식 | 전기온돌 시스템 |
| 설계담당 | 윤정현, 안경섭 |
| 감리담당 | 토마건축사무소 |
| 시공자 | 화인의장건설 |
| 건축주 | 김우희 |
| 설계기간 | 1998. 11 ~ 1999. 9 |
| 공사기간 | 1999. 10 ~ 2000. 4 |
| 구조 | 조정민 |



한국 주택의 공간구조 변천에 대하여

On the Diachronic Transition of Korean Houses

공간구문론을 이용한 평면분석

노형래 / (주)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

by Roh Heoung-Rae

우리 나라 주거양식의 근대화는 단순히 전통한옥에서 현대의 주택, 아파트로의 교체가 아니라 일련의 연속적인 변화과정 속에서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문화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택이란 삶을 담은 그릇'이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주택이란 거주자의 가치관을 포함한 주생활양식과의 대응 속에서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주거양식의 변화에 관한 연구 또한 이러한 삶과 문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바람직 할 것이다.

이상의 배경 하에 과거 전통주택에서부터 근대화 이후의 여러 주택유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을 포함한 우리 나라 주택이 가지는 공간구조의 변천을 시대적으로 조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통사회의 양반주택, 도시형한옥, 표준주택, 일반단독주택, 작가주택, 아파트에 이르는 다양한 주택유형을 포함하여 총 104개의 주택평면을 대상으로 공간구조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다양한 주택유형들이 보여주는 공간구조와 그 통시적 변화를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방법론을 이용하여 관찰하고자 공간구문론의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주택형식에 따른 기능적 형상학을 뛰어넘는 사회학적 형태학(social morphology)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주거의 변천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개개의 주택형식에 대한 고려보다는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설명해주는 데 용이한 대상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변화의 양상과 그러한 변화에 내재한 사회적 동인과 배경을 파악하고 이해하고자 하였다. <필자주>

공간구조의 해석 : 공간구문론(Space Syntax Method)

이 글은 주택의 '위상학적(topological) 공간구조'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수학적 모델로서 개별공간의 개체적 특성보다는 전체로서의 경험과 공간 상호간의 위상학적(topological) 관계성에 의해서 공간구조를 해석할 수 있는 공간구문론(Space Syntax Method)¹⁾을 이용하였다.

Hiller와 관련 학자들은 공간구문론을 이용하여 19세기 후반에 지어진 영국주택에서 당시의 주생활양식을 고찰하고 이 주택이 1960년대에 개축된 후에 추출해 낼 수 있는 1960년대의 생활양식을 추측하였다. 그리고 공간의 구조적 관계를 해석하여, 각 실의 명칭이 표기되지 않은 프랑스 지방 농가들의 평면만으로, 각 실의 기능 및 주생활 양식을 추출해 내기도 하였다.²⁾ 이와 같은 연구들은 공간구조의 특성으로 사용자의 특정 행위의 발생과

그 예측이 가능할 수 있음을 나타내며 기존의 평면의 기능이나 기하학적 형태에 의한 공간 분석과 공간들의 관계성에 의한 공간구분분석의 차이점을 나타낸다.

다음 그림은 평면 형태와 위상학적 관계성만으로 구성된 공간구조의 차이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와 같이 평면의 구성 형태는 a)와 b), 그리고 c)와 d)가 유사하지만 공간들의 관계를 도식화한 위상학적 공간구조는 a)와 c)가 동형적인 구성을 가지며, b)와 c)가 동형적인 관계를 갖는다. 이는 공간구분론에서 사용되는 공간구조가 기하학적 형태와 분할을 나타내는 평면과 다른 차이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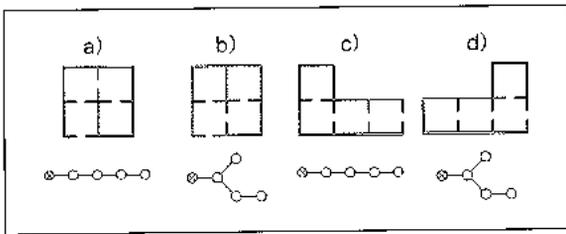


그림1. 평면 형태와 위상학적 공간 구조

분석의 방법은 볼록공간도(convex map)와 축공간도(axial map)에 의한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될 볼록공간도(convex map)는 '어느 곳으로도 직접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그 안에서 모든 곳을 볼 수 있는 가장 크고 볼록한 공간으로 구성되며 공간의 경계를 횡단하지 않는 선에 의해 이루어진 공간을 표현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엄격한 적용의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볼록공간도 분석방법은 주로 건물의 내부에 주로 사용되고 축공간 분석은 외부공간, 특히 도시공간의 분석에 주로 사용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볼록공간도 분석방법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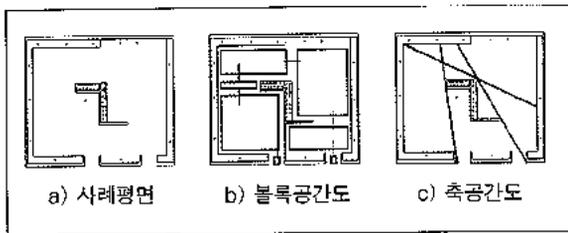


그림2. 단위공간의 구성: 볼록공간과 축공간의 분할

일단 볼록공간도나 축공간도가 그려지고 나

1) Hillier, B. & Hanson, J. The Social Logic of Space, Cambridge Univ. Press, 1934.
2) Hillier, Hanson & Graham H. Ideas are in Things: An application of the space syntax method to discovering house genotypes. Environment and Planning B, 1987

면 각각의 단위공간이 가지는 관계성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계산되어지며, 이를 통해 공간구분변수(syntax variables)가 측정된다. 다음 표1은 각 변수의 정의를 정리한 것이다.

표1. 공간구분론을 이용한 공간구조 분석요인

| | |
|-------|--|
| 분석변수 | 공간구분론적 특성과 이용자의 관계 |
| 연결도 | ·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공간의 수 · 지엽적 변수 |
| 통제도 | · 연결된 주변 공간들과 그 주변 공간들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들까지를 포함해서 표현하는 것으로 연결도의 확장된 변수 · 지엽적 변수 |
| 위상중심도 | · 공간 전체의 공간들과의 위상학적 위치를 나타내는 변수 · 전체적 변수 |
| 위상인식도 | · 연결도와 위상중심도와의 상관변수로서 구해지며 공간의 인식의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 |

조선시대 양반주택의 공간구조와 사회성

조선시대 양반주택에 관한 기존에 연구들을 보면, 형태에 의한 분류기준을 가지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고찰할 수 있는데, 이는 평면의 형상(shape)에 기초하여 주택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양반주택의 여러 계층 사용자들 사이의 권력구조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통시적 변화에 대해 한계를 가진다. 또한 사회적 계층에 따른 분류도 단순히 양반과 상민의 주택을 구분하였을 뿐, 계층 간의 공간의 사용이나 주택내부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 깊은 분석이 없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양반주택의 전체 공간에 대하여 공간구조(spatial structure)의 위상학적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고, 개개의 공간의 사용자들의 사회적 권력구조와 맺고 있는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간구조의 변화의 원인으로 지역성을 배제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와 공간구조의 변화 관계가 명확하게 예상되는 씨족마을로서 양동마을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양동마을 주택(11개 주택 선정)의 경우 시대적으로 조선 초기에서 후기까지 주택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비교적 주택들의 훼손이 적고, 도면이 정확하며, 역사적 사료가 풍부한 것에 그 선정 이유를 들 수 있다.

양동마을의 양반주택은 ㅁ자형 평면을 가지고 있으며, ㅁ자형 건물인 경우 ㅁ자를 이루는 각 채의 형태가 평면형 분류의 주요한 수단이 됨을 알 수 있다. ㅁ자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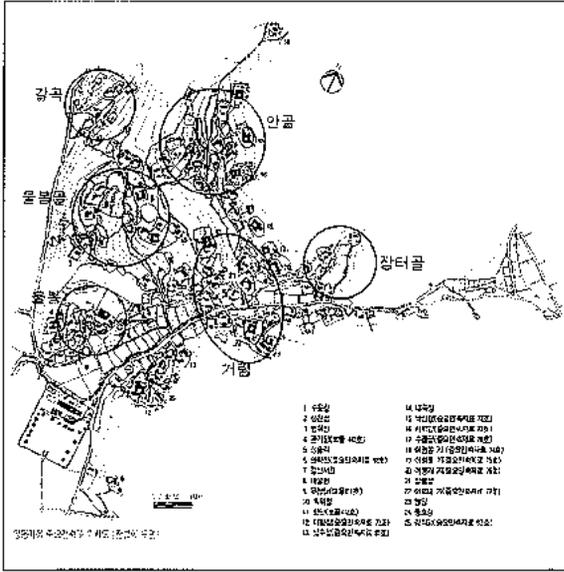


그림3. 양동마을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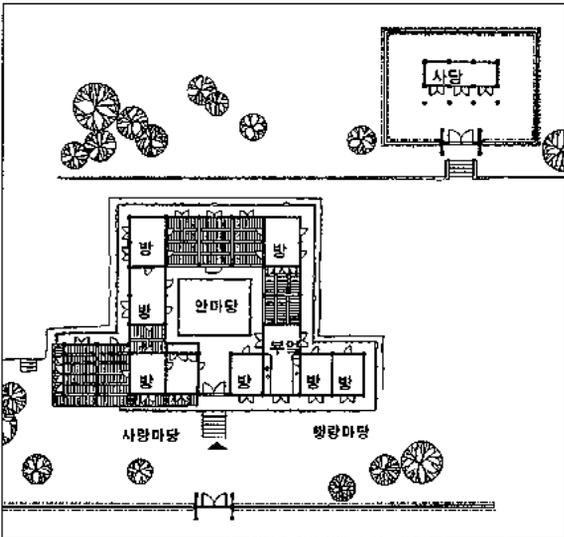


그림4. 관가정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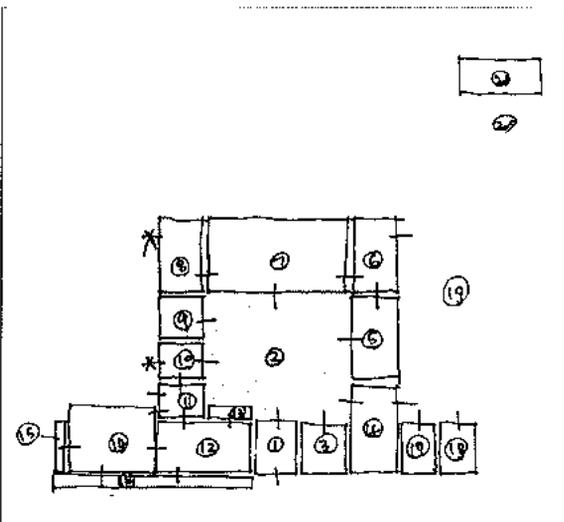


그림5. 관가정 Convex Map

외관을 갖는 주택들은 서백당을 제외하면, 완전 □자형의 주거가 아닌 'ㄷ+—자형'과 'ㄱ자형 + —자형'의 평면형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전체 전통주택의 공간구분론 분석결과는 평균 연결도는 3.53이고 위상중심도는 1.76으로 나타났다(표2).

표2. 전통주택의 공간구분론적 특징

| 실명 | 연결도 | 통제도 | 위상중심도 |
|------|-------|------|-------|
| 사랑마당 | 7.18 | 2.51 | 2.63 |
| 안마당 | 11.09 | 4.12 | 3.43 |
| 행랑마당 | 5.64 | 1.97 | 1.95 |
| 사랑방 | 3.00 | 1.50 | 1.04 |
| 안방 | 5.00 | 1.82 | 1.16 |
| 건넌방 | 4.00 | 1.20 | 1.54 |
| 행랑방 | 4.00 | 0.90 | 1.37 |
| 사랑대청 | 4.00 | 1.17 | 1.12 |
| 안대청 | 6.00 | 1.32 | 1.35 |
| 부엌 | 5.00 | 1.15 | 1.46 |

먼저, 연결도의 경우를 보면 마당의 경우는 주인의 공간이 하인의 공간이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방에서는 주인들의 공간이나 하인들의 공간이 비슷한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도 역시 마당에서는 안마당, 사랑마당, 행랑마당의 순으로 주인의 공간이 하인의 공간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방의 경우 역시 주인의 공간이 하인의 공간보다 높은 공간의 통제도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위상중심도를 살펴보면, 마당과 대청에서는 안마당과 사랑마당이 외부의 행랑마당보다 높은 위상중심도를 가진다. 그러나 방의 경우는 건넌방의 위상중심도가 높기는 하지만, 안방과 사랑방의 경우는 오히려 하인의 공간보다 낮다.

이상을 요약하면,

첫째, 공간구조에서 우선 시 되는 분류의 체계는 계급(반상)의 분류 체계이며, 형태적인 분류에서 보이던 남녀의 구분의 체계보다 공간구조체계는 계급의 분류의 체계가 우선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시각적으로 개방된 마당은 양반공간이 통제도도 높고 위상중심도도 높지만, 시각적으로 폐쇄된 방의 경우 양반의 공간이 통제도는 높지만, 위상중심도는 낮다. 이를 분석하면 통제도는 그 변수가 직접적 변수(local variable)로 공간과 공간이 직접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직접 연결된 공간은 시각적으로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 다음으로 위상중심도는 전체적인 변수(global variable)로 전체의 부분공간에 이르기 위한 단계에 의해 구해지는 수치이므로 동선체계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위의 분

석의 결과 마당과 같이 시각적으로 개방된 공간에서 양반은 동선상 쉽게 다다르는 공간에 위치하고, 시각적으로 폐쇄된 방의 경우는 다른 공간에서 이르기가 어려운 공간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전통주택은 시각적으로 개방되지만, 이면의 보이지 않는 동선의 구조에서 깊게 지켜야 할 공간을 지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또한 내부인과 외부인의 동선체계 분리와의 관계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주택내부에서는 실질적 공간 즉, 양반 여성 공간이 보다 주체적인 역할을 한다. 양반여자 공간은, 밖으로부터는 제일 깊은 단계의 제일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 접하고 있으나, 일단 그 지점에 이르면 그 곳에서 다른 구성공간으로의 연결성은 상당히 높게 된다. 그리고, 안마당과 안대청이 사랑마당과 사랑대청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것은, 밖에서 보여지는 상징적 공간과 실질적 공간구성의 한 단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즉, 도입부에서는 남성의 공간이 전면에 나타내지만, 가장 중심적 위치에서는 여성공간이 접하고 있어, 가사노동의 주체로써 대가족 사회 내에서 그 역할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한국 현대주거의 공간구조

현대주거의 공간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대상은 근대화의 시점인 1960년대를 시간적 기준으로 근대 이전을 대표하는 도시형한옥(26개 평면)을 기점으로, 근대 이후를 대표하는 주거유형으로 표준주택(6개), 일반단독주택(16개), 작가주택(6개) 그리고 공동주거인 아파트(39) 총 93개의 평면분석을 통하여 공간구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택 유형별 또는 각 공간별로 위상중심도 변수, 연결도 변수, 통제도 변수에 있어 다소 다양한 변수와 변화의 폭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주택 유형별 또는 그 속에 포함된 각 주택의 공간구조 특성이 주택의 건설시기, 사회적배경 및 맥락에 따라 다양한 공간구조로 반영된 것으로 각 주택이 속한 유형별 또는 시기별로 공간구조의 특성이 상이함을 갖고 나타나거나 또는 유사성을 지니고 지속되어 나타나고 있다(표4~8참조).

유형에 따른 공간구조의 다양성과 유사성에 대한 일 예로, 도시형한옥의 유형에 속한 주택들의 분석 결과를 보면, 각 주택 및 실에 따라 부분적으로 다소 다양한 공간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인 공간구조는 전통주택의 공간구조에서 볼 수 있는 마당 중심의 공간구조를 갖는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표3. 도시형 한옥 주요 공간구조 변수

| 실명 | 연결도 | 통제도 | 위상중심도 |
|-----|------|------|-------|
| 마당 | 8.27 | 5.30 | 4.24 |
| 대청 | 2.96 | 1.26 | 1.53 |
| 대문간 | 3.00 | 1.84 | 1.61 |
| 부엌 | 2.12 | 0.76 | 1.35 |
| 안방 | 2.19 | 0.87 | 0.99 |
| 건넌방 | 1.73 | 0.66 | 1.01 |
| 부엌방 | 1.59 | 0.65 | 0.99 |
| 사랑방 | 1.60 | 0.57 | 1.12 |
| 문간방 | 1.16 | 0.33 | 1.05 |
| 평균 | 2.74 | 1.36 | 1.54 |

표4. 표준주택 주요 공간구조 변수

| 실명 | 연결도 | 통제도 | 위상중심도 |
|-----|------|------|-------|
| 안방 | 1.17 | 0.21 | 1.02 |
| 부엌 | 2.67 | 1.08 | 1.67 |
| 화장실 | 1.17 | 0.25 | 0.97 |
| 마루 | 6.17 | 4.74 | 3.19 |
| 마당 | 3.00 | 1.79 | 1.20 |
| 평균 | 2.84 | 1.61 | 1.61 |

표5. 일반주택 주요 공간구조 변수

| 실명 | 연결도 | 통제도 | 위상중심도 |
|-----|------|------|-------|
| 안방 | 1.19 | 0.28 | 0.98 |
| 부엌 | 1.81 | 0.69 | 1.23 |
| 화장실 | 1.00 | 0.17 | 0.93 |
| 마루 | 5.94 | 4.70 | 2.46 |
| 마당 | 3.31 | 2.40 | 1.72 |
| 평균 | 2.65 | 1.65 | 1.46 |

표6. 작가주택 주요 공간구조 변수

| 실명 | 연결도 | 통제도 | 위상중심도 |
|-----|------|------|-------|
| 앞마당 | 4.40 | 1.65 | 1.09 |
| 거실 | 3.33 | 1.26 | 1.19 |
| 주방 | 2.90 | 1.05 | 1.01 |
| 안방 | 2.00 | 0.84 | 0.84 |
| 자녀방 | 1.00 | 0.20 | 0.71 |
| 살림방 | 2.00 | 0.42 | 0.83 |
| 사랑방 | 1.00 | 0.35 | 0.68 |
| 평균 | 2.39 | 0.82 | 0.91 |

표7. 아파트 주요 공간구조 변수

| 실명 | 연결도 | 통제도 | 위상중심도 |
|-----|------|------|-------|
| 현관 | 1.00 | 0.22 | 0.89 |
| 거실 | 5.11 | 3.55 | 2.44 |
| 안방 | 1.39 | 0.62 | 0.99 |
| 부엌 | 3.60 | 2.11 | 1.81 |
| 화장실 | 1.08 | 0.24 | 0.93 |
| 평균 | 2.44 | 1.35 | 1.41 |

또한 표준주택과 작가주택의 유형에 속한 주택들을 보면, 앞선 도시형한옥과 같이 각 주택 및 실에 있어서는 다소 다양한 공간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인 공간구조는 작가주택이 표준주택에 비해 깊은 공간구조를 갖고 있으나, 양 주택 모두 도시형한옥과는 달리 마루 중심의 공간구조를 갖는 유사성을 볼 수 있어 주택의 유형 및 등장 시기에 따라 공간구조가 유사하게 지속되거나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시대별 공간구조의 다양성과 유사성은 일반 단독주택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각 주택 및 실에 따라 부분적으로 다소 다양한 공간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1970년대 초반에 건설된 주택에서 볼 수 있는 얇은(shallow) 공간구조에서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점차 주택의 공간구조가 깊어(deep)져 전체의 공간구조는 표준주택과 같이 마루를 중심으로 통합된 구조를 갖는 하나의 완성된 주택유형의 공간구조를 구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유형별, 시기별 공간구조의 다양성과 유사성은 1970년대에서 시작해 1990년대 이르는 아파트의 분석에서도 하나의 일관된 특징을 갖고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앞선 단독주택의 타 유형과 같이 거실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된 공간구조를 갖는 것과 사회적 배경 및 맥락의 변화 하에 과거 여성의 공간으로 여겨졌던 부엌의 공간구조가 점차 알아져 주거의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공간구조의 반영과 같은 경향에서 주택 유형별 또는 시기별 공간구조의 유사성과 상이함을 찾아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일반적 특성에서 고찰한 주택의 공간구조 특성이 주택의 유형별 또는 주택의 등장 시기별로 다양성과 유사성 또는 상이함 갖고 나타나고 있음을 광범위하게 서술하였다.

이것은 분석대상 주택유형들의 비교분석을 통해 공간구조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통시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근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난 사회상의 변화 및 주거 공간의 시대적 변천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다음 장에서는 주택의 유형·형태학적 측면의 분석을 뛰어넘는 주택 공간구조의 내면에 내재된 사회학적 측면의 분석을 목적으로 주택 공간구성의 특성 및 변천과정을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비교분석

유형별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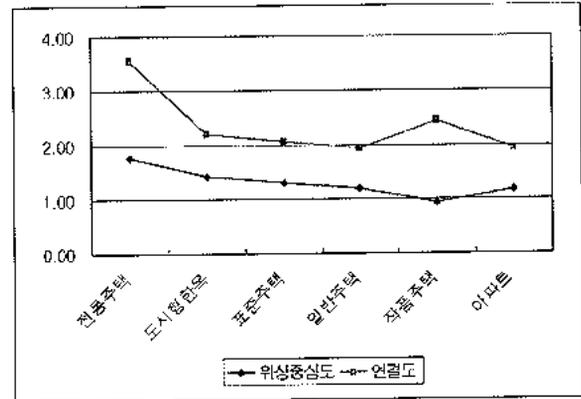


그림 6. 주택 유형별 위상중심도 / 연결도 변수

먼저, 유형별 주택의 전체 변수평균은 양반주택-도시형한옥-표준주택-일반주택-아파트-작가주택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택의 공간구조가 현대로 오면서 점차 깊어지면서 내밀화 되고 있음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각 공간의 변수 분포의 폭에 있어서도 현대로 오면서 그 폭의 변화가 적고 고르게 나타나고 있어, 과거 주요 공간을 중심으로 통합되었던 주택공간이 점차 내밀화되어 분화되고 있음을 분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유형별 주택의 위상학적 중심을 보면, 양반주택과 도시형한옥은 마당-대청(거실), 표준주택, 일반주택, 작가주택은 마루(거실)-마당으로 공간구조의 중심이 마당에서 마루(거실)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위상학적 중심의 변화는 주거의 기능적 생활의 중심이 외부에서 내부로, 즉 주생활의 중심이 변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형상학적(typological)으로 다자의 배치 구조를 갖는 양반주택, 도시형한옥, 작가주택을 보면, 위상중심도 변수평균은 양반주택-도시형한옥-작가주택 순으로 공간이 점차 깊어지고 있으며, 공간구조에 있어서도 양반주택과 도시형한옥은 마당중심의 통합된 구조에서 작가주택은 마당 중심의 분화된 구조로 변하고 있어, 형태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배경 및 맥락의 변화로 인해 주택의 공간구조 즉, 위상학적(topological) 구조는 변하였음을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마당 중심의 공간구조를 갖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과거 행랑마당, 사랑마당, 안마당과 같이 신분과 남녀의 구분을 위해 사용되었던 마당의 존재가 통로마당, 앞마당, 뒷마당 등의 변화된 사용 및 기능

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작가주택의 공간구조는 전통주거의 회귀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밖에 일반단독주택과 아파트의 경우, 앞선 양반주택과 작가주택의 관계와는 달리 형상학적으로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변수평균과 공간구조의 중심을 보면, 위상중심도는 1.19와 1.16, 연결도는 양자 모두 1.93, 그리고 거실 중심의 통합된 구조를 갖는다는 점에서 형태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간구조 즉, 위상학적 구조는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간구조의 위상학적 관계를 통해 일반단독주택에서 새로운 주거 유형인 아파트로의 거부감 없는 정착 과정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위상중심도와 연결도 변수를 통해 분석한 유형별 공간구조의 분석을 종합하면, 과거 양반주택에서 현재의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그 주택유형의 형상학적 (typological) 변화에도 불구하고 위상학적(topological) 공간구조는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하나의 새로운 유형이 등장하면 그것은 형상학적인 면에서는 분명 그 전의 유형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으나, 공간구조(위상중심도, 연결도)는 서로 상치하며(overlap)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우리의 주거는 형태적인 면에서는 단절과 변용, 그리고 새로운 수용의 결과로 논할 수 있지만, 공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부분적인 변화의 수용 과정을 거치면서 지속되어온 공간구조로 결과 지을 수 있다.

공간별 비교분석

먼저, 마당은 위상중심도와 연결도 변수에 있어 전통주택과 도시형한옥, 그리고 60년대의 일반주택을 제외하고 변수의 값이 현격히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전통주택과 도시형한옥 이후의 주택에서는 생활의 중심이 마당에서 거실로, 즉,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하는 것에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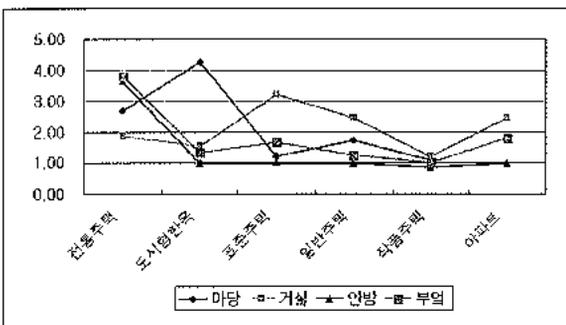


그림7. 공간별 위상중심도 변수

인하여 현대로 오면서 점차 공간이 깊어(deep)져 과거 주거의 중심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그러나 90년대 작가주택의 경우, 변수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과거 마당이 갖던 기능적, 상징적 의미가 현대주택의 공간구조 속에서 되살아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다음으로, 거실은 위상중심도와 연결도 변수에 있어 80년대까지 모든 주택유형에 있어 변수의 값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전통주택과 도시형한옥 이후, 주택 공간구조의 중심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50년대 표준주택을 기점으로 이후의 주택유형에서 점차 공간의 깊이가 얕아(shallow)지며, 주택내 중심공간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의 아파트와 작가주택의 경우, 변수의 값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사회적배경 및 맥락의 변화로 타 공간에 의해 중심공간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마지막으로, 안방은 위상중심도 변수에 있어 전통주택 이후의 주택들에서는 거의 변수의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연결도 변수에 있어서는 전통주택 이후 점차 감소하다 90년대 이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과거 전통주택에서 여성전용의 공간으로서 주택 공간구조내 깊은(deep) 위치에 있던 안방이 가족구성원과 주거내 생활양식 등 주거를 둘러싼 전반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성 공간으로서의 특성이 지속됨을 의미한다. 또한 90년대 이후에는 여성의 공간이 점차 공간구조의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안방과 같이 여성의 공간인 부엌은 위상중심도 변수에 있어 전통주택과 아파트는 변수의 증가를 보이는 반면, 타 유형들은 감소의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결도 변수에 있어서는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유형들에서 감소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안방과 같이 여성의 공간인 부엌이 단독주택의 유형 속에서는 과거 여성의 사적공간으로서 갖는 깊은 공간구조를 취하는 반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사회적 배경, 즉, 가족내 변화된 여성의 역할 및 지위를 반영하여 가족구성원의 공간-공적공간의 의미를 지니며, 보다 실질적으로 주택 공간구조의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것은 주부들이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과 일맥 상통하는 결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상에서 위상중심도와 연결도 변수를 통해 분석한 주요공간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주택유형에 따라 주요공간의 변화 정도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인 변화는 공간구조의 중심 이동으로 인한 마당

과 거실의 변화, 즉, 마당중심의 전통주택에서 거실중심의 현대주택으로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앞서 언급하였듯이 가장 변화를 많이 보인 공간은 공적공간에 속하는 마당과 거실로 나타났으며, 사적공간인 부엌과 안방은 주택유형에 따라 다소의 변화만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아파트에 있어 여성의 공간인 부엌과 안방의 경우인데, 타 주택유형과는 달리 두 공간 모두 공간 구조 내에서 점차 알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공간구조의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공적공간이 알은 구조를 갖는 타 주택들과는 달리 아파트의 공간구조는 여성의 공간들이 알은 구조를 갖고 주생활 기능 및 동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

주택공간의 구조는 이미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사회적 현상이며, 사회적 변화에 의한 생활양식 및 문화가 반영된 그 시대의 거울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주택 유형별 공간조직의 형식과 그 사회적 의미에 대한 고찰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볼 수 있다. 즉 주택은 단순한 주거의 수단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한 가족의 사회·문화적 가치체계에 의해서 주거의 양식이나 생활공간의 양상 등이 결정되며, 결과적으로 가족관계 및 대외적인 관계에 깊은 영향을 주게 된다. 주택공간의 구조는 이미 그 자체가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며, 외부의 사회적 변화에 의한 생활양식 및 문화가 반영된 그 시대의 거울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공간을 사회학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공간이란 사회적 관계의 형식이며, 따라서 공간적 형식 그 자체가 사회적 관계의 양상을 제약한다고 보는 것이다. 즉, 공간구조는 사회적 관계 내지 사회적 배경의 산물이며, 사회적 배경의 변화는 공간의 구성과 조직에 의해 표현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과거에서 현대에 이르는 주택의 공간구조에 대한 변천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구조의 영역구분은 과거 전통주택의 성과 계급(반상)에 의한 구분에서 현대주택에 와서는 공적·사적 성격에 의한 구분이 더욱 철저히 지켜지고 있으며, 전체 공간구성에 있어서도 공적 공간 위주의 중심을 갖는 통합된 구조에서 중심의 의미가 약해진 사적 공간으로 내밀화되며 분화되고 있다.

둘째, 공간구조의 권력표현은 남성과 여성의 권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남성의 권력 즉, 기부장의 권력은 과거 형식적·과시적 표현에서 실제적 권위로 그 양상이 변한 것에 반해, 여성의 권력인 주부권은 주체적이며, 실제적 권위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동시에, 계층구조의 공간구조는 과거 전통주택에서 성에 의한 구분보다 더욱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으나, 현재에는 신분계급에 의한 반상의 공간구분에서 경제계층에 의한 변형된 구조 속에서 지속되고 있다.

셋째, 여성지위의 공간구조는 여성 전용공간인 안방과 부엌공간의 위상구조 변화, 즉 안방 공간구조의 지속과 부엌 공간구조의 중심화를 통해 보여지는데, 사회적 배경 및 맥락의 변화와 더불어 주거 내에서 여성의 실질적 역할과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부엌중심의 공간구조를 갖는 90년대 아파트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전통건축에서 근대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주택 공간구조는 과거 권위적, 과시적, 위계적 성격을 갖는 중심공간 위주의 통합된 공간구조에서 실용성과 독립성을 추구하는 내밀화된 사적공간으로 분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공간 구성 즉 공간의 위상학적 관계에 있어서는 각 시대별 주택의 공간구조가 서로 상치하며(overlap) 다소의 변화 속에서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우리의 주거는 형태적인 면에서는 단절과 변용, 그리고 새로운 수용의 결과로 논할 수 있지만, 공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부분적인 변화의 수용 과정을 거치면서 지속되어온 공간구조로 결과 지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주택의 형태는 변하였으나 내재된 공간구조의 본질은 지속되고 있음을 고찰할 수 있었다. ■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설계원리와 미학(6)

The Principles and Aesthetics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of China

한동수 /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전임강사
by Han Dong-Soo

중국의 원림건축은 성시건축, 주거건축, 궁궐건축, 사묘건축, 단묘건축, 능묘건축 등과 더불어 중국고전건축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한 유형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다른 어떤 건축유형도 원림건축 만큼 중국인의 정신세계와 조형세계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은 없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중국을 정점으로 한국과 일본이 함께 일궈낸 한자문화권의 범주 속에서 세나라가 각기 가지고 있는 건축미학의 차별성도 비교적 명확하게 담겨져 있다. 따라서 중국 고전 원림건축에 대한 이해는 최근들어 우리 건축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비교건축의 시각을 여는 발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나아가 우리 자신의 존재가치와 특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는다. 이 연재는 모두 10회로 구성하였으며 먼저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기본적인 발전과정을 서술하고 이어서 그 설계원리를 규명해 보며, 다음으로 몇가지 대표적인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실천의 과정을 탐색하는 한편, 최종적으로는 오늘의 중국 현실에서 그러한 가치들이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 추적해 보고자 한다. (필자주)

〈 연 재 목 차 〉

1. 시대적 풍경과 특색
2. 봉건사회형태의 특징과 원림 발전의 원인
3. 원림의 경영자와 장인, 그리고 이론서
4. 원림의 건축유형과 장식
5. 공간처리 원칙과 수법
6. 경관요소와 조합방식
7. 원림작품의 분석: 자금성의 어화원
8. 원림작품의 분석: 북경의 이화원
9. 원림작품의 분석: 소주의 즐정원
10. 새시대의 정신, 새로운 원림

6. 경관요소와 조합방식

중국고전원림의 경관요소는 크게 산체(山體), 수체(水體), 건축, 화목, 원림소품의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이들을 다시 더 세분화 해 보면 산체에는 봉만(峰巒)¹⁾, 구부(丘阜)²⁾, 원산(圓山), 정산(庭山), 토산(土山), 석산(石山), 호석산(湖石山), 황석산(黃石山) 등의 구별이 있으며 수체에는 하(河), 호(湖), 지(池), 천(泉), 간(澗)³⁾, 폭(瀑)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건축에도 루, 대, 정, 당, 재, 사, 탑, 랑, 다리, 패방 등의 각종 형식이 있고 화목에는 교목, 관목, 등나무 등의 종류가 있다. 그리고 난간, 바닥의 포장, 분재⁴⁾, 어항, 돌탁

1) 봉만: 연속적으로 잇대어 있으며 정상부가 불쑥불쑥 튀어 오르고 바닥이 울퉁불퉁한 신봉우리
2) 구부: 구릉을 지칭함
3) 간: 물이 흐르는 골짜기나 계곡
4) 중국에서는 분경(盆景)이라고 함

자와 의자 등과 같은 원림소품이 있다. 이처럼 풍부한 경관 요소들은 하나의 원림을 위하여 다양한 경관을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간의 공간조합을 통하여 복잡한 예술형상이 조성되도록 한다. 그밖에 건축에 덧붙여진 장식과 채화, 실내에 진설된 가구들까지도 다른 경관요소와 더불어 경관효과를 증진시켜 준다.

6.1 산체(山體)

원림에서 산은 지고무상의 지위를 차지한다. 따라서 초기의 심미자들이 심혈을 기울인 것은 산과 다른 경관의 조화가 아니라 산이 가진 거대한 규모와 간단하고 강렬한 선을 어떻게 하면 두드러지게 할 것인가에 달려 있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여러 개의 산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산체가 단일의 산체를 대치하게 되고 산의 풍부한 형태변화가 원림의 공간예술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한대를 거쳐 수대에 이르게 되면 원림 전체의 경관체계에서 산의 지위는 이미 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시적이건 미시적이건 상관없이 산에 대한 인식은 이미 성숙되었다. 그러므로 수대 낙양의 서원(西苑)을 보면 자연 지형의 변화를 이용하여 전체 공원을 대비가 강렬하고 서로 연결되는 산령구(山嶺區), 거원구(渠院區) 등의 경관으로 나누었으며 그 사이에 놓여진 소형의 가산을 풍부한 형태로 빚어냈다. 이처럼 크고 작은 것을 아우르며 파악하는 능력은 이후 원림산법(園林山法)의 기초가 되었다.

산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림공간을 지탱하는 뼈대를 이루고 산체의 선택과 그것을 빚어내는 방법은 원림의 각종경관과 경관구의 조합에 직접 관계가 된다. 하북 승덕에 있는 피서산장의 점유면적은 5.6 평방킬로미터로서 이는 서한시기 상림원 곤명지 면적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조원지는 산세지형의 선택에 심혈을 기울임으로서 원림 전체가 전개되며 드러나는 탁월한 조건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풍부하고 변화무쌍한 산체는 군봉회합(群峰回合)하는 원경(遠景)을 원림 안으로 끌어들이기 뿐만 아니라 원림 안에 있는 호수구, 평원구, 산령구의 구분을 자연스럽게 하여 안과 밖, 내부에 있는 각 경관구 공간의 균형과 제약관계를 형성하도록 한다. 만일 이러한 자연 산체의 환경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면 인공 산체를 빚어내는 것 역시 풍부한 공간조건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는다. 잘 알려진 실례로 북송의 간악(艮岳)은 "십리의 산으로 천리의 기세"를 보여주었다. 명청시대의 원림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파급되었는데 예를들면 상해 예원의 산은 높고 낮은

것이 우회하면서 강(崗)⁵⁾, 령(嶺)⁶⁾, 동(洞)⁷⁾, 간(澗), 탄(灘)⁸⁾, 학(壑)⁹⁾ 등을 절묘하게 만들어냈다. 이처럼 풍부한 공간변화는 지극히 제한된 공간 안에서 산체의 이합집산을 최대한으로 이용한 소주의 환수산장(環水山莊), 우원(耦園) 등과 같은 명청대 첩산유구(疊山遺構)를 통하여 충분히 감지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산체는 주위의 수체, 건축, 화목이 삼입되고 조합되어 일체를 이룬다.

중당 이후 조원가들에 의해 제기된 "지척간을 순회하면서 작은 봉래산을 바라본다"고 하는 미학적 요구는 시종일관 산체 예술의 발전방향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방향의 실현을 강화하기 위하여 명청대의 원림은 산체의 조형, 질감, 색조, 분위기 등과 같은 다양한 예술요소의 배치와 전환을 산체의 공간변화와 긴밀하게 하나로 결합시켰다.

(1) 녹파(麓坡)

녹파는 큰 산의 지맥이 이루는 한 부분을 묘사한 것이다. 주로 나즈막하고 작은 흙 언덕에 들을 적절히 배치하고 수목과 화초를 심는다. 이러한 창작수법은 경제적이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산림환경의 이상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원림의 담장이나 유랑(遊廊)에 의지한 건축환경의 경계에 만들어진다



스수 유원이 있는 녹파의 형상

(2) 암애(巖崖)

깎아지른 듯한 절벽의 형상으로 석산(石山)의 경관을 가장 잘 표현한다. 그것은 대부분 산의 일부분을 이루고 원림 담장의 경계를 감추는데도 사용된다. 또한 물가에 면하여 만들어진 것은 수면 위에 투영된 그림자의 효

5) 강: 비교적 낮고 평평한 언덕
6) 령: 재 혹은 고개
7) 동: 동굴
8) 탄: 개펄이나 모래톱
9) 학: 골짜기 혹은 산골짜기의 들음영미

파로 더욱 생동감을 갖는다.



남경 침원의 동북쪽 모서리에 있는 암애의 형상

(3)봉만(峰巒)

봉만은 원경의 산세를 취하고 산정상의 산림 분위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용된다. 산정상의 일부분이 솟아 오른 것을 봉(峰)이라고 하는데 작은 돌을 쌓아서 만들거나 한덩어리의 돌을 이용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그리고 산정상의 기복이 심한 것을 일러 만(巒)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휴산에 돌을 쌓아 표현한다. 특히, 태호석(太湖石)의 석봉(石峰)은 "수·추·루·투(度·皺·漏·透)¹⁰⁾"의 4가지



소주 유원의 서쪽에 있는 봉만의 형상



남경 유원의 석봉

10) 돌의 형상이 적절히 호리하고 주름지며 구멍과 틈새가 있는 것을 말한다.

요건이 모두 갖춰진 것을 최고의 것으로 여겼다.

(4)동수(洞隧)

동수는 동굴 또는 터널의 형태로서 사람을 인도하여 경관지역으로 이끄는 것이다. 이러한 것의 창작목적은 실용적인 가치 뿐만 아니라 유람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재료를 절약하여 거대한 산체를 만들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양주 기수산장의 서쪽에 있는 태호석으로 만든 동굴

(5)곡간(谷澗)

곡간은 자연의 심산유곡이나 계류가 지나가는 산골짜기를 반영하여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규모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깊은 산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심어준다.



양주 개원의 후산곡간에 있는 길의 모습

6.2 수체(水體)

수체는 침산예술(疊山藝術)의 발전과 대체로 일치한다. 중국고전원림의 수체는 선진시기 단일의 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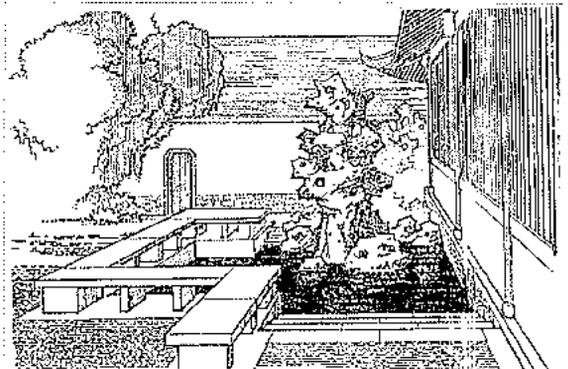
나 고대(高臺)에 의존하여 놓여지다가 진한 시대 이후가 되면 규모가 거대한 주요 경관의 한 부분이 된다. 그리고 남북조를 거쳐 수대에 이르게 되면 감상대상과 조직수단의 요소를 겸비한 것으로 한층 더 변모되고, 중당 이후가 되면 호천(壺天) 속에서 넓고 아득한 공간을 생각하는 관념에 주의를 기울이는 단계로까지 발전하였다. 수체를 어떻게 이용하여 원림체계의 복잡한 경관요소 속에서 중화(中和)의 이상을 실현하느냐 하는 것은 중당 이후 원림에서 더욱 전형적인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호중(壺中)과 개자(芥子)의 격식은 원림의 이수예술(理水藝術)에서 두가지 요구를 하고 있다. 그 하나는 관상의 대상이고 다른 하나는 조직수단으로서의 역할이다. 전자의 경우는 수체로 하여금 가능한 한 커다란 공간감과 풍부한 형태변화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더욱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개의 경관요소를 융합시켜 일체감으로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이같은 요구사항의 궁극적인 목적은 호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풍부, 조화, 완전한 경관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에 있다. 그리고 이 두가지의 요구조건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들면 백거이(白居易)¹¹⁾, 이덕유(李德裕)¹²⁾, 배도(裴度)¹³⁾ 등의 사람들은 이미 유한한 공간을 갖는 원림 안에서 지(池), 천(泉), 계(溪), 간(澗), 폭(瀑), 포(浦)¹⁴⁾와 같은 풍부한 수체를 만들고 수체 형태의 변화를 원림 전체의 공간과 경관 배치 속에 집어넣었다. 송대에는 이러한 수체가 더욱 많아졌는데 사마광(司馬光)¹⁵⁾이 기록한 독락원(獨樂園)의 경우에는 소(沼), 거(渠), 폭(瀑) 등 여러 가지 수체의 대비, 조합이 있으며 지수(止水)에는 당북(堂北)의 소, 당남(堂南)의 소로 나누어지고 동수(動水) 역시 오패(五派)와 이거(二渠)의 구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체와 건축도 지(池) 사이의 당(堂), 거(渠) 사이의 현(軒), 소(沼) 가운데의 도(島) 등 여러 가지 조합배치의 관계가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하여 우리는 수체의 형태와 기능의 복잡함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또한 이격비(李格非)가 사마광의 원림을 묘사한 내용에 의하면 원림의 규모는 날로 작아지고 이수예술(理水藝術)도 정교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원림발전의 상호보완적인 측면을 설명해 주고 있으며 “물이 있어 원림의 정지가 생기를 얻는다”라고 하는 이수예술(理水藝術)의 요지를 갈파하고 있다.

11) 백거이(772-846): 당대의 시인으로 자는 낙현, 별호는 향산거사이다. 저서로는 <백씨장경집> 등이 있다.
 12) 이덕유(787-850): 당대의 왕신으로 이길보의 아들. 자는 운요이고 저서로는 <회창일종집>, <치류구문> 등이 있다.
 13) 배도(765-839): 당대의 명신. 자는 중립으로 칙체의 난을 평정하고 진국공에 봉해짐.

중국고전원림에서 시와 산수화, 건축 등과 같은 예술의 정미로움은 남송대에 이르러 최고봉에 이르게 되고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도로 완벽하게 체계화된 이수예술이다. 특히 강남지역의 뛰어난 자연환경은 이수예술의 발전에 양호한 조건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명청대의 원림은 사회문화체계의 규정으로 인하여 다만 중당 이후의 추세였던 “호천”과 “개자” 속에서 생존하고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송대에 이미 고도로 성숙된 이수예술을 재차 강화할 뿐이었으며 갈수록 한정되어지는 공간 속에서 가능한 모든 수체의 변화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복잡한 수체와 다른 경관 사이에서 더욱 정미로운 평형관계를 만들어냈다. 현존하는 명청대의 원림 가운데 이수예술의 효과가 가장 뛰어나고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사가원림인 소주의 즐정원¹⁶⁾이다.

(1)지당(池塘)

지당은 수체의 간단한 형식으로 기하학적으로 정형화된 형태와 자연스럽게 형성된 자연식 형태의 두가지가 있다. 강남지방의 대부분 원림에 채택된 자연식 지당은 호박(湖泊)에 비하여 비교적 방형에 가깝고 돌장식이 적으며, 수중에는 섬과 교량을 두지 않았다. 그리고 수초를 기르고 물고기를 감상하도록 꾸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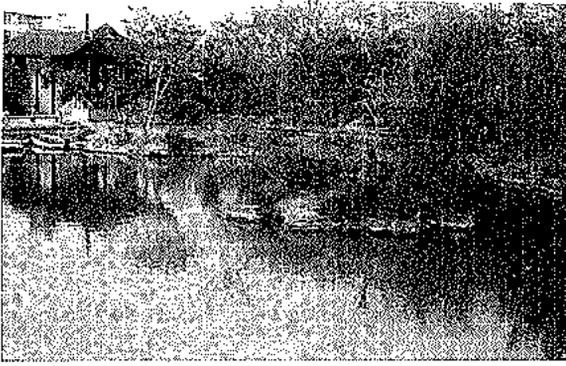


실경 근처에 있는 한 사가원림의 기하학적인 형태의 지당

(2)호박(湖泊)

호박은 강남의 사가원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체의 형태이다. 원림을 경영할 때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대개는 전체 원림이 만드는 경관구도의 중심이 된

14) 포: 물이나 강 어귀를 지칭하는 말.
 15) 사마광(1019-1086): 송대의 사학자로 자는 군실, 저서로는 <자치통감>, <독락원담> 등이 있다.
 16) 즐정원에 대해서는 제9화에서 상세히 다룬 예정이다.



가정 주하포의 삼은당 앞에 있는 호박의 한 형식

다. 호박은 하나의 자연식 수체로서 형상이 심하게 곡절되어 있고 다량의 자연석으로 호안을 꾸미며 수중에는 섬, 들다리, 교량, 부두 등을 설치한 것이 지당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3)강하(江河)

강하는 띠 형태의 수체로서 하천의 경관을 모방한 것이다. 이러한 수체의 양안은 대개 흙으로 되어 있으며 간간히 돌을 박아 넣었다. 그리고 수면구도에 활기를 부여하고 물길의 길이를 증대 시키기 위하여 S자 형태로 취했다.



소주 유원에 있는 강하의 형태를 표현한 수체

(4)산계(山溪)



소주 월정원 서쪽 탐영정 밑에 있는 산계 형태의 수체

강하 이외에 띠 형태의 또 다른 수체가 산계인데 이것은 산간의 계류(溪流)를 표현한 것이다. 산간의 계류를 표현한 산계는 평지의 하천과 달리 양안을 모두 돌로서 처리하여 여울과 급한 물살을 이루도록 하였다.

(5)호복(濠濮)

호복 역시 산수가 서로 의존하는 경관의 하나이다. 이것은 좁고 긴 수체이면서 수위가 비교적 낮은 조건에서 만들어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위가 낮지 않으면 양안을 돌로서 높이 쌓아 상대적으로 수위를 낮추기도 한다.



소주 반원에 있는 호복 형태의 수체

(6)연담(滯潭)

연담은 수면이 집중되어 공간이 협소한 수체이다. 수면의 주위는 모두 돌을 쌓아 만들고 흙을 덮지 않는다. 광선의 처리도 음침하게 하여 밝고 빛나게 하지 않는다. 수위는 아주 낮게 하여 물이 넘쳐 흐르지 않도록 한다.



소주 정동원 북방각 밑에 있는 석류 규모의 연담

(7)원천(源泉)

낙차를 이용하여 물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원천의 창작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적인 원천에 예술적 가공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을 모방한 원천



우석 기정원의 돌을 쌓아 만든 원천

의 처리이다. 전자의 경우는 원림의 터 자체가 자연의 일부
 분에 속해 있는 경우로서 도시내의 일반적인 사가원림에서
 는 거의 볼 수가 없다. 수원의 낙차가 부족한 강남의 사가원
 림에서는 대개 주로 돌을 쌓아 낙차의 조건을 만들어 두고
 비가 오는 날이 되면 비로서 그 효과를 감상할 수가 있다.

6.3 건축(建築)¹⁷⁾

중국의 고대건축은 목구조를 위주로 한다.
 기본적인 특징은 기둥과 보, 도리의 부재로 이루어진 구조
 체가 지붕의 중량을 받치고 벽체는 단지 주변을 감싸는 역
 할만을 하며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개별건축이 상호 연결되
 어 내부공간을 갖춘 중정을 조성하는데 있다. 그러나 건축
 이 원림의 주요한 요소로 존재할 때는 원래의 거주기능 이
 외에 독립적인 경관을 구성하여 다른 경관과 서로 조합하여
 완전한 경관체계를 구성한다.

중당이후 “호중천지”라고 하는 패턴의 확립
 과 더불어 조원자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건축경관을 전체
 원림경관체계에 더욱더 철저히 융합시킬 것을 의도적으로
 요구하였다. 따라서 개별건축의 위치, 형태, 볼륨, 입면, 평
 면, 조형, 실내외 공간의 관계, 심지어 내외부의 장식 등 일
 체의 요소들은 모두 자신의 기능과 심미적 필요뿐만 아니라
 이러한 요소들과 다른 경관요소들 사이의 평형, 제약관계로
 결정되었다. 예를들어 소주 졸정원의 원향당은 원림의 주요
 건축이고 수체는 또 원림의 주요 경관이므로 원향당과 주요
 경관의 관계를 강조하기 위하여 원향당의 앞뒤가 수면을 면
 하고 세워져 있으며 육중한 기둥을 낭하(廊下)에 분산시켜
 배치함으로써 사면이 밝고 투명한 창청(敞廳)¹⁸⁾을 형성하
 였다. 그 결과 실내에서 실외의 수체경관을 최대한도로 바

라다 볼 수 있어 건축과 자연경관 사이의 조화를 얻었다. 이
 와 달리 북경의 이화원에서는 광활하고 거대한 곤명호의 수
 체와 조화를 이루도록 만수산에 규모가 큰 고층의 누각 불
 향각을 세웠다. 조원자들은 이처럼 건축의 형상에 고심하여
 대, 투, 각, 당, 방정(方亭), 원정(圓亭), 선면정(扇面亭), 각
 양 각색의 회랑 등의 건축형식을 만들고 주위의 경관과 어
 울리는 건축형식을 선택하여 적절히 배치시켰다. 중국의 저
 명한 건축학자인 유둔정 선생은 일찍이 소주원림의 건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을 하고 있다.

“대비와 돌보임의 관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척
 도를 장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작은 면적의 원림 속에서
 이 문제는 특히 두드러진다. 공간을 탁트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의 볼륨은 지나치게 고대(高大)함을 피해야
 한다. 청당은 비록 원림의 주요한 건축이지만 주객이 전도되어
 산지(山池)와의 함당한 비례를 잃어버릴 수 없고 청당의 척도
 와 그것이 처한 공간의 크기가 서로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즐
 정원 서쪽의 삼십육원양관은 체형이 지나치게 커서 산지의 척
 도와 서로 균형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협소한 결함을 낳았다. 망
 사원의 청당은 가산의 뒤에 몰려나 있어 비교적 좋은 배치이다.
 임지누각(臨池樓閣)은 형태가 경쾌하여야 하는데 즐정원의 정
 관루, 유원의 명비루 같은 것이 바로 그러하다. 원림의 한 모서
 리에 있는 것으로는 유원의 곡계루를 들 수 있고, 누 앞에 낮고
 작은 투공의 건축을 이용하여 과도적인 부분을 만드는 것으로
 는 망사원의 집허재와 같은 것이 있다. 즐정원의 건산루는 연못
 속에 있어 지면과 충고를 최대한 낮추었다. 위치도 연못의 서북
 쪽 모퉁이에 두었다. 산지 주변의 기타 현, 사, 주랑, 교량, 연못
 의 기장자리 등은 모두 직선으로 길게된 형태를 사용하지 않고
 곡절(曲折)과 기복(起伏)을 취하여 산수와의 상호 경쟁을 피하
 도록 한다. 산 위의 정자는 자그마 하고 깎뚝해야 하는데 만일
 그렇지 않으면 가산은 정자의 기단처럼 되어 웅장하고 기묘한
 기백을 만들 수 없다.”

이러한 지적은 원림과 그 속에 놓여지는 건
 축과의 관계를 아주 정확히 지적하고 있으며 그 수법의 기
 본 목적은 오직 작은 면적의 원림에 풍부하고 조화로우며
 완벽한 경관체계를 만드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다.

6.4 화목과 원림소품

산체와 수체, 그리고 건축을 제외하고 원림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화목과 소품이 있다. 이들의 형

17) 개별건축에 관해서는 제4회 연재물 <원림의 건축유형과 장식>을 참조할 것
 18) 정형: 문과 문지방이 없는 청당건축을 말한다.

태는 각양각색이지만 전체적인 원림체계 속에서의 조합원칙은 앞서 언급한 산체, 수체, 건축과 일맥상통한다.

각종의 화목과 소품들은 자연의 분위기를 증대시키고 경과의 효과를 풍부하게 하는 기능 이외에 원림의 공간서열을 조직화하는데 참여한다. 따라서 화목과 소품의 조밀정도는 서로 다른 경관구역의 풍경대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원림에서 가장 쉽게 변화하는 요소인 화목에는 은행과 같은 낙엽수, 백송 같은 상록수, 교목과 관목, 등나무 계열, 대나무, 국화과 같은 화훼류, 부평초 같은 수생식물 등이 주로 사용되며 대형원림일 경우에는 그 종류가 수백종에 이른다. 이러한 화목들은 그 지태, 색채, 향기로서 원림을 유람하는 사람들에게 시각, 후각, 촉각을 통하여 대자연의 아름다움에 도취되도록 한다. 특히 식물은 자연의 순환질서, 즉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는 전령사로서 원림주인과 유람객에게 또 다른 사색의 기회를 부여한다. 또한 화목은 원림건축과 산수의 심미관계와 원림화면구성의 심미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송대 곽희(郭熙)¹⁹⁾의 <임천고치(林泉高致)>를 보면 "산은 물로서 혈맥을 삼고 화목을 모발로 삼으며...산은 물을 얻어 활력이 생기고, 화목을 얻어 화려해진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목이 없는 그림의 산이 생기가 없고 화목이 없는 원림의 산 역시 생기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화목은 원림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원림이라는 단어를 뜯어보면 "림(林)"이란 글자에 의지하여 조합되고 있어 "원(園)"은 "림(林)"과 불가분의 관계임이 드러난다. 역사적으로 보면 원(園)과 포(圃)는 동일한 의미로 실용적인 가치에 비중을 둔 식물을 심는 것에서 점차 예술적인 측면이 강화되어 그 별칭이 임원(林園), 임포(林圃), 임천(林泉), 임정(林亭), 산림(山林) 등으로 불리웠지만 여전히 "림(林)"이란 글자와는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원(花園)이라는 별칭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원림소품에는 원림의 길, 파골라, 화단 같은 원림 자체의 일부분이 되는 것과 경창, 난간, 계단 처럼 원림건축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원림과 원림건축에 종속되기는 하지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부속품이 아니라 풍부한 내용으로 인하여 원림환경과 경치를 돋보이게 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 의경(意境)의 역할까지도 한다. 예를들어 항주 서호의 삼담인월(三潭印月)의 3개 석등, 소주 졸정원의 만취(晩翠)라고



항주 서호의 삼담인월 스투파 형식의 석등

하는 문동(門洞) 등은 대단히 교묘하고 의경의 이미지가 넘쳐흐르는 소품이라고 할 수 있다. 원림소품은 장식성이 강하고 작지만 천박하고 비천하지 않으며 심사숙고하여 조성됨으로써 환경의 특징을 확실하게 드러내도록 한다. 圖

*2000년 12월 호에 게재된 내용 가운데 도판 설명의 오류가 있어 바로 잡습니다. 95쪽 대경의 그림설명과 96쪽 칠경의 그림설명 이 서로 바뀌었습니다. 독자재현의 양해를 바라는 바입니다.

19) 곽희: 북송시대 하양 출신의 화가로 자는 순부, 대표작으로는 <계산추제도권>이 있다.

협회소식 / 75

건축계소식 / 76

해외잡지동향 / 81

현상설계경기 / 87

법령 /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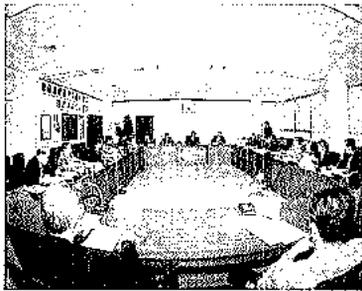
회원현황 / 102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 103

협회소식 KIRA news

이사회

2001년도 1회



우리협회(회장 이의구)의 당면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2001년도 제1회 이사회가 1월 15일(월)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어 업무보고에 이은 부의안건 협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의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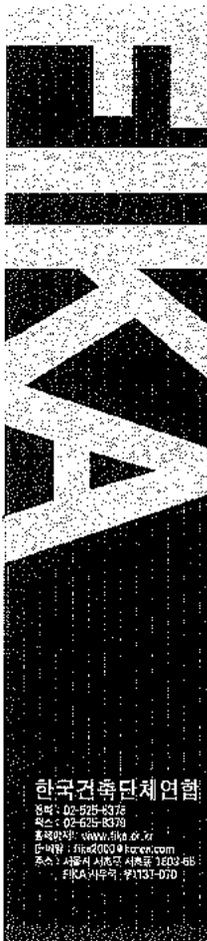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제35회 정기총회 일시 및 장소 결정의 건
- 2001년 2월 23일 대한건축사협회 강당에서 개최키로 함.
- 제2호의안 :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 의 건
- 원안대로 승인키로 함.(전고문변호사를 2001년 2월말까지 연장위촉)
- 제3호의안 : 건설기술자 등록비 및 연회비 변경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키로 함.(등록비는 30,000원으로 57.1%감액, 연회비는 24,000원으로 40%감액)
- 제4호의안 : 인터넷 유료광고 시행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키로 함.(상단 500,000원, 좌우단 400,000원)

〈협의안건〉

- 제1호 : 정관 개정(안)에 대한 협의
- 추후 재협의키로 함.
- 제2호 : 200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에 대한 협의
- 추후 재협의키로 함.



FIKA사무국

건축계의 국제업무 청구를 원활히 하기 위한 FIKA(Federation of Institutes of Korean Architects)의 사무국이 건축사회관 3층에 마련되어 인으로 국제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KISA 등 국제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될 FIKA는 우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 그리고 대한건축학회와 공동으로 구성된 국제연합기구로서 국제화시대에 한국건축의 위상을 높여줄 것임을 기대한다.

한국지부

Federation of Institutes of Korean Architects

한국건축단체연합

전화: 02-525-8376
 팩스: 02-625-8379
 홈페이지: www.fika.or.kr
 이메일: fika@031.net.com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로 1603-605
 FIKA 사무국 417131-070

한마당21, 「건축정보전2001」개최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국내 최초의 건축·건설 전문기획사인 (주)한마당21은 건축정보관련업체를 대상으로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우리협회 아키텍트갤러리에서「건축정보전2001」을 개최한다. 건축사와 직접 연결하여 참가사의 홍보·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며, 건축관련 새기술 및 새정보를 건축사에게 신속히 전달하게 될 이번 전시는 Off-line(우리협회 전시관/아키텍트갤러리)전시와 On-line(우리협회 홈페이지 사이버전시관)전시로 나뉘어 진행되며, On-line전시는 오는 8월 21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주)한마당21에서는 앞으로 매월 2회 테마별건축기획전(건축교육전, 건축벤처전 등)을 준비중에 있다. 문의: 02-702-1871

제19회 서울특별시건축상

2월 28일까지 접수

준공건축물부문과 야간경관조명부문으로 나뉘어 시상되는 올해 「서울시건축상」 작품을 공모한다. 준공건축물 부문은 19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내에 서울시 관할구역내의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된 모든 건축물을, 야간경관조명부문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외부 경관조명이 설치된 서울시 관할구역내의 모든 경관조명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작품의 접수는 2월 28일까지이며, 시상은 5월 31일 세종문화회관 세종갤러리에서 있을 예정이다. 시상식이 끝난 후 6월 5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수상작 전시가 있을 예정이다. 문의: 02-3707-8252.

www.metro.seoul.kr

국민대, 목조건축디자인센터

5개교육과정 수강신청

국민대학교 목조건축디자인센터에서는 2001학년도 교육생을 모집한다. 목조건축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총 5개교육과정으로 진행된다. 문의: 02-2006-6212. www.wooddesign.or.kr

- 제3회목조건축전문지도자과정(1년): 정원30명, 3월 9일압학
- 제11기 목조건축설계기술교실(12주): 정원36명, 2월 24일 개강
- 제1기 가구디자인창업전문과정(단학기): 정원 16명, 3월 7일 개강

- 목조건축설계실습단기특별과정: 정원20명, 4월개강
- 목조건축 시공실습단기특별과정: 정원20명, 4월개강

일부대학 건축학과 5년제로

2002년 신입생부터

서울대, 한양대, 경기대, 명지대, 홍익대 등 일부대학의 건축학과 학부과정이 오는 2002년 신입생부터 5년으로 연장, 적용된다. 교육부는 최근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2002학년도부터 5년제 건축학과 학부과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국대학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110개 대학 건축학과 중 5년제 학부제 도입을 희망하는 대학은 학칙을 바꿔 이를 시행할 수 있게 됐으며, 이 중 서울대, 한양대, 경기대, 명지대, 홍익대 등의 학교가 내년 건축학과 신입생을 5년제로 모집할 예정이다.

건교부, 건축물 단열기준 강화

설비기준규칙개정안 확정

건교부는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를 줄이기 위해 신축건축물에 대한 단열기준을 종전보다 20%이상 강화하고, 단열조치대상을 기존 4개 부위에서 13개 부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또한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피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지난 1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규칙개정안을 법제처심사를 거쳐 확정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중부지방에서 거실외벽에 단열재를 설치할 때 50mm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60mm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단열기준 적용부위를 공동주택의 측벽, 지붕 등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와 간접 면하는 경우(계단실형 공동주택에서 계단실과 가구사이의 벽) 및 바닥의 난방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공동주택은 층간 열손실방지를 위해 각 층간에도 단열조치를 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본지 98쪽 참조)

상업지역내 숙박시설 제한

도시계획법시행령개정안 의결

앞으로 주거지역과 일정한 거리 이내의 상업지역에서는 일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건축이 금지된다. 정부는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내의 무분별한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법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거지역에 인접한 상업지역의 경우 시·군·구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서는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 등의 건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호텔, 여관, 여인숙 등의 일반숙박시설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특수목욕장, 카지노, 무도장 등의 위락시설용도의 건물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이라도 녹지, 공원, 지형지물 등 완

충지대가 있어 주거지역과 차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무회의에서는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고 묘지,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한 매장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도로법에 의한 점도구역 및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등에는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설치제한 지역을 명확히 했다. 이와함께 사설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해 붕괴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면적은 가족묘지의 경우 100㎡, 종종·문중묘지는 1천㎡를 각각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을 정했다. 개정안은 개인납골묘는 10㎡, 가족납골묘는 30㎡, 종종·문중납골묘는 100㎡,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납골묘는 5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경관관리지침 제정

경관관련 규제 강화

건설교통부는 지난 2월 2일 준농림지 등 비도시지역과 산지, 구릉지에서 산보다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정한 경관관리지침을 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관관리지침은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비도시지역인 준농림지나 산지, 구릉지 등에는 별도의 통합된 지침없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규정을 정해 적용해 왔다. 새지침에 따르면 건축물은 산정상보다 높게 지을 수 없도

록 하고, 개발사업부지도 산지락에서 표고 200미터 이하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지목이 산지나 구릉지에 짓는 건축물은 5층이하(20미터)로 하되 스카이라인과 주변경관을 해칠 경우 층고를 더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은 80%, 건폐율은 25%로 정했다. 또 토지의 형질변경은 경사도가 20도 미만이어야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부지의 20~50%는 산림을 원형대로 보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고적, 고찰, 문중묘역 주변과 기암괴석이 있는 계곡이나 해안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에 건물을 지을 경우 경관관리지침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지침은 주변산세와 지평선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스카이라인을 규제하는 한편 송전탑은 산그늘지역에 배치해 눈에 잘 띄지 않도록 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 지침이 강제성이 없는 만큼 일단 지자체들이 이 지침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한편 법제처 심의 중인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 관련 시행령과 규칙에 이를 반영해 지키도록 할 계획이다.

한샘, 제1회 국제인테리어 공모전

동과 서를 넘어서는 디자인을 주제로

종합가구 인테리어 업체인 (주)한샘에서 제1회 국제인테리어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동과 서를 넘어서는 디자인(Design beyond East & West)'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국적, 성별, 연령, 직업, 전공, 팀구성 여부 등에 제한이 없으며, 평면설계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가구 및

소품디자인 부문에 응모할 수 있다. 모든 출품작은 컴퓨터파일로 제작하여 첨부파일을 통해 이메일로 오는 7월 16일(월)부터 19일(목)까지 접수를 하면 된다. 도면은 AutoCAD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스캔한 도면, 투시도 및 랜더링은 이미지 포맷(PDF 또는 JPEG), 크기(640×480pixel), 해상도(72~100dpi)에 맞추어야 한다. 제작 리포트는 영문 MS Word 또는 호환 S/W로 작성(800단어내외)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건축, 인테리어디자인, 가구 및 제품디자인 분야의 국제적인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되며, 심사위원 명단은 이번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대상에게는 약 2천2백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문의: 공모전사무국 02-590-3472, E-mail yish@hanssem.co.kr, www.hanssem.com

건설연구정보센터, 2001학년도 1학기 가상강의

2월 21일부터 3월 5일까지 수강신청

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과학재단 특성화 장려사업의 일환으로 지정된 건설연구정보센터(CRIC)에서 건축관련 7개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수진의 강의를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접할 수 있는 2001학년도 1학기 가상강의가 3월 21일부터 시작된다. 수강신청은 2월 21일부터 3월 5일까지이며, 교수진은 다음과 같다.

- 건축이론 및 설계 / 현대건축의 계보학 / 김광현
- 건축역사 / 한국건축사2 / 전봉희
- 건축계획 / 주택 및 단지계획 / 강인호
- 건축환경 및 설비 / 건축열환경계획

- / 송승영
 - 건축시공 및 재료 / 건설사업공정관리 / 이현수
 - 건축전산 / 건축CAD의 기초 / 김성아
 - 건축법규 / 건축법 이해 / 윤혁경
- 문의: <http://www.cri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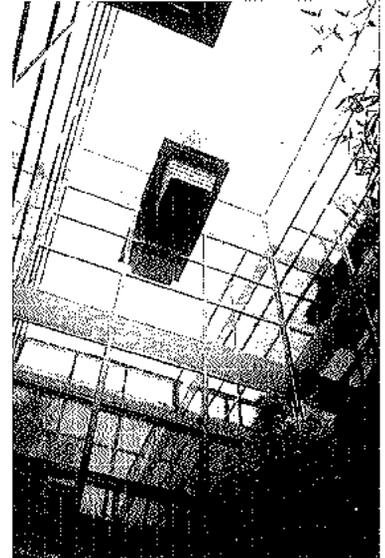
제23회 한국건축가협회상 수상작 발표

현암사(권문성작) 등 7작품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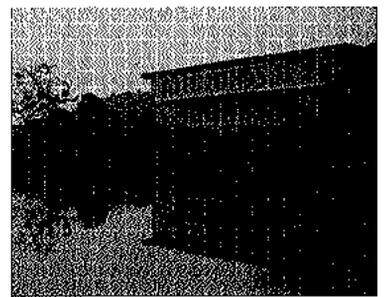
제23회 한국건축가협회상 수상작이 발표됐다. 이번 심사는 김종성(서울건축,위원장), 김병현(장건축), 방철린(인토건축), 유원재(다건축), 이은영(한양대)씨가 맡았다. 협회상을 받은 7작품외에 특별상으로 초평건축상에는 김정철(정림건축)씨가 선정됐으며, 아천건축상에는 영월구인현(정기웅/기웅건축)이, 그리고 엄덕문건축상에는 웰컴시티(송효상/이로재건축)가 각각 선정됐다.

건축가협회상 수상작품 현황

| 작 품 명 | 건 축 가 | 건 축 주 | 시 공 회사 |
|------------------------|---|---|-----------------------|
| 도시개발공사 거여지구 3단지 아파트 | (주)건축사사무소 한울건축 이성관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도명정 | 자유중합건설(주) 대표 정희식 |
| MULTI-BOX HOUSE | (주)건축사사무소 초석 정일교 | 최주연 | 그린주택건설 사장 장순용 |
| 불보건설기계 코리아 성북동 사택 | (주)메제 건축사사무소 유태용 | (주)불보건설기계코리아 Eric Nielson President & CEO | 신주택 대표 심 완 |
| 비전힐스 골프 클럽하우스 | (주)백건축 곽재환 | (주)비전힐스 사장 임태수 | (주)동원건설 대표이사 소민석 |
| 인사이트센터 | (주)테트라 건축사사무소+ Wilimotte & Associates 임상관+ Jean-Michel Wilimotte | 인사이트센터 대표 이호재 | 희훈중합건설(주) 대표이사 문계실 |
| 정토사 무량수전 | 이도건축 김개천 | 정토사 해광스님 | (주)정인건설 사장 박용수 |
| 현암사 | Atelier 17 권문성 | 현암사 사장 조근태 | (주)제호 사장 이백화 |



인사이트센터



정토사 무량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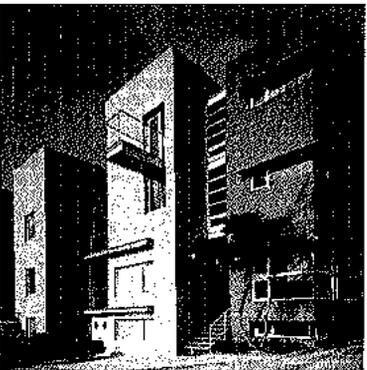
비전힐스 골프 클럽하우스



도시개발공사 거여지구 3단지 아파트



글로벌실기원 코리더 상복동 사옥



현암사



MULTI-BOX HOUSE

심사후기

김종성

금년 심사에서는 자천 50작품, 타천 27작품, 심사위원 추천 작품들을 토대로 제출된 자료와 기출된 기사를 다섯 위원들이 평가, 진지한 의견 교환과 자료검토를 통하여 심사 대상 작품을 선발하였다. 작품선정의 기준은 건축적 창의성, 우리 건축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념의 제시와 그 완성도로 정리할 수 있다. 아마도 3년 전 외환위기의 여파인지, 금년에는 일곱 최우수 작품을 선택하는 작업이 쉽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작품 수가 적었고, 제출 및 출판된 자료에서 관심을 자아내는 작품들이 경우에는 그 실체가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았다. 2001년의 일곱 최우수 작품을 보면 주택이 2작품, 이례적으로 아파트 건축이 한 작품, 기업본사 사옥, 스포츠 여가 시설, 불교 법당, 도심 문화시설이 각기 한 작품 씩이다. 작가들을 살펴보면, 신인 작가를 여러 명 발굴한 것이 성과이고, 중견작가이면서 그동안 수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건축가를 몇 명 선발한 것 역시 금년도의 수확이라 할 수 있다. 곡재환의 비전힐스컨트리클럽, 클럽하우스는 동서 방향으로 구름지를 잘 이용하여 만들어낸 노출 콘크리트의 건축이 전반적으로 조형감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축(軸)상의 진입레벨(리셉션 카운터가 배치된 있음)이 골프 코스의 경관을 최대한 인입하고 있지 않은 점과, 조형적으로 위계가 높아 보이는 아연도 동판을 입힌 바렐 볼트의 매스가 배후 기능을 담고 있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되었다. 권문성의 현암사 사옥은 기존 주택을 부분 개축하며 인접 대지에 신축부분이 얼굴이 되는 호감이 가는 건축으로, 대로변에서 한 켠 들어가 있는 작은 입지의 이웃 건물들과 스케일을 잘 조화시키고 있다. 평면, 입면이 곡선으로 구성된 신축부분의 매스를 적삼목으로 마감한 것도 주택가의 분위기를 잘 읽은 디자인 수법이라 평가된다. 김계천의 담양 정토사 법당은 전통양식에 의존하지 않는 우리 시대의 사찰을 창작해 내려는 건축주와 작가의 의지가 돋보이는 건축으로서, 전면의 저수지 수면이 법당에 앉았을 때에 격자무늬 창 밖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배치한 것과, 콘크리트조 긴 변의 앞과 뒤가 모두 열릴 수 있는 격자창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건축적 수단으로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는 작품이다. 앞으로 건설될 주차장에서 법당으로 진입하는 의전적 외부공간이 한층 더 정토사의 종교적 분위기를 고조시키기를 기대해 본다. 유태용의 성북동 사택은 건축주의 가족구성에 요구되는 일상생활의 사적공간과 사회활동에 요구되는 사교(social)공간을 계획한 특수해의 작품으로 모든 공간에서 경관이 내부로 흡인되도록 평면이 짜여진 것이 돋보인다. 경사진 진입도로서 폐쇄적으로 읽히지는 얼굴이 약점으로 지적되었으나, 완성도가 높고 디테일, 재료의 선택 등이 높은 수준에 달한 주택작품이다. 이성관의 거여지구 3단지 아파트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의 진취적 개발 전략에 부응하여 건축가가 창의력을 발휘한 좋은 사례로서, 보편적인 배치 계획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낮은 매스의 배열에 직교하는 고층부를 접합함으로써 다양하고 신선한 외부공간을 만들어낸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인접 아파트 단지의 불합리한 민원으로 부분, 부분 설계의도가 희석된 것이 우리사회의 문화수준을 보여주는 불행한 현상이다. 정일교의 멀티박스하우스는 일산 신도시 단독 주택단지의 국적없는 건물들 틈에 투철한 창작의지로 정방형 평면의 주택을 만들어낸 작품으로서 그 실험적 접근 방법이 높게 평가되었다. 정방형의 형태결정주의에서 오는, 삶을 영위하는 아늑한 "집" 이라기 보다는 "전시실" 같은 느낌과, 종류가 많아 보이는 여러 재료의 병치 내지는 시각적 경험이 이 작품이 낳는 과제로 지적된다. Jean-Michel Wilmotte 사와 임상관/테트라건축의 인사 가나 아트센터는 아직도 많은 한옥이 남아있는 관훈동 길의 서쪽에 좁은 얼굴과 안으로 연결된 필지의 T자형 부지를 잘 이용하여 높은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인사동 거리의 스케일과 텍스처에 조화되는 작품으로 평가되었다. 지하층에서 6층까지 조금씩 다른 분위기의 전시/판매 공간을 구성하며, 동쪽을 내다보는 테라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호감을 준다. 심사 위원들은 공공성을 지닌 대규모 건축물에서도 한국 건축의 오늘을 대표하는 작품이 없을까 광범위하게 찾아보았으나, 이번 해에는 임공의 최우수 작품에 포함된 작품이 대부분 프라이빗 섹터의 소규모 건축인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아울러, 매년 그 해의 최우수작품을 발탁한다는 건축가협회의 취지는 이해하나, 지난 13개월 내에 준공/사용된 건물로 대상을 국한하는 규정이 건축작품을 평가하는 데에는 좀 편협하게 느껴지며, 후보 작품의 자격을 2년 또는 3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의 발전적 변경을 제안한다.

a+u
 건축문화
 신건축
 Domus
 Architecture

a+u

2000년 12월호

이번 호에서
 는 인도의 건
 축가 로리 베
 이커(Laurie
 Baker)의 작
 품들을 특집
 으로 다루고



있다. 로리 베이커는 인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국출신 건축가로, 인도의 풍토와 인도인의 사회와 문화에 맞는 건축을 추구하고 있다. 그의 주택 및 공공서 건물들이 소개되고 있다.

■ 특집: 로리 베이커

▶ 인도의 영국인 건축가: 로리 베이커는 1917년 영국의 버밍햄에서 태어나 버밍햄에서 건축을 공부했다. 영국 왕립 건축가 협회(RIBA)의 회원이었던 그는 1945년 인도에 정착한다. 그 후 인도의 산업, 경제수준, 문화, 기후와 풍토 등을 고려한 그의 작품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자신의 건축관에 관한 다음의 말을 보면 그의 인도인과 인도건축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

▶ 로리 베이커의 건축관: 다음의 그가 자신의 건축철학을 이야기한 것이다. "나는 소위 보통 사람들의 행동들을 관찰함으로써 건축을 배운다. 그리하여 그들이 만든 건축은 어떠한 경우에도 가장 값싸고 또한 가장 단순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시공업자 미저 고용하지 않는다. 가족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건설한다. 예를 들어 노래된 건물의 복제 격자세공에 쓰여진 무수한 작은 구멍들, 그것들을 통해 강렬한 광선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하는 점에 그들의 작업의 편린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유리창을 둘러싸고 있는 콘크

리트벽은 분명히 불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여태까지 나는 인도사람들을 위해 작품을 만들어 왔다. 심지어 외국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나의 고객이 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일을 제일 우선으로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도인이 공통적으로 필요로하고 원하는 것을 제공하고 싶다고 항상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나는 건축가로서 '로리 베이커의 건물'이라는 기념비를 세워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것 보다, 예를 들어 모한 신과 그의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주택을 만들고 싶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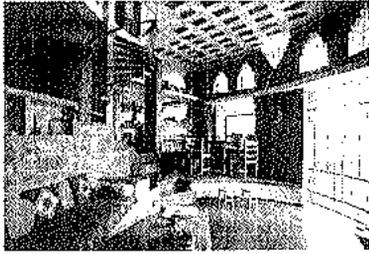
▶ 작품: 소개된 그의 작품들은 '건축가의 주택', '연구개발센터', '코퍼스



건축가의 주택



코퍼스 크리스티 스텝



돌라스저택

크리스티 스쿨(Corpus Christy School), '남부드리패드(Nambodripad)저택', '성 요한 성당', '시바나단(Sivanadan)저택', '날리나야크(Nalininayak)저택', '존 제이콥(John Jacob)저택', '돌라스저택', '질라 팬카야트(Zilla Panchayat)사무소', '어부들의 집합주택 콜로니', '지방 산업 교역 협회관', '안간바디(Anganvadi)탁아소' 등으로 주택과 지역사회의 공공 건물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주택 작품들 중에는 다소 큰 규모의 주택들도 있지만 그만큼 비용 절감을 위한 매뉴얼이 있을 만큼 그는 인도의 풍토와 기술력, 지방의 재료 등을 고려한 방법으로 인도인들의 삶의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어부들을 위한 집합주택 콜로니는 저소득층을 위한 그의 애정이 느껴지는 대표적인 작품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도덕성만이 그의 작품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모더니즘의 조형언어에 인도의 토속적인 공법, 그리고 이들을 주의 깊게 혼합하여 만든 로리 베이커만의 형태언어가 어우러져 자연스러운 풍경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인도에서 건축을 한다는 것'에 대한 그의 연구는 그에게 오히려 새로운 자유를 안겨다 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다양한 방식들의 벽돌쌓기를 통해 많은 노동력을 요하는 디테일들을 완성시키고 있으며, 벽돌로 이루어진 아치와 격자무늬 창을 통해 들어오는 강렬한 빛들의 연출은 지역성과 융합하여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건축문화

2000년 12월

이번 호의 특집 建築文化

은 '건축을 여는 구조디자인-건축가와 구조가의 다이알로그'라는 제목으로 건축가와 구조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디자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건축가와 구조가의 협력관계. 실제 작품들을 두고 건축가와 구조가의 대답을 통해 이러한 협력작업의 가능성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 특집: 건축을 여는 구조 디자인

▶ 건축가와 구조가의 협동: 건축에 있어서 재료나 기술의 개발은 건축의 형태나 시공기술에서 재료의 유통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이들 기술혁신이 구조시스템의 전개에 공헌하였으며, 이제까지 불가능했던 거대한 건축공간의 출현은 20세기의 건축을 특징 지었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실제작품에 의한 시도를 통해 구조해석기술도 혁신적으로 오늘날, 이들 엔지니어링을 어떻게 활용하여 건축을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고, 건축 전체의 비전과 함께 엔지니어링을 생각해야 할 시점에 도달해 있다. 이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금후 이제까지 이상으로 긴밀한 건축가와 구조가의 협동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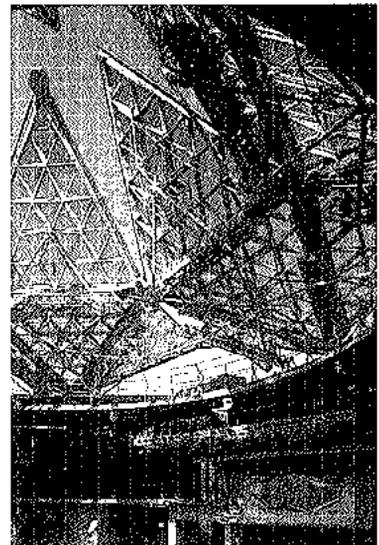
이번 특집에서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축으로 한 건축가와 구조가의 대답을 통해 현재 어떠한 건축·구조디자인이 요구되어 어떠한 프로세스로 공동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탐구해보면

서,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해보고자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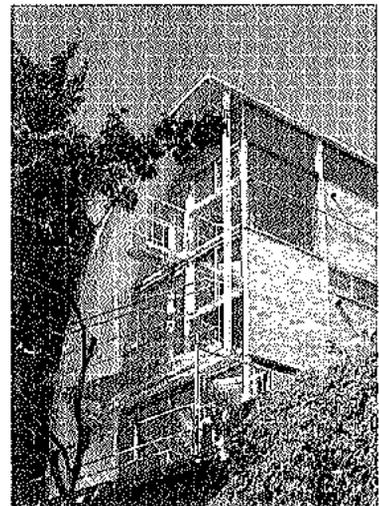
▶ 인터뷰와 대답: 먼저 '건축가는 구조디자인에 어떻게 관계 맺는가'라는 주제를 갖고 건축가 반 시게루(坂 茂)과의 인터뷰로 시작하고 있다. 하노버 만국박람회 일본관 등 주로 그의 작품을 예로 들어가며 구조가와 협력관계, 새로운 디자인을 허용해줄 법적 문제, 새로이 탐구된 재료의 성능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어서 건축가와 구조가 한 명씩이 한 작품을 두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4개의 작품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수록된 작품과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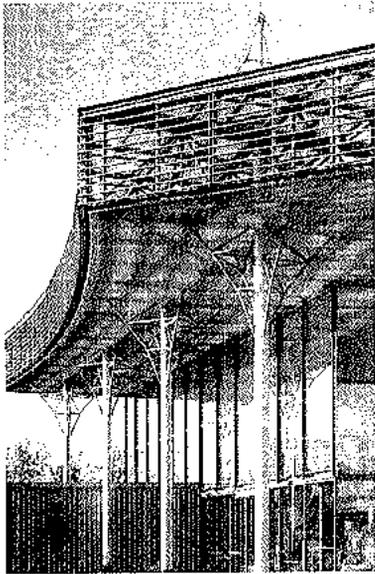
감성과 이성의 임계점 - 札幌미디어 파크 스피커: 이사가 시게하루(伊坂重



札幌미디어 파크 스피커



M2 하우스



縣立北總化の丘公園 꽃과 녹지의 문화관

춘) × 와타나베 쿠니오(渡辺邦夫), '소재의 잠재력을 끌어내어 단숨에 풀어버린다 - M오피스: 엔도 마사키(遠藤政樹) × 이케다 마사히로(池田昌弘)', '네트워크가 「최소한으로 최대의 것」을 인도하다 - 縣立北總化의 丘公園 꽃과 녹지의 문화관: 이이타 요시히코(飯田善彦) × 이마가와 노리히데(今川憲英)', '긴전한 구조가 만들어내는 「비어있음」의 미 - 오렌지 플랫: 하사키와 미츠코(長谷川逸子) × 알란 버든(Alan Burden).

▶ 컬럼: 건축가와 구조가의 대담에 이어 본 주제에 대한 에세이에 해당하는 글들이 대담들의 사이사이에 수록되었다. '다른 분야와의 연휴(連携)', '로목 스케일의 디자인 수법', '하이브리드 구조의 가능성', '디자인과 기술의 플렉서빌리티' 등의 글이 각각 저자의 대담, 에세이, 인터뷰의 채록 등의 형식으로 실렸다.

신건축

2000년 12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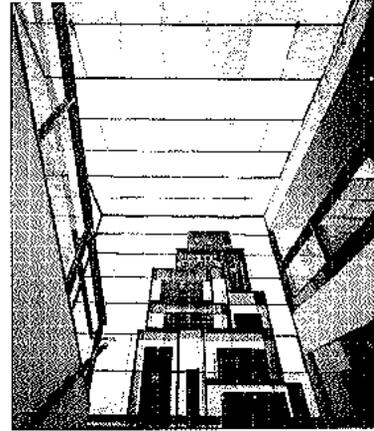
이번 호에서는 이토오 슈오(伊東豊雄)이 심사를 맡았던 '신건축주택설계경기 2000'의 결과 발표를 작품 소개에 앞서 게재하고 있다. 소개된 작품들로는 쿠로카와 키쇼오의 瀑看席(O 邸茶室), 竹原義二의 蓬萊·玄의 아틀리에 등 짙은 일본적 정서가 느껴지는 작품들과 아오키 준(青木淳)의 루이뷔통 긴자(Louis Vuitton Ginza), k/o 디자인 스튜디오의 리테일 스페이스(Retail Space 1,2) 등 소규모 상업용도 건물의 인테리어 디자인이 소개되었다.



■ 신건축주택설계경기2000결과발표 '파이널 하우스(Final House)' 라는 과제가 부여되고 이토오 슈오가 심사를 맡았던 이번 설계경기는 신건축지에 결과가 발표된 다른 설계경기와 달리 아래적으로 작품들의 소개에 앞서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1등상은 일본 동북대학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동북대학 건축학과에 재학중인 錦織眞也가 수상했다.

■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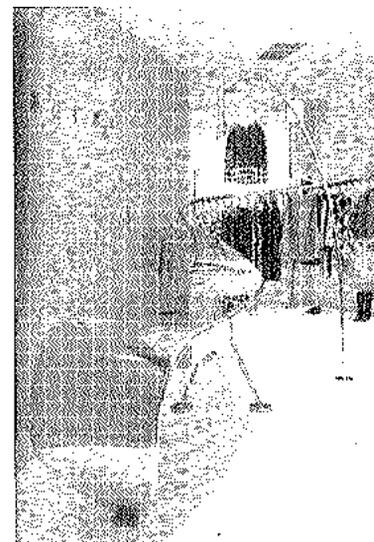
▶ 아오키 준의 '루이뷔통 긴자': 아오키 준은 얼마전 99년 10월호에 소개된 루이뷔통 나고야를 디자인 하였다. 이번 긴자점도 같은 디자인이다. 격자 무늬를 넣은 2겹의 유리를 통해 입면을 연출하고 있으며 내부 인테리어도 똑 같은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얼마전 한국의 압구정동에 완성된 루이뷔통 상점도 유사한 디자인이다. 아오키 준



아오키 준의 '루이뷔통 긴자'

은 이번 작품의 소개 이외에 요즘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리모델링에 관한 에세이를 이번 호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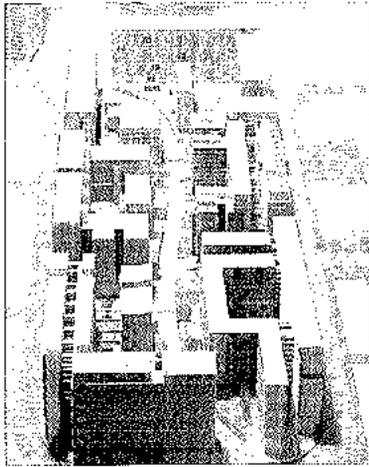
▶ 퓨퍼시스템(Future System)의 마니 긴자(Marni Ginza) 점도 이색적이다. 삼의 내벽을 곡면으로 처리하고 마찬가지로 곡면들로 처리된 옷걸이와 책상 등을 디자인해 배치하였는데, 옷걸이와 전시대 등이 하나로 이어져 있어 옷걸이가 차차 전시대로 바뀌는 형태를 취했다. 요즈음엔 보기 드문 디자인이다.



퓨퍼시스템의 마니 긴자

■ 東雲집합주택계획

세기말에 도달하여 동경의 도심에서는 버블경제가 붕괴한 후 토지의 재편,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東雲집합주택계획

이 동운집합주택계획도 본래 공업지역의 재개발이다. 부지는 지하철 有樂町선의 辰巳역과 豊洲역 사이의 辰巳운하와 東雲운하로 둘러싸여진 매립지. 상업·관광의 거점으로서 개발중인 有明이나 台場に 인접한 상업시설·생활기반시설 등을 공설한 집합주택의 계획이다. 제1기의 AB街區를 시작으로 CD, EF 등 총 6街區의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

가족구성의 라이프스타일 등 수요자층이 점점 다양화되어가는 가운데, 건축가는 어떻게 주거환경을 제안하고 있는가에 대해 이번 계획안에 제시된 6팀의 안들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참여한 건축가들은 아마코토 리켄, 이토 슈오, 쿠마 겐코와 RIA, 아마설계 공방 등이다.

Domus

2001년 1월호

기존 건축에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상업 건축에 대해 새로운 조명을 하고 있는 본 호에서는 Mandari-



na Duck, Giorgio Armani 등 새로운 상업점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는 사례들과 아울러 이러한 시설들의 중요성을 재고해보는 렘 콜하스의 글 Junk Space가 게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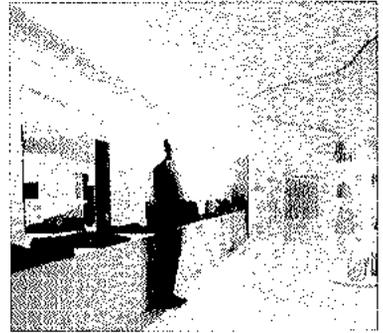
■ 렘 콜하스의 Junk Space

▶ 행사 소식에서 소개된 전시회 Mutations에서 콜하스는 최근 건축관을 대표할 수 있는 용어로 Junk Space를 제시했다. 근일 출간 예정인 쇼핑에 관한 저서의 부분 발췌이기도 한 이 글에서 그는 쇼핑 센터가 근대 발명품인 에스컬레이터와 함께 탄생하여 상업 문화의 전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 최근에는 쇼핑 센터가 레저 시설, 박물관, 공방 등 복합적인 프로그램과 접목되어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전자 상거래의 발전에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복합 시설, 도시적 경험의 척도로 그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쇼핑에 대해 이제 우리는 지식인의 직관에 따른 반대 입장을 고수할 수만은 없다. 그것은 근대화의 부산물이 아니라 그 정수로서 이미 우리의 현실이 되어 있으며, 공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Junk Space)을 제시해주고 있기도 하다.

■ 상업 인테리어 건축

▶ Droog Design의 Mandarin

Duck 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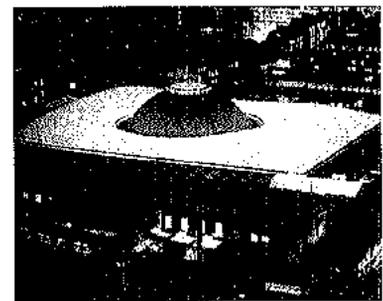


일관되지 않은 개성있는 상점들로 상권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Mandarin Duck은 파리 rue Saint-Honor 상점 디자인을 Droog Design과 NL Architects에게 맡겼다. 형태 위주의 사고가 아니라 기능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가장 객관적인 해결안을 추구하는 Droog Design은 이 상점에서 고무 밴드와 편백을 이용한 디스플레이 방식, 유리 섬유를 통한 공간의 분할 등 새로운 실험들을 시도해 보았다.

상점 계획의 다른 사례들로 ▶ 말라노 Giorgio Armani 상점, ▶ John Pawson의 Bulthaup 상점 등이 소개되어 있다.

■ 근작 소개

▶ Norman Foster의 British Museum 리노베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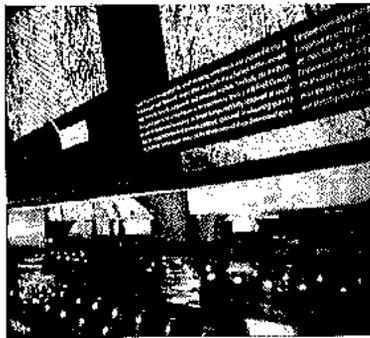
Robert Smirke 경이 설계한 고전 건물군의 중심부에 대한 리노베이션 설계 경기에서 당선된 Foster의 계획안이 완공되었다. Buckminster Fuller 와의 작품을 연상시키는 유리 돔 구조는 중심부를 실내화하여 매년 5백만

명이 물리는 박물관의 복잡한 동선을 효과적으로 풀 수 있게 하였다.

▶그 외에 Williams & Tsien의 미국 Cranbrook 고등학교 계획이 소개되었다.

■ 행사 소식

▶프랑스 Bordeaux의 L'Arc-en-Rêve 건축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Mutations



3월까지 열리는 이 전시회는 프랑스 정부의 지원으로 개최되었으며 렘 콜 하스가 프로그램 구성을, 장 누벨이 전시 디자인을 맡았다. 비디오, 사진, 글 등을 복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Mutations는 각 대륙의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변화상을 되짚어보면서 서구의 도시 모델이 전세계적으로 적용된 데 따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으며, 인간의 예측을 넘어서던 자연 발생적인 도시 현상들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인간의 창조물 중 가장 스케일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도시가 우리의 삶에 새로운 방향과 관계를 제시해주는 동시에 그것에 절대적인 한계점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 이탈리아 밀라노 Fondazione Prada에서 1월7일까지 열린 Carsten Höller 작품 전시회, 미국 뉴욕 윌트니 미술관에서 2월25일까지 열리는 컨셉슈얼 미술가 Sol Le Witt 회고전이 소개되어 있다.

■ 기타

▶디자이너 Jeremy Edwards가 일상 삶 속에서 발견한 익명의 디자인 제품 사진 모음, ▶Valencia Biennale 준비 소식, ▶제1회 Borromini 상 시상 결과, ▶주변 사물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각을 부여하고 있는 독일 철물사 FSB의 최근 출판물 The Hands of Le Corbusier, ▶이탈리아 대도시 역에 대한 리노베이션 계획을 다루고 있다. ▶아울러 저서 비평 코너에서는 Carlos Ral Villanueva 건축 작품집, Frank Lloyd Wright - Europe and Beyond, Lars Lerup의 After the City 등을 다루었으며, ▶Charles Jencks의 최신 저서 Le Corbusier and the Continual Revolution in Architecture의 일부분이 수 페이지에 걸쳐 발췌 소개되어 있다.

Architecture

2000년 11월호

대지와와의 관계로부터 출발한 건축물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본 호는 이러한 사례로 Moshe Safdie,

Perkins & Will, Morphosis의 작품들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버려진 공장을 새로운 유흥지로 탈바꿈시킨 독일 Ruhr의 사례를 표지 이야기로 다루었다.

■ 설계 경기 제도에 대한 개혁안

최근 설계 경기에 계획안이 당선되기도 실시 설계 과정에서 수많은 간섭에

의해 원안이 파괴되거나 아예 취소되어 버리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유럽에서는 국가에서, 혹은 전문가 집단에서 종합된 심사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설계 경기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모델이 어디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본 계획안 단계 이후의 작업에 대해 설계비를 제대로 받는 것, 경기 규칙이 객관적이고 명료하게 정의될 것, 그리고 건축가들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할 것(동의 하에 양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의 개선책들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 문화



독일 Ruhr 지역의 테마 공원

▶독일 Ruhr 지역의 버려진 공장 지대가 테마 공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산업화에 따라 황폐해졌던 주위 자연 경관은 다시 복구되었으며, 기존 공장 건물들은 각종 레저 활동의 장으로 개축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역사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고 새롭게 시작하기보다는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재생시키는 방법을 실천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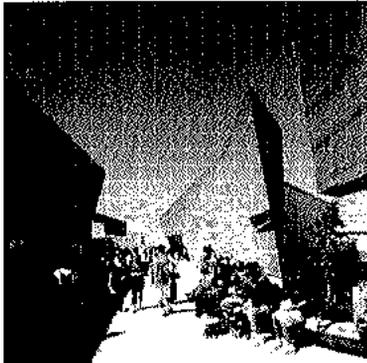
■ 대지 건축

건축과 대지의 관계를 복원하고자 하는 경향은 건축 이론가 Christian Norberg-Schulz의 존재론적 이론에서 시작하여 현재 세계 각지의 최신 건축물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Morphosis와 Thomas Blurock



Architects의 미국 캘리포니아 주 Diamond Bar Diamond Ranch 고등학교



구깃구깃 접힌 면들이 연속해있는 형상은 주위 자연 경관과 연속을 이루면서 전체 건물군의 지붕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 사이로 난 다이내믹한 외부 공간들은 서로 다른 레벨을 램프를 통해 이어주는 등 고등학생들의 이용 행태에 맞추어 설계되어 있다. 이들은 미국 상점 거리의 이미지를 빌어오는 동시에 그 개방 부분들을 통해 주위 자연으로 시선을 열어주고 있다.

▶Moshe Safdie and Associates의 미국 캔서스 주 Wichita 팀협 과학관과 어린이 박물관

두 개의 건물군으로 구성된 본 박물관은 요동하는 지붕 형태들을 통해 주위의 평탄한 프레리 지형에 대해 대조의미를 추구하고 있다. 전시장을 담은 건물은 호수에 인접해 섬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으며, 이에 연결된 육지 부분에 강당, 사무실, 로비 부분을 수용한 건물이 들어서 있다. 가하학을 변형한 형태의 콘크리트 구조물들은 호수와 평지가 어우러진 주위 환경에 대해 또한 하나의 경관을 창조해내고 있다.

그 외에 ▶Scott Tallon Walker의 아일랜드 County Wexford Oulart Hill에 있는 Tulach a' tSolais, ▶Perkins & Will의 미국 시카고 과학회 Peggy Notebaert 자연 박물관, ▶도시 속의 구릉 언덕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는 Antoine Predock의 미

국 미네소타 주 Minneapolis 미네소타 대학 McNamara 동창회관, ▶Loom의 미국 미네소타 주 St. Paul 여성 참정권 기념 공원 등이 소개되어 있으며, ▶아울러 피라미드, 스피르크스 등 고대 이집트 건축물들과 사막 지형의 유사점을 보여주는 Thomas Miller의 사진과 글이 게재되어 있어 건축의 기원에 있어서 대지가 갖는 의미를 조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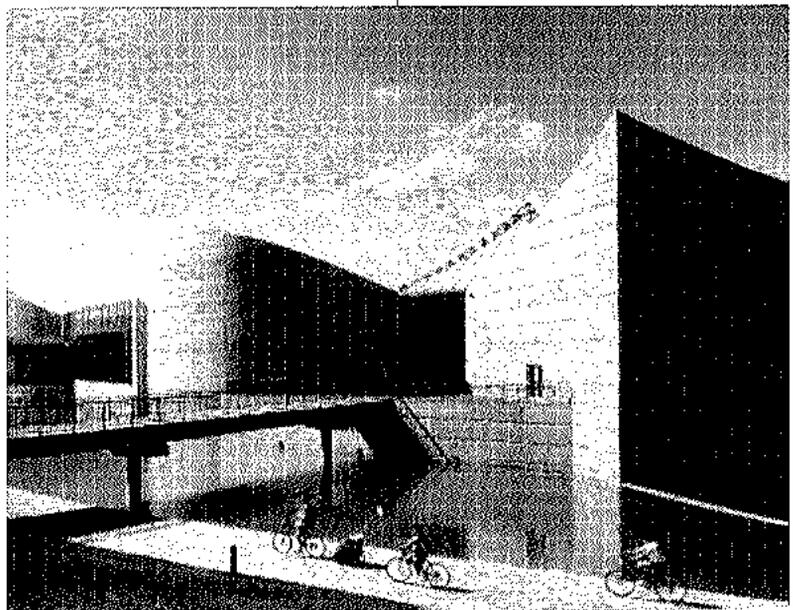
■ 향의

미국 뉴욕 타임스 광장에 신축된 Fox & Fowie의 새 Reuter 타워는 최고의 연면적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너무나 난잡한 형태를 갖고 있다. 도시 속에서 그 덩치를 숨기기 위해 그 표면을 서로 어울리지도 않는 양식들로 조합시키는 것은 건축물의 정체성 부재만을 가져올 뿐이다. Christian de Portzamparc의 LVMH 빌딩 등 인근의 사례에서와 같이, 오히려 통일되고 우아한 디자인을 부여하는 것이 도시 맥락에 더 어울린다.

■ 기타

▶미국 뉴욕 Cooper-Hewitt 국립 디

자인 박물관 관장으로 부임한 Paul Warwick Thompson과의 인터뷰, ▶Chrysler 디자인 상 수상작, ▶백악관 담장 철거 계획, ▶Hans Hollein의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구겐하임 미술관 계획, ▶Renzo Piano의 일본 간사이 공항 침수 문제, ▶미국 Seattle 건축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Microsoft 공동 창업자 Paul Allen 이야기, ▶Steelcase의 철재 건축 사무소가 지닌 장단점, ▶강화된 내구성을 보여주는 High-volume fly-ash 콘크리트, ▶유명 건축물들을 추상적으로 카메라에 담은 Hiroshi Sugimoto의 사진 작품들, ▶곤충에 대한 연구를 건축에 접목시킨 짐바브웨 건축가 Mick Pearce에 대한 소개 등이 게재되어 있다.



미국 캔서스 주 Wichita 팀협 과학관과 어린이 박물관

현상설계경기 competition

인천 학생교육문화회관

Education and Culture Center for the Students in Incheon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중구 인현동 5번지(현 축현초등학교)에 학생교육문화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현상설계 경기를 실시 하였다. 지난해 12월 10일 공고, 올해 1월 10일 작품을 접수받아 1월19일 심사한 이번 설계경기에서는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선기획(이용선)의 안을 최우수작으로 선정하고 우수작으로는 (주)무영건축사사무소(안길원)안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시 교육청은 2월1일부터 8월 5일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10월경 착공하

여, 2003년 9월 준공 및 개관 예정이다.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은 약 240억원을 투자하여 대지면적 12,535㎡에 연면적 21,722㎡의 시설로서 대강당과 전시실을 비롯한 공연/전시시설과, 예절교육실을 비롯한 교양문화시설, 열린 도서관, 인터넷 카페 등 정보활용시설, 실내 구기장과 탁구장, 동아리실 등 체육시설, 디스코, 오락실 등 놀이시설, 기타 관리 지원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신축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공간이 확보되어 인천의 청소년 문화를 선도해 가는 중심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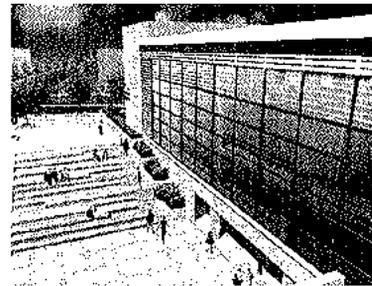
▶ 당선작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선기획(이용선)

| | |
|------|------------------|
| 대지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5번지 |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
| 대지면적 | 12,535㎡ |
| 건축면적 | 6,737㎡ |
| 건폐율 | 53.7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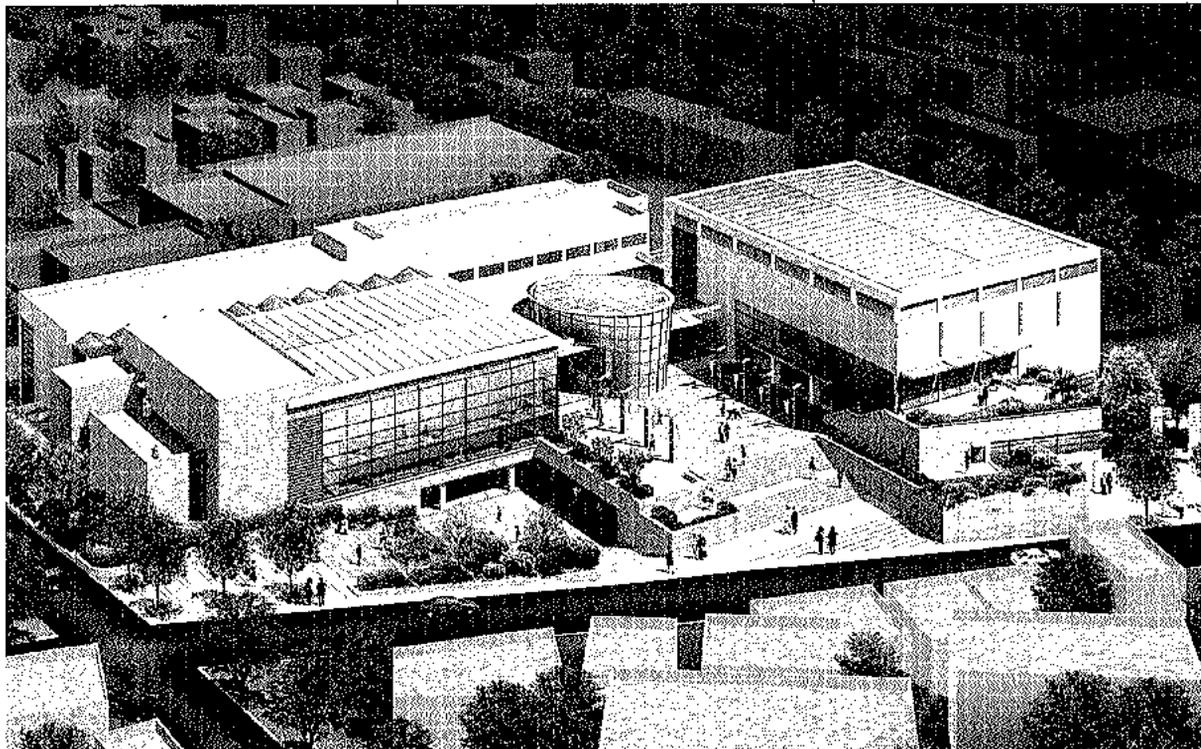
| | |
|------|-------------------------|
| 연면적 | 21,722㎡ |
| 지상층 | - 17,699㎡ |
| 지하층 | - 4,023㎡ |
| 용적률 | 141.91% |
| 규모 | 지상4층, 지하1층 |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철골트러스(지붕) |
| 외장재료 | 알미늄 복합패널, 화강석 버너마감 |

주변환경

계획부지는 동인천역 로터리와 제물포고 등 5개 중,고등학교와 인접하고 있으며, 지난해 인현동 화재참사의 아픈 기억으로 얼룩진 장소이다. 현재에도 이 지역에는 3~4층 정도의 근린/위락시설 등이 밀집해 있어 매우 열악한 주변환경의 개선이 요구되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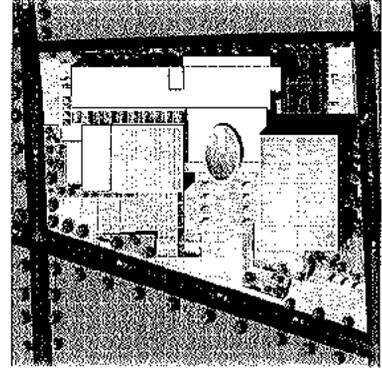
여외공면장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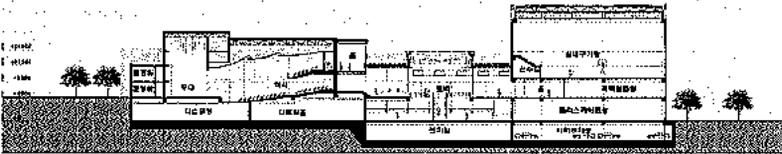
정면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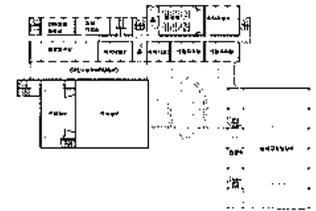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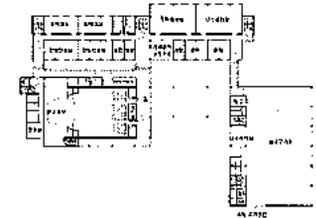
남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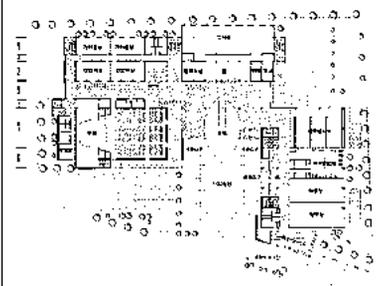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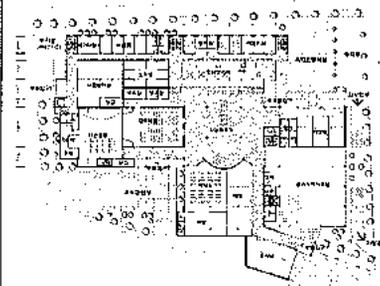
4층 평면도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부지전면의 일방통행도로(10m)는 학생들의 통행량이 특히 많은 곳으로, 많은 청소년들의 자연스런 시설 접근이 예상된다.

배치계획의 주안점

- 기존시설과 신축건물의 효율적인 연계가 되도록 한다. (기존건물에 면한 중앙로비를 중심으로 공연/체육시설의 계획)
- 협소한 전면도로와 계획시설간에 상호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한다. (전면도로로 열려있는 야외공연장 등 옥외공간을 구성함으로써, 협소한 도로로부터의 개방감 부여는 물론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 대지의 레벨 차를 이용한 시설 배치 및 동선계획(2층 데크를 이용한 주 진입광장(Plaza)구성과 1층 가로공원으로부터의 자연스런 시설진입 계획)

평면계획

- 1층 : 중앙 만남의 광장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놀이시설(인터넷 카페, 오락실, 롤러스케이트 등) 및 야외공연장과 연계된 다목적 집회시설, 식당/매점 등 지원시설을 집중 배치하여, 청소년들의 활력 넘치는 놀이문화공간 및 다목적 행사공간이 되도록 한다

- 2층 : 1층의 놀이공간과는 별도로 전면의 진입광장(Plaza)을 통한 중앙로비를 중심으로 공연/전시 및 체육시설이 상호 독립적이면서 효율적인 연계가 가능토록 구성되어 있다. 체육시설의 경우, 각종 체육행사를 고려하여 외부광장에서의 직접 출입도 가능하도록 하고, 특히 중앙의 타원형 오픈닝은 1층 만남의 광장까지 햇빛을 끌어들이기 위해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다.
- 3~4층 : 기존 건물(정보/문화시설)과 길게 접해있는 공연시설 간에는 아트리움을 형성함으로써 채광 확보 및 휴게공간을 구성하는 등 건축적 풍요로움은 물론 기존건물과 신축건물간의 간결한 구조적 해결이 가능토록 하였다.

한국과학기술원 종합
네트워크 강의동

Network Lecture Hall, KA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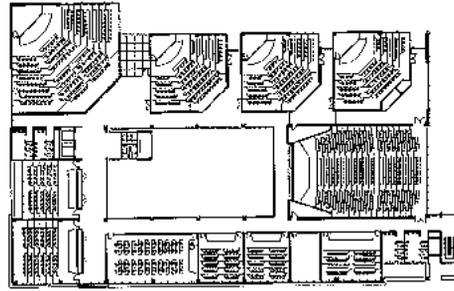
▶당선작 / (주)간·삼중합건축사
사무소(김자호 + 김태
집)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23
번지(KAIST 캠퍼스내)
대지면적 약 1,400평
연면적 10,206.57㎡
건축면적 3,028.55㎡
주용도 교육연구시설
층수 지하1층, 지상5층
구조종별 철근콘크리트조
주요의장재 회강석 / 질러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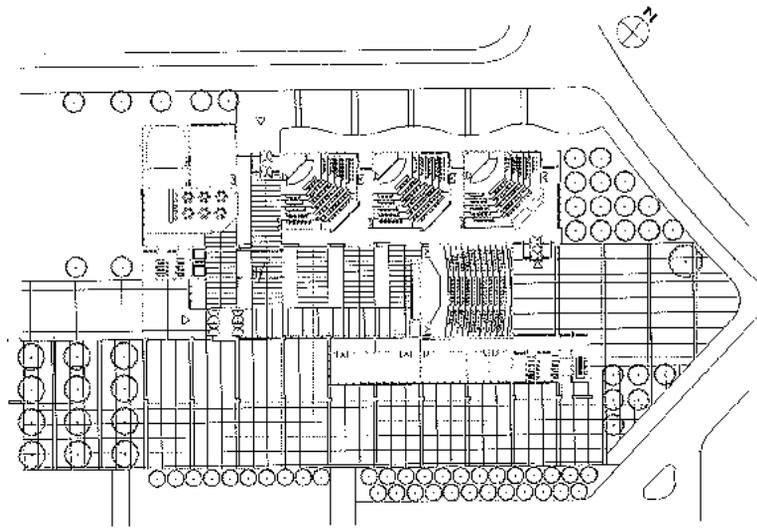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보다 많은
정보화 분야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
으며, 행정 전산화 및 학사관리 시스템
구축은 이제 보편화 되어가고 있다.
향후 21세기는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

한 재택교육, 화상교육, 멀티미디어 교
육 환경 등 많은 질적인 변화가 예상되
어 가고 있다.
따라서 먼저 대학의 특성에 맞는 평가
모형을 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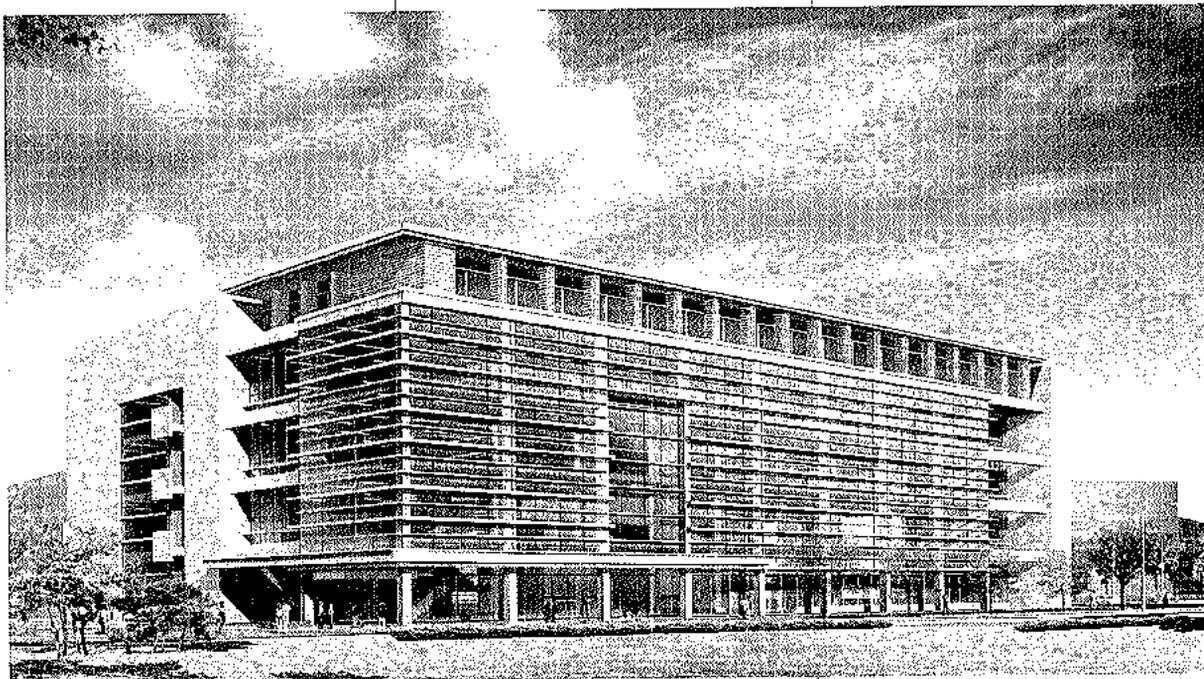
템 구축의 제안을 통하여 한국과학기술
술원이 타 대학과 차별화 및 21C를 준
비하는 최첨단 정보대학으로서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비전을 제시
하고자 한다.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봉화군청사

Bonghwa County Office

▶ 당선작 / (주)구간건축 + (주)합동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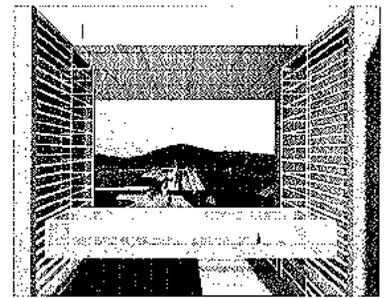
| | |
|------|--|
| 설계팀 | 정현화, 이한중, 임영수, 박기원, 정영욱, 홍만식, 정혜진(구간건축), 권태식, 윤태식, 류문대, 최재현, 윤중해(합동건축) |
| 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호저리 산1번지 외 7필지 |
|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
| 주요용도 | 공공업무시설 (공공의 청사) |
| 대지면적 | 72,592 m ² |
| 건축면적 | 4,140 m ² |
| 연면적 | 10,343 m ² |
| 조경면적 | 30,799 m ² |
| 건폐율 | 5.7 % |

| | |
|------|---------------------------|
| 용적률 | 10.42 % |
| 주차대수 | 217 대 |
| 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 내부마감 | 바닥/비닐타일, 벽/수성페인트, 천정/암면텍스 |
| 외부마감 | 알미늄쉬트, 칼리복층유리, 노출 콘크리트 |
| 발주처 | 봉화군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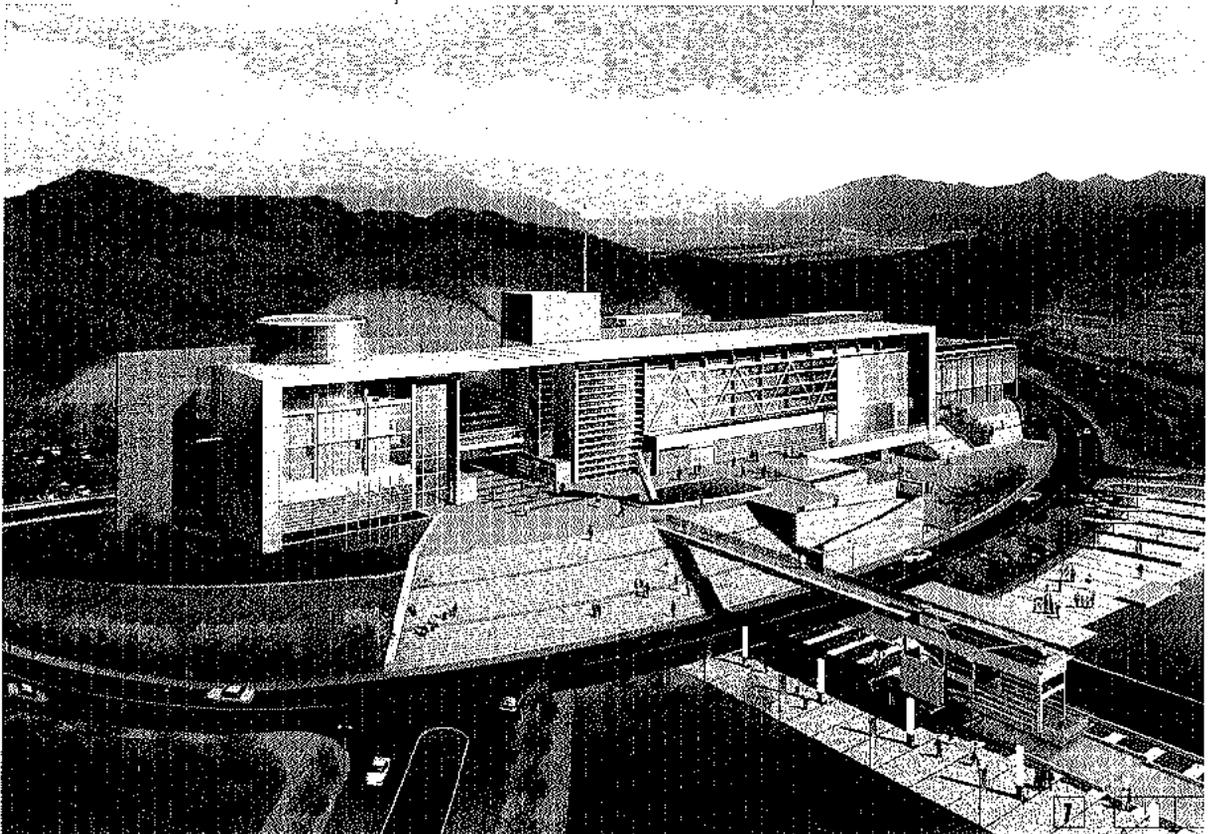
지역성과 풍토성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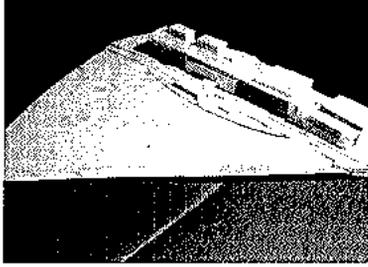
대백산맥과 소백산맥이 갈라지는 죽령을 넘으면 낙동강이 시작되는 감추어진 오지 속에 봉화군이 있다. 집이 서는 장소가 오지라 함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단점이기도 하지만 건축적 컨텍스트에서 보면 오히려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 장점이기도 하였다. 그 땅에는 맑은 공기와 하늘, 아름다운 산과 숲, 더럽혀지지 않은 물과 마을이 있었다. 그곳에는 곳곳에 은둔된 우리네들의 정서들과 소박함들이 자연풍광 속에 그대로 살아있었다. 자연스러움으로

가득한 오지의 아름다운 풍토를 현대적 건축 행위를 통하여 우리 손으로 훼손해야하는 괴로움도 있었지만, 주어진 조건 속에 그 지역의 자연과 풍토성을 추상화시키면서 그것을 현대적 건축언어와 어떻게 융합시킬 수 있을까가 중요한 과제였다. 우리가 고민하였던 것은 적합한 프로그램적인 봉화군의 공공업무시설의 제안이라기보다는, 오염되지 않은 자연과 풍토성을 어떻게 끌어들이고, 모으고, 추상화시켜서, 중심적시설이 열악한 이 지역에 열린 공공의 상징적인 장소로서 승화시키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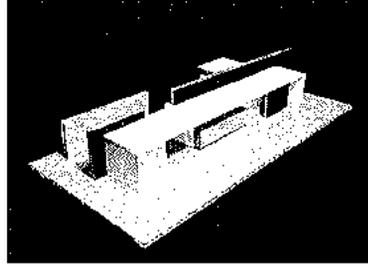


주출입구의 콘코스에서 봉화읍내의 용골산의 정상을 바라보며 군청사와 의뢰도 진언한다.





초기대안의 스테디 모델



초기대안의 이미지 모델



최종안 스테디 모델

땅의 성질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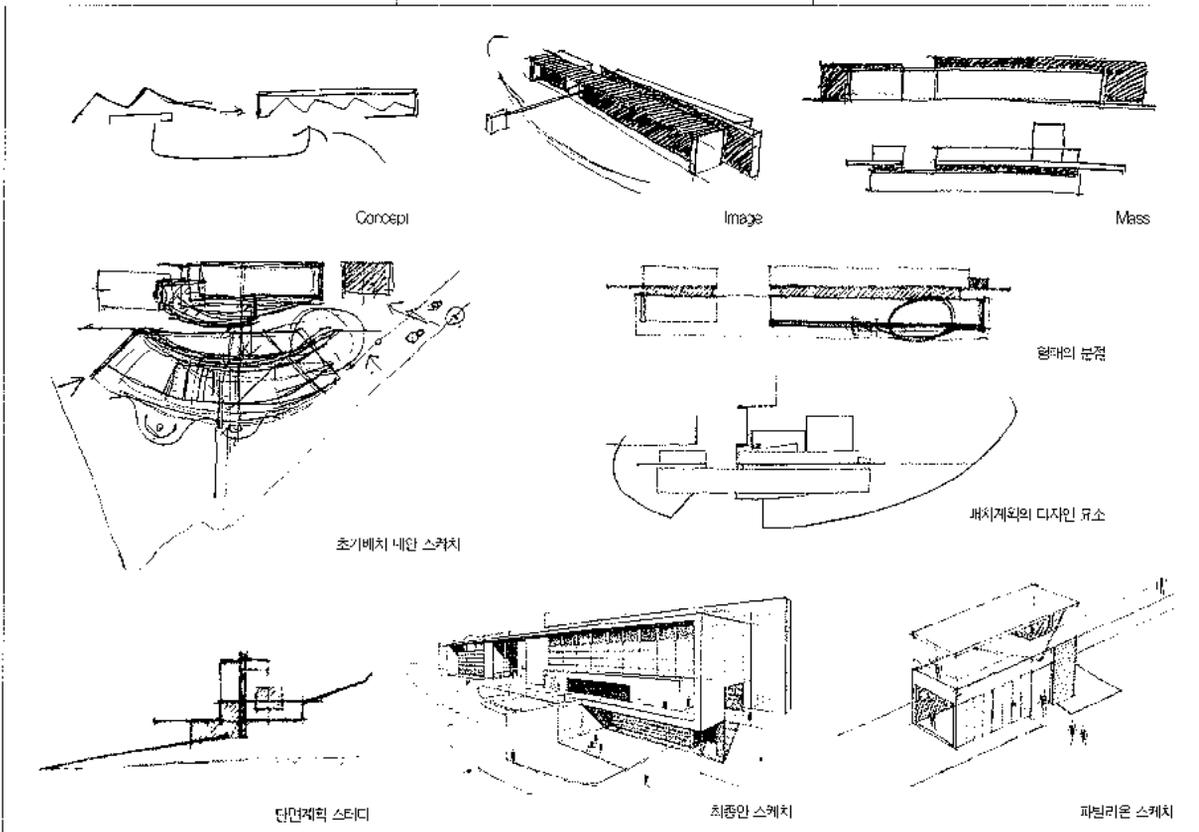
대지는 마을과 꽤 떨어진 마을 초입 언덕 위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민들에게 가장 편리해야 할 공공 시설이 마을 중심과 격리되어 있다는 특수한 상황이 문제점의 하나였다. 또한 사전 대지정지작업에 의해 땅의 형상과 컨택스트는 이미 많은 부분 훼손된 곳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충실하게 보완해 가는 땅의 해석을 하여야만 했다. 커다란 곡선의 기단의 제안은 그 방법 중에 하나였다. 땅이 갖고 있는 경사를 몇 개의 레벨의 마당으로 구분하여 접근의 시퀀스를 생성하고, 진입의 마당, 자연의 마당, 축제의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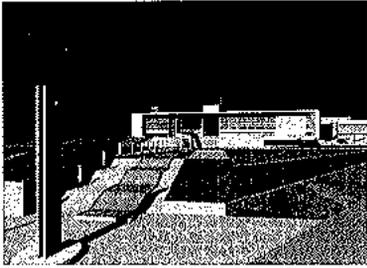
당, 수공간의 캐스케이드, 현대화시킨 정자 등을 적절히 배치하였다. 마을중심과 격리된 거리를, 열려진 몇 개의 레벨처를 갖는 마당이라는 관입의 옥외공간과 어프르치의 시퀀스를 제공하여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려고 노력하였다. 옥외 편의시설은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쉬고, 즐기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청사의 남측전면에 대부분을 배치시켰으며, 옥외주차장은 옥외편의시설 구역과 분리시켜 청사 북측에 현관과 같은 레벨에 두어 승하차, 현관에의 진입 등에는 편리하게면서도 시각적으로는 청사의 남측진입의 주파사드와 주차장풍경과의 간섭을 배제시켰다.

이 건물의 시각적 접근은 남쪽에서 청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북측에서 진입하여 남측의 소백산자락에 둘러싸인 봉화의 상징인 호골산과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들어오는 시각적 접근의 방법을 택한 것이 특색이다. 이 축이 땅의 성질에 의한 청사의 메인 축이다. 모든 시각적 이동은 이 축을 따라서 직교 내지는 평행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형태의 질제에 대해

자연스러운 대지의 특성에 대해 단정한 질서를 갖는 현대적 건축물로서 그 자연에 대응하는 디자인을 택했다. 대





응이라함은 서로 다름을 이야기함은 아니다. 부드러운 자연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명쾌한 건축의 선과 면들로 자연을 구획하고, 구획된 곳에 각각의 자연을 생성하고 리얼리티를 만들어내는 대비를 뜻함이다. 현대적 선과 면에 따른 극단적인 자연과의 대립을 통해 자연을 더욱 자연스럽게 느끼게 하는 역설적 방법은 없을까를 두고 고민하였다. 이러한 대비에 의해 땅은 더욱 부드럽게 숲과 산과 하늘이라는 자연으로 이어져 가면서 대지를 확장시키고, 길게 뻗은 캐노피와 날개벽을 가진 건물은 명쾌한 스카이라인을 생성하면서 맑은 하늘과 산이라는 자연과 이성적으로 접하게 된다. 이 집에는 덩어리 메스로 느껴지는 부분을 배제하고 선과 면으로 공간들을 나누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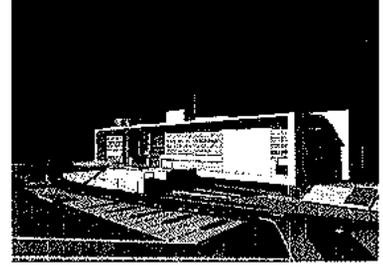
자치단체청사 설계에서 항상 고민하게 하는 청사동과 의회동의 대립적 위치 관계는 기능적으로는 2동으로 분리시키면서 메스로서는 긴 캐노피에 의해 일체화시켰다. 2개의 동은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절제 통일시키면서 청사동과 의회동에 약간의 외관의 상징적 특징만 부여하였다. 그리고 청사동과 의회동의 두 메스의 사이에 하늘의 변화를 끌어들이는 사각으로 구획된 허공의 공간을 만들었다. 무수한 자연의 변화를 가두어줄 이 빈 공간은 봉화군청의 대문이 될 것이며, 이 상징적 게이트를 통하여 남쪽의 양광의 햇빛과 호골산과 소백산맥의 산허리와 사시사철 바뀌는 봉화의 맑은 하늘을 보고 접근하게 될 것이다. 시각적으로 열린 이 파사드에 끌어들이는 대상은 봉화군의 아름다운 자연인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프로젝트가 의도한 봉화의 상징성인 것이다. (정현화/구간건축)

지역공동체의 중심

현대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역 중심적인 공동체적 사회구조에서 개인주의적인 이익사회구조로 변모되어 가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때로는 과거로 회귀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은 생각을 하기도 한다. 현대의 도시인들이 느끼는 신중 자괴의식은 이러한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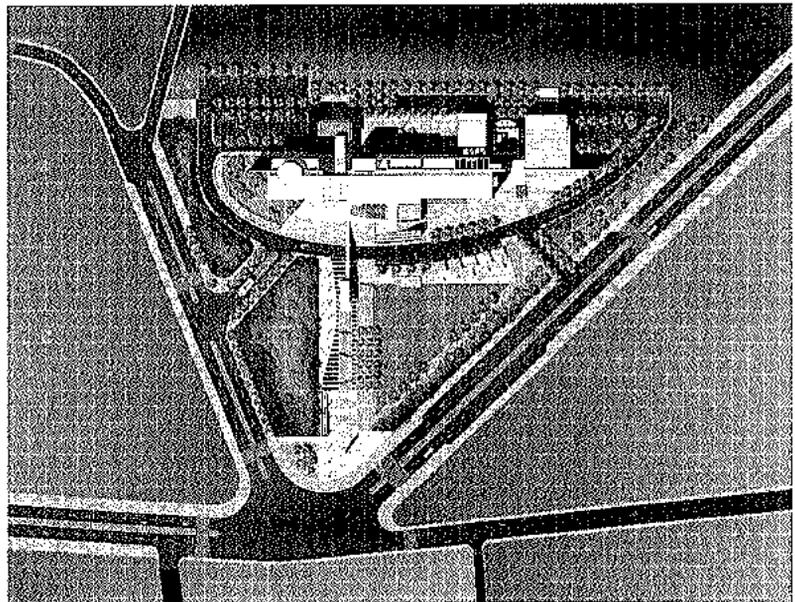
체성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명절 때 고향으로 가는 길은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고향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힘들어져 가고 있다. 그 이유는 지역공동체의식이 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건축의 목적은 형태의 유희가 아니고 생각한다. 건축은 인간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정신적 모순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건축의 장소로서 해결하는 사회적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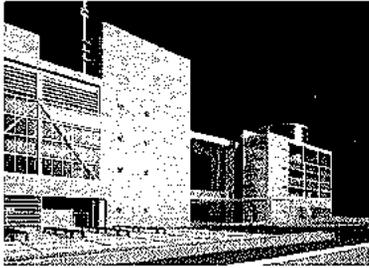
북측입면도



동측입면도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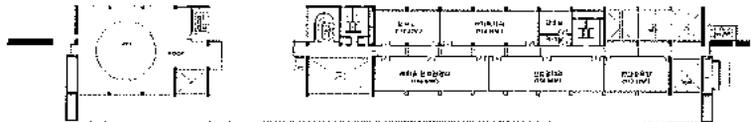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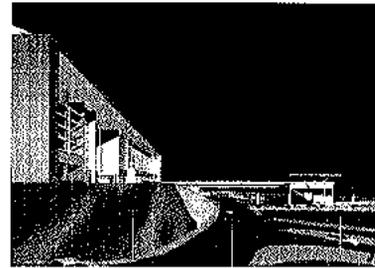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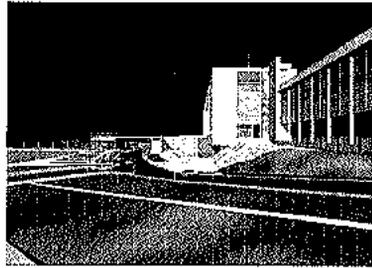
그 건물이 새로 생겨나서 새로운 액티비티가 생겨나고,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나아가 인간사회의 질을 높이는 것이 건축의 본질이 아닐까.

봉화군청사는 이런 점에서 볼 때 형태적 의미보다는 봉화군이라는 지역공동체의 성격과 그 지역의 문화를 어떻게 수용하였는가가 자연 속에 앉혀지는 것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설계조건이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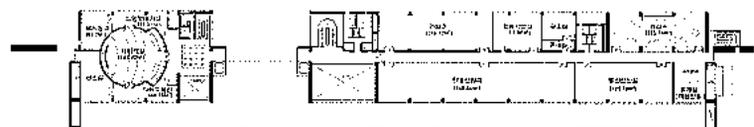
연면적에 비하여 대지가 넓기 때문에 외부공간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하였는데, 이 오픈스페이스들은 기존의 지역문화행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성격이 분명한 몇 개의 공간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에도 열리고 있는 봉화 송이버섯축제 등 봉화군의 각종 토속적인 축제가 신청사의 축제광장과 남측 잔디광장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새로운 지역공동체의식이 싹트기를 기대해 본다. 군청내의 일부 시설들은 군민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옥외 공간과 연결된 지하1층 동측으로 집중 배치하였다. 여기에는 식당, 매점, 야외 카페테리아, 체력단련실, 이발소 등이 있는데 특별한 시설이 없는 봉화읍내에서는 그 의미가 새로울 수 있다.

군청에서 친구와 만나는 약속을 할 정도로 군청이 친숙해지고, 여기에서 가족들과 자유롭게 휴식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행정기관으로서의 관공서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지역사회의 중심에서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하는 관공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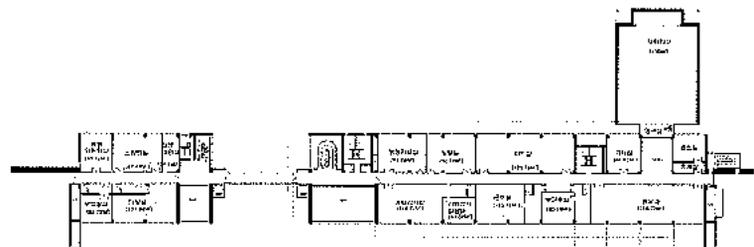
(이한중/공간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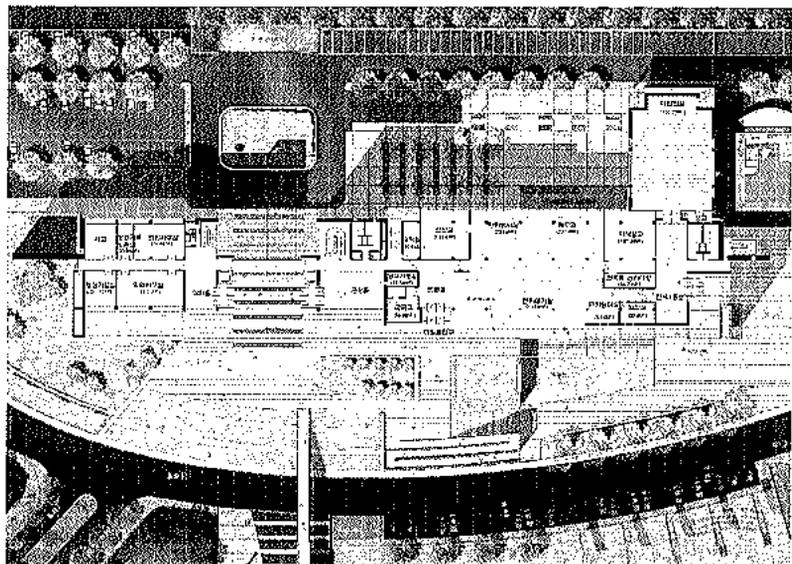
4층 평면도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정보통신부 무주수련원

Muju Training Facility

정보통신부에서는 지난 2000년 11월 전북 무주군 부남면에 위치한 무주수련원 신축공사를 위해 상징성있는 건물건립과 설계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설계경기를 실시하였다. 이 설계경기는 180,397㎡ 대지면적에 부대시설인 운동장, 테니스장, 배구장, 족구장, 야외휴게공간과 토목공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설계경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에 의거 디자인공모(일반공개공모)에서 당선된 자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 당선작에는 씨앤씨건축사사무소(구본창)안이 선정됐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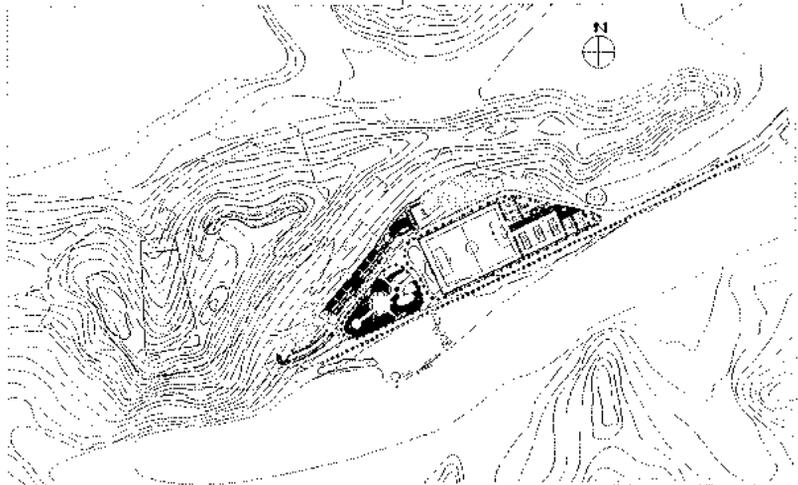
우수작에는 (주)건테크건축사사무소(박하전)안이, 가작에는 (주)명성건축사사무소(성순백)안이 각각 선정됐다.

▶ 당선작 / 씨앤씨건축사사무소 (구본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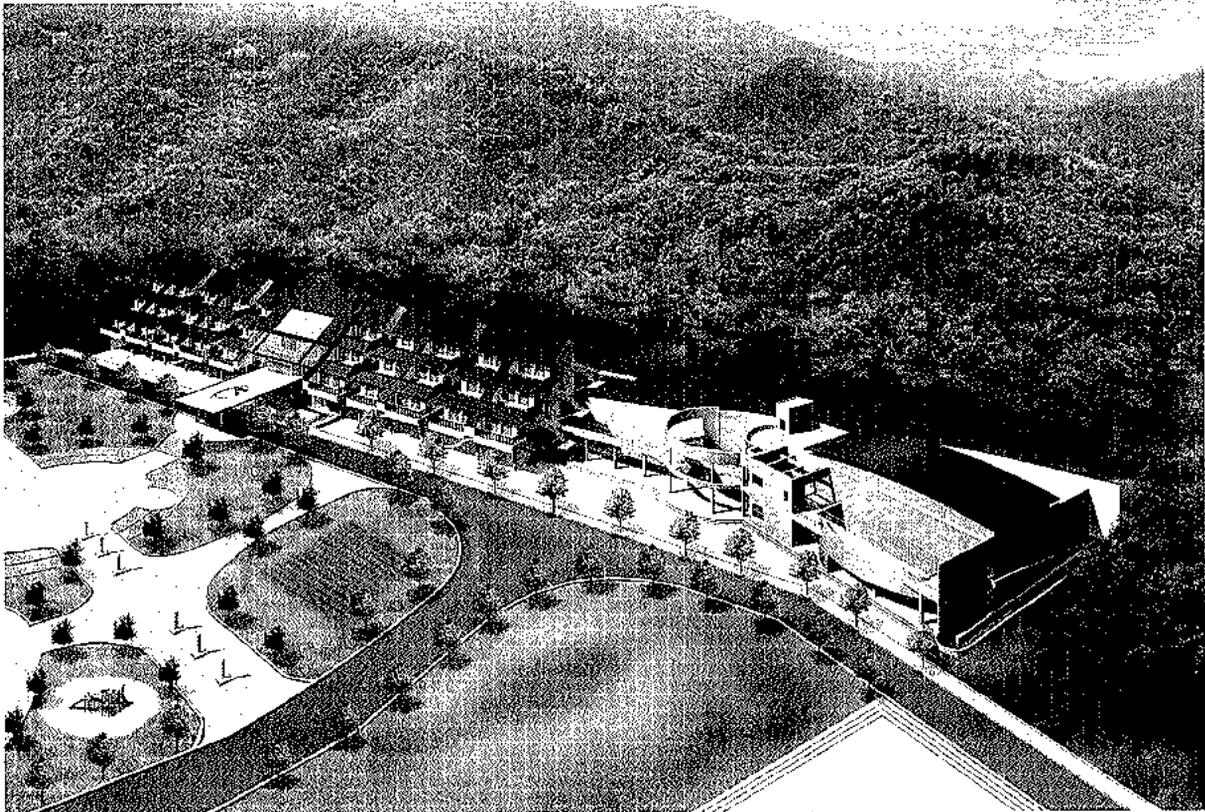
대지위치 전북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152-1외 81필지
 지역지구 준농림지역
 용도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180,097㎡
 건축면적 2,548.93㎡
 연면적 3,421.4㎡
 건폐율 1.37%
 용적률 1.9%
 규모 지상 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설계참여 박정훈, 강중서, 손태진

대지면적 180,097㎡의 광활한 자연 속에 객실 30개, 연면적 1,000여평의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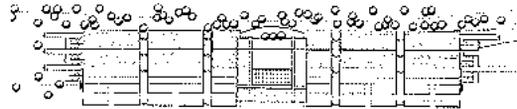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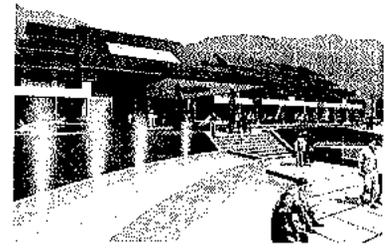


정보통신부 우주수련원 시설이다. 증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에 약 12,000평의 시설에 대한 증축가정을 마스터플랜(Master Plan)상으로 계획했어야 했다. 즉, 증축이 되었을 때, 그렇지 않을 때도 금번 프로젝트가 대지와 부합되는 계획안이 필요했다. 그리고 부대복리시설로 운동장, 테니스장, 배구장 등이 요구 되었다. 금강변에 자리한 대지는 자연환경이 수려하여 조용히 심신수련의 장으로 손색이 없는 것이었지만, 실제 가용대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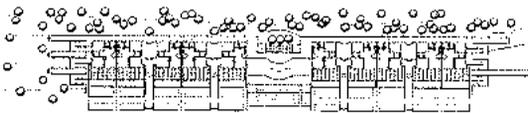
1차 가용지인 평지에 대규모 운동시설을 배치하고, 완경사지인 2차 가용지에 건물군을 배치함으로써 조망에 대한 레벨을 해결하고, 레저시설군들을 정상부쪽의 3차 가용지로 지형을 이용하였다. 자연환경이 우수한 대지위에 친인간, 친자연, 친환경적인 공간계획을 함으로서 대자연에 순응하고 조화되는 친근한 장을 만들고자 하였다. 가급적 자연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테라스 하우스(Terrace House)형태의 입단면을 계획하였다.

이것은 대자연의 경관속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각 실별로 대규모 테라스 공간의 연출을 가능하게 했으며, 질토랑을 줄임으로서 토목공사비의 절감을 꾀하였다. 즉, 등고선과 나란한 입면 및 조형을 계획하고 전통건축의 디자인요소를 도입함으로써 대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심신수련의 장으로서 휴식과 포근함, 쾌적함과 편안함 등을 연출하기 위한 친인간, 친자연, 친환경이 이번 프로젝트의 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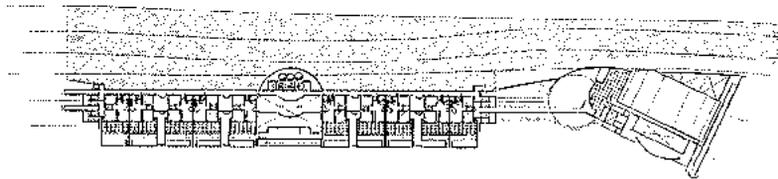
완공이 되는 그날 이러한 주제들이 반영된 아름다운 건축물이 태어나기를 바란다. 진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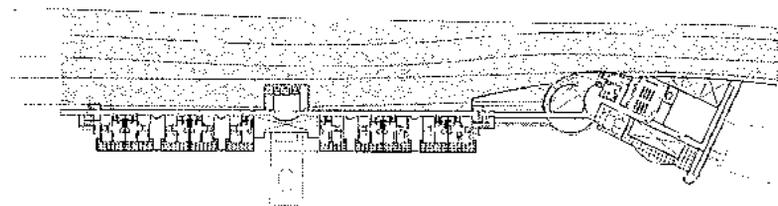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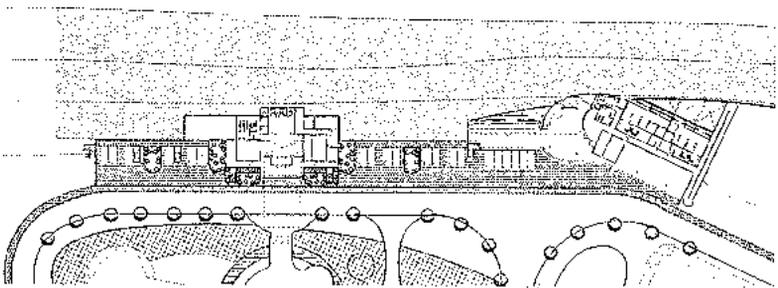
4층 평면도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단면도

▶ 우수작 / (주)건테크 건축사사
무소 (박하진)

| | |
|------|--|
| 연면적 | 3,446.28㎡ |
| 건축면적 | 1,498.71㎡ |
| 건폐율 | 0.83% |
| 용적률 | 1.64% |
| 주요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 기초 | 독립기초+매트기초 |
| 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
| 용도 | 숙박시설 |
| 객실수 | 30실 |
| 최고높이 | 25m |
| 주차대수 | 법정/15대, 계획/38대(장애자 주차 2대 포함) |
| 외장재료 | 지붕 - 컬러 아스팔트싱글 외벽 - T24 화강석버너구이,스 튼스프레이 창호 - T105 컬러알미늄바, T18 복층유리 외부바닥 - 아스콘포장(차도) / 고압블럭(보도) |
| 설계팀 | 김재영, 김삼철, 임성민, 강영필, 김순정, 손승용, 강성현(CG) |

실개념

계획의 원칙

- 대지 전면부를 넓게 개방하여 조망권 노출/인지성 부여
- 기존 지형에 순응한 배치형태로 친환경적 유연성 부여
- 효율적인 기증적 분화와 결합이 용이한 시설의 배치추구
- 장래 증설에 대한 규모 및 기능의 융통성, 적정성 부여

주요시설의 배치

- 숙박공간 : 편복도 계획에 의한 조망권, 쾌적성 확보

- 관리공간 : 관리, 통제가 용이한 시설의 집중화 추구

- 연수 및 공용공간 : 독자적인 기능성 발휘와 독립성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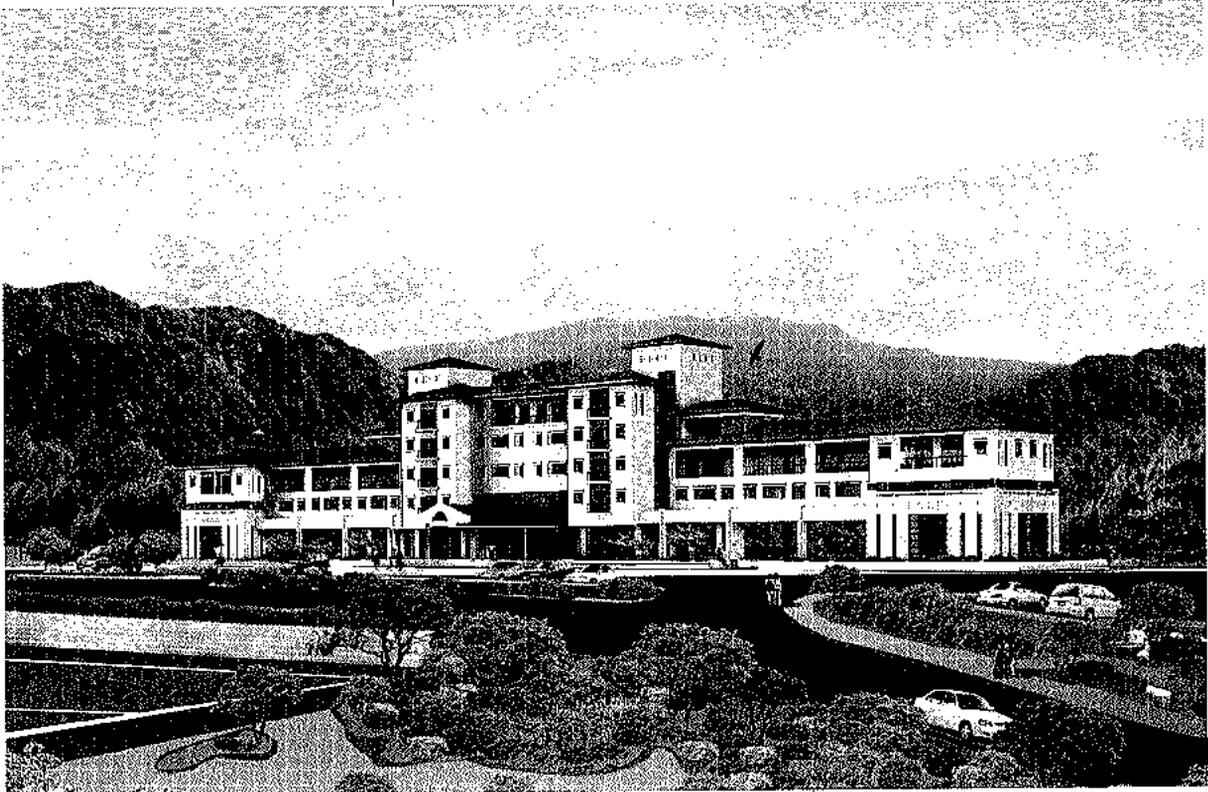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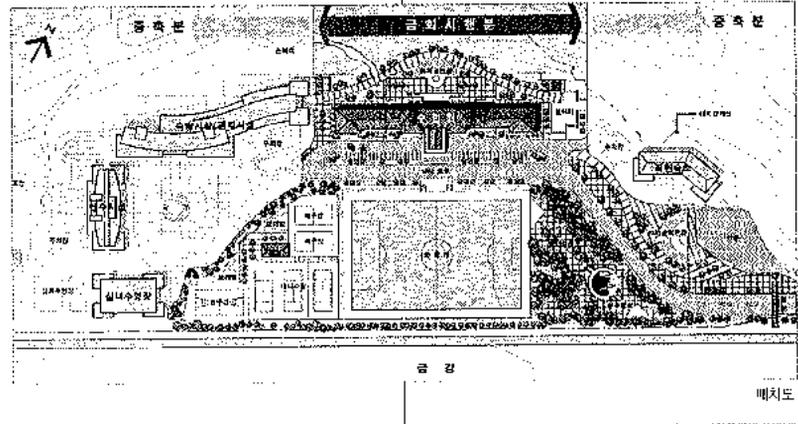
- 운동/체육시설 : 접근성, 이용성, 효율성 추구

- 조경/녹지공간 : 휴게, 옥외행사와 연계된 안락한 공간추구

- 주차공간 : 각 시설 간의 여유공간에 지상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

평면계획의 개념

- 객실
- 3bay형 객실 : 채광, 환기, 조망, (시



야)조건을 극대화한 3bay형 평면 제시 (총26실)

- 2bay형 객실 : 단체객 또는 VIP 방문에 의한 넓은 거실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가변형 평면 제시(총4실)

• 로비/휴게실

- 건물 중앙부에 로비,관리실을 두어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기함

- 로비상부를 OPEN하여 개방감,구심적인 장소성을 부여

- 휴게실,매점,인터넷 코너 등을 측부에 설치

• 회의실

- 다른 시설과 독립시켜 소음,동선상의 혼선이 없도록 계획

- 전실을 두어 휴게 및 준비공간을 둠

- 넓은 회의실 공간은 다른 기능실로 전환이 가능토록 계획

• 노래방

- 상기 회의실과 같이 독립시켜 소음의 외부전파를 극소화 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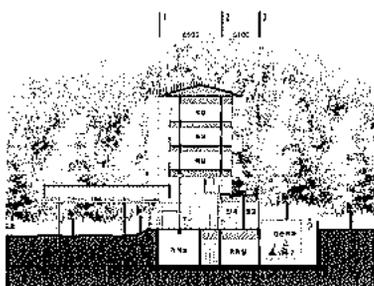
- 전실을 두어 소음 차단은 물론 휴게 관리공간으로 활용

- 내부에 경량 칸막이 사용으로 다용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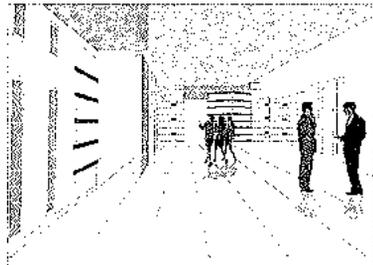
• 목욕탕

- 지하층에서의 불리한 채광,환기 조건을 극소화하기 위해 SUNKEN GARDEN을 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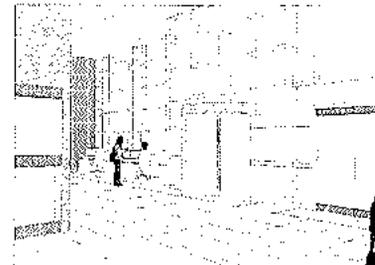
- 외부 SUNKEN GARDEN으로 부터의 진입을 가능토록 계획



외관도



1층 로비터 존경



로비에서 바라본 인터넷 코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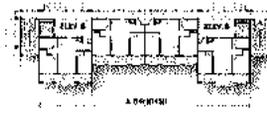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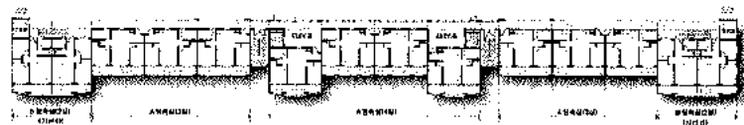
모형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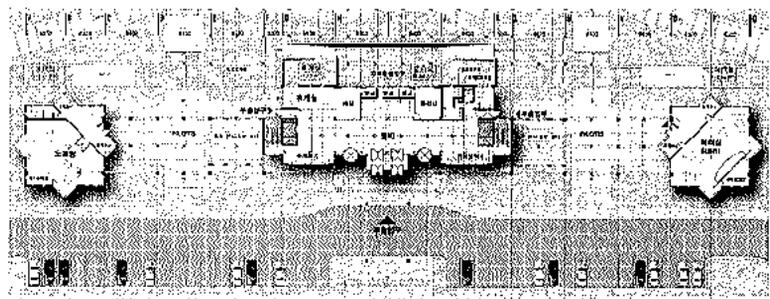
4층 평면도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도시계획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
규칙중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 270 호
(2001. 1. 17)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중 "6층이상의 건축물"을
"건축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중 "공동주택(기숙
사를 제외한다)"을 "공동주택"으로 한
다.

제20조 본문중 "건축물"을 "건축물 또
는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하
고, 동조제2호중 "건축물의구조기준
등에관한규칙 제13조"를 "건축물의구
조기준등에관한규칙 제3조"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
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
실의 바닥, 공동주택의 측벽 및 층
간 바닥,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별
표 4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이 경
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별표 4의 기
준에 의한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
재의 두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
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호 및 공동주
택의 층간 바닥을 제외한다)에는
방습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
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
항제2호중 "개방되어 있는 등"을 "개
방되어 있거나 내부에서 열이 발생함
에 따라 연중 냉방의 필요성이 있는
등"으로 한다.

1. 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
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난방 또는
냉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
축물

제22조 본문중 "제21조제4호의 기준
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
록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을 "건설교
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
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에너지의 합리적 이
용을 위한 설계기준)"을 "(건축물의
냉방설비)"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2
조·별표 5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설비기준 등에 관
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
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
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
정규정에 의한다.

(별표4)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제21조관련)

(단위 : W/m² · K, 괄호안은 단위 : Kcal/m² · h · °C)

| 건축물의 부위 | | 지 역 | | |
|----------------------------|------------------|--------------------|--------------------|--------------------|
| | | 중부지역 ¹⁾ | 남부지역 ²⁾ | 제 주 도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47이하 (0.40)이하 | 0.58이하 (0.50)이하 | 0.76이하 (0.65)이하 |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64이하 (0.55)이하 | 0.81이하 (0.70)이하 | 1.10이하 (0.95)이하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29이하 (0.25)이하 | 0.35이하 (0.30)이하 | 0.41이하 (0.35)이하 |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41이하 (0.35)이하 | 0.52이하 (0.45)이하 | 0.58이하 (0.50)이하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35이하 (0.30)이하 | 0.41이하 (0.35)이하 |
|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41이하 (0.35)이하 | 0.47이하 (0.40)이하 |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52이하 (0.45)이하 | 0.58이하 (0.50)이하 |
|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58이하 (0.50)이하 | 0.64이하 (0.55)이하 |
| 공동주택의 측벽 | | 0.35이하 (0.30)이하 | 0.47이하 (0.40)이하 | 0.58이하 (0.50)이하 |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0.81이하 (0.70)이하 | 0.81이하 (0.70)이하 | 0.81이하 (0.70)이하 |
| | 그밖의 경우 | 1.16이하 (1.0)이하 | 1.16이하 (1.0)이하 | 1.16이하 (1.0)이하 |
| 창 및 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3.84이하 (3.30)이하 | 4.19이하 (3.60)이하 | 5.23이하 (4.50)이하 |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5.47이하 (4.70)이하 | 6.05이하 (5.20)이하 | 7.56이하 (6.50)이하 |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남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6층이상의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 건축물 ----- ----- |
| 제13조(개별난방설비)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 제13조(개별난방설비) ①----- ----- 공동주택 ----- ----- |

| 현 행 | 개 정 안 |
|---|---|
| <p>적합하여야 한다.</p> <p>1. ~ 7. (생 략)</p> <p>② (생 략)</p> <p>제20조(피뢰설비)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p> <p>1. (생 략)</p> <p>2.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 <u>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풍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할 것</u></p> <p>3. ~ 6. (생 략)</p> <p>제21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①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영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접하는 바닥을 포함한다),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측벽 및 거실의 외기에 접하는 창은 그 열관류율을 별표 4에 의한 기준으로 하거나, 별표 5에 의한 단열재로 시공할 것</p> <p>2. 온수온돌로 난방을 하는 공동주택에 세대별 온수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거실바닥(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및 외기에 접하는 바닥을 제외한다)의 열관류율을 1.0이하로 하거나, 별표 5의 비고 2에 의한 단열재를 20밀리미터이상의 두께로 시공할 것</p> <p>3. ~ 4. (생 략)</p> <p>〈신 설〉</p> <p>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제주도지방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p> <p>2. 공장·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내부가</p> | <p>-----</p> <p>1. ~ 7.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0조(피뢰설비) ----- -----<u>건축물 또는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u>-----</p> <p>1. (현행과 같음)</p> <p>2. ----- -----<u>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 관한규칙 제3조</u>----- -----</p> <p>3. ~ 6. (현행과 같음)</p> <p>제21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①----- ----- ----- -----</p> <p>1. ----- -----<u>바닥, 공동주택의 측벽 및 층간 바닥,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별표 4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u>-----</p> <p>〈삭 제〉</p> <p>3. ~ 4.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 (창호 및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을 제외한다)에는 방습층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③ ----- 제1항 및 제2항 -----</p> <p>1. <u>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난방 또는 냉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u></p> <p>2. ----- ----- -----</p> |

| 현 행 | 개 정 안 |
|--|---|
| <p>항상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등 열손실방지의 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p> <p>제22조(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21조제4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1. ~ 6. (생략)</p> <p>제23조(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설계기준) ①·② (생략)</p> | <p style="text-align: center;">-----개방되어 있거나 내부에서 열이 발생함에 따라 연중 냉방의 필요성이 있는 등-----</p> <p>제22조(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p> <p style="text-align: center;">-----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p> <p>1. ~ 6. (현행과 같음)</p> <p>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①·② (현행과 같음)</p> |

도시계획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7,111호
(2001.1.27)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상업지역으로서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상업지역안의 대지에서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하도록 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건축법시행령 등의 개정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도시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동조제3항”을 “동조제2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호 및 제2호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각각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로 한다.

별표 4 제2호차목·별표 5 제2호차목·별표 6 제2호차목 및 별표 18 제2호차목중 “주유소”를 각각 “주유소·석유판매소”로 한다.

별표 8 제1호바목·별표 9 제1호아목·별표 10 제1호차목 및 별표 11 제2호바목중 “숙박시설”을 각각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8 제1호사목·별표 9 제1호자목·별표 10 제2호마목 및 별표 11 제2호사목중 “위락시설”을 각각 “위락

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7 제2호다목(2)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의3 제2항”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회원현황 members

회원변동사항(12월)

(2000. 12. 31. 현재)

| 구분 | 합계 | 서울 | | 부산 | | 대구 | | 인천 | | 광주 | | 대전 | | 울산 | | 경기 | | 강원 | | 충북 | | 충남 | | 전북 | | 전남 | | 경북 | | 경남 | | 제주 | | | |
|----------------------------|---------|-------|-------|-----|-----|-----|-----|-----|-----|-----|-----|-----|-----|-----|-----|-----|-----|----|----|----|----|----|----|----|----|----|----|----|----|----|----|----|--|--|--|
| | | 2급 | 2급 | 2급 | 2급 | 2급 | 2급 | 2급 | 2급 | 2급 | 2급 | 2급 | 2급 | 2급 | 2급 | 2급 | 2급 | 2급 | 2급 | 2급 | 2급 | 2급 | 2급 | 2급 | 2급 | 2급 | 2급 | 2급 | 2급 | 2급 | 2급 | 2급 | | | |
| 전월말 회원수 | 7,697 | 2,998 | 725 | 536 | 239 | 259 | 275 | 153 | 918 | 184 | 208 | 181 | 215 | 119 | 265 | 338 | 84 | | | | | | | | | | | | | | | | | | |
| 회 원 변 동 사 항 | 입회 | 17 | 0 | 8 | 2 | 2 | 1 | | | 3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재입회 | 8 | 1 | 1 | | 1 | | | | 4 | | | 3 | | 1 | 1 | | | | | | | | | | | | | | | | | | | |
| | 진입 | 10 | 0 | 3 | 1 | | | | | | | | 2 | 2 | | | | | | | | | | | | | | | | | | | | | |
| | 진출 | -13 | 0 | -1 | | | -2 | -1 | -1 | | -3 | -1 | -2 | | | | | | | | | | | | | | | | | | | | | | |
| | 폐업 | -23 | 0 | 6 | -4 | -1 | -1 | -2 | | | -3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망 | -3 | 0 | | | | | | | | -1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취소 | -1 | 0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월말 회원수 | 7,678 | 2,998 | 722 | 537 | 239 | 257 | 273 | 153 | 919 | 180 | 206 | 184 | 215 | 119 | 265 | 337 | 84 | | | | | | | | | | | | | | | | | |
| 계 | 7,693 | 3,002 | 722 | 537 | 239 | 257 | 273 | 153 | 919 | 180 | 206 | 184 | 215 | 120 | 265 | 337 | 84 | | | | | | | | | | | | | | | | | | |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 건축사회 | 합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건축사 | 7,678 | 2,998 | 721 | 537 | 239 | 257 | 272 | 153 | 916 | 180 | 205 | 180 | 215 | 119 | 265 | 337 | 84 |
| 회 원 | 2급 | 15 | 4 | 1 | 0 | 0 | 1 | 0 | 3 | 0 | 1 | 4 | 0 | 1 | 0 | 0 | 0 |
| | 계 | 7,693 | 3,002 | 722 | 537 | 239 | 273 | 153 | 919 | 180 | 206 | 184 | 215 | 120 | 265 | 337 | 84 |
| 비율(%) | 100.0 | 39.0 | 9.4 | 7.0 | 3.1 | 3.3 | 3.5 | 2.0 | 11.9 | 2.3 | 2.7 | 2.4 | 2.8 | 1.6 | 3.4 | 4.4 | 1.1 |
| 준회원 | 15 | 6 | 7 | 0 | 0 | 0 | 0 | 0 | 0 | 0 | 1 | 0 | 0 | 0 | 1 | 0 | 0 |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 형태별 구분 | 개인사무소 | 법인사무소 | 용역사무소 | 합계 | 비고 |
|--------|-------|-------|-------|-------|----|
| 회원수 | 5,213 | 2,461 | 19 | 7,693 | |
| 비율(%) | 67.8 | 32.0 | 0.2 | 100.0 | |
| 사무소수 | 4,725 | 1,614 | 15 | 6,354 | |
| 비율(%) | 74.4 | 25.4 | 0.2 | 100.0 | |

설계도서신고현황

2000년도 12월분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12월분(99.12) 9백3십7만3천2백69㎡ 보다 30.7%(2백8십8만1천6백13) 감소한 6백4십9만1천6백56㎡의 실적을 보임. (97년 12월의 58%)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12월 누계 6천8백5십7만3천5백7㎡ 보다 3.6%(2백5십만1천2백84) 감소한 6천6백7만2천2백23㎡의 실적을 보임. (97년 12월의 54%)

다. 전월비

전월 11월분(2000.11) 4백4십2만5백96㎡ 보다 46.9% (2백7만1천60) 증가한 6백4십9만1천6백56㎡의 실적을 보임.

전년 대비 종합평가

| 구 분 | 1999년도 | 2000년도 | 증·감 | 비율(%) | |
|---------|--------|------------|------------|-------------|-------|
| 전 년 동월비 | 건 수 | 5,201 | 5,977 | 776 | 14.9 |
| | 동 수 | 5,970 | 6,452 | 482 | 8.1 |
| | 연면적(㎡) | 9,373,269 | 6,491,656 | (2,881,613) | -30.7 |
| 전 년 동기비 | 건 수 | 43,302 | 53,534 | 10,232 | 23.6 |
| | 동 수 | 48,962 | 59,375 | 10,413 | 21.3 |
| | 연면적(㎡) | 68,573,507 | 66,072,223 | (2,501,284) | -3.6 |
| 전월비 | 구 분 | 11월분 | 12월분 | 증·감 | 비율(%) |
| | 건 수 | 4,223 | 5,977 | 1,754 | 41.5 |
| | 동 수 | 4,567 | 6,452 | 1,885 | 41.3 |
| | 연면적(㎡) | 4,420,596 | 6,491,656 | 2,071,060 | 46.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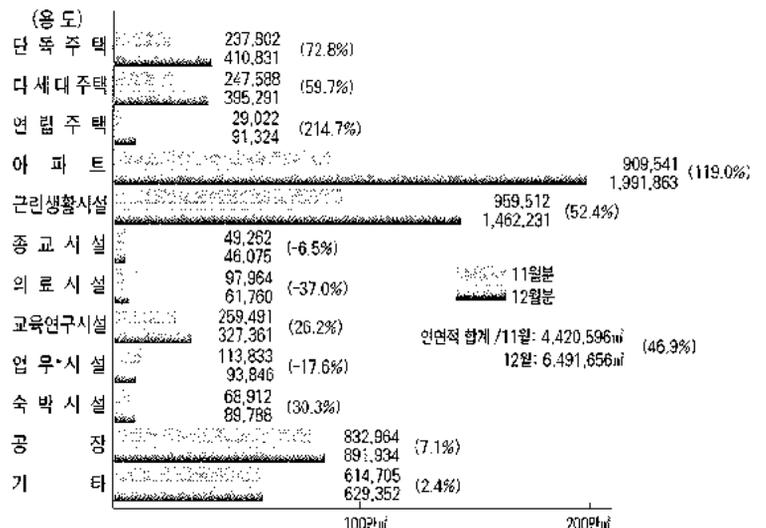
월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 월 별 | 1999년 | 2000년도 | 증·감 | 비율(%) |
|-----|------------|------------|-------------|-------|
| 1월 | 1,869,012 | 6,444,348 | 4,575,336 | 244.8 |
| 2월 | 2,521,773 | 3,889,754 | 1,367,981 | 54.2 |
| 3월 | 4,440,806 | 5,711,568 | 1,270,762 | 28.6 |
| 4월 | 6,430,067 | 6,991,301 | 561,234 | 8.7 |
| 5월 | 5,200,725 | 5,238,490 | 37,765 | 0.7 |
| 6월 | 6,443,983 | 5,661,641 | (782,342) | -12.1 |
| 7월 | 5,982,226 | 6,407,840 | 425,614 | 7.1 |
| 8월 | 5,490,412 | 4,597,407 | (893,005) | -16.3 |
| 9월 | 6,668,723 | 3,968,111 | (2,700,612) | -40.5 |
| 10월 | 7,142,224 | 6,249,511 | (892,713) | -12.5 |
| 11월 | 7,010,287 | 4,420,596 | (2,589,691) | -36.9 |
| 12월 | 9,373,269 | 6,491,656 | (2,881,613) | -30.7 |
| 합계 | 68,573,507 | 66,072,223 | (2,501,284) | -3.6 |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 구 분 | 1999년도 | 2000년도 | 증·감 | 비율(%) | | |
|------|-----------|-----------|-------------|-----------|-------------|-------|
| 증가지역 | 대 구 | 153,068 | 802,798 | 649,730 | 424.5 | |
| | 안 천 | 209,383 | 250,163 | 40,780 | 19.5 | |
| | 광 주 | 710,493 | 806,376 | 95,883 | 13.5 | |
| | 대 전 | 98,709 | 105,178 | 6,469 | 6.6 | |
| | 경 기 | 870,627 | 1,196,947 | 326,320 | 37.5 | |
| | 강 원 | 158,206 | 201,998 | 43,792 | 27.7 | |
| | 전 남 | 98,526 | 102,750 | 4,224 | 4.3 | |
| | 제 주 | 60,263 | 92,810 | 32,547 | 54.0 | |
| | 감소지역 | 서 울 | 5,126,991 | 2,111,366 | (3,015,625) | -58.8 |
| | | 부 산 | 315,478 | 106,836 | (208,642) | -66.1 |
| 울 산 | | 269,052 | 34,335 | (234,717) | -87.2 | |
| 충 북 | | 235,338 | 133,624 | (101,714) | -43.2 | |
| 충 남 | | 138,376 | 105,999 | (32,377) | -23.4 | |
| 전 북 | 387,413 | 111,663 | (275,750) | -71.2 | | |
| 경 북 | 203,830 | 85,600 | (118,230) | -58.0 | | |
| 경 남 | 337,516 | 243,213 | (94,303) | -27.9 | | |
| 합 계 | 9,373,269 | 6,491,656 | (2,881,613) | -30.7 | | |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 기준)



용도별 합계 세부현황 (2000년도 12월분)

| 구분 | 신축·기축·재축 | | | 증축 | | | 대수선 및 용도변경 | | | 합계 | | |
|--------|----------|-------|-----------|-------|-------|---------|------------|----|--------|-------|-------|-----------|
| | 건수 | 동수 | 연면적 | 건수 | 동수 | 연면적 | 건수 | 동수 | 연면적 | 건수 | 동수 | 연면적 |
| 단독주택 | 1,157 | 1,204 | 394,366 | 86 | 89 | 16,002 | 1 | 1 | 463 | 1,244 | 1,294 | 410,831 |
| 다세대주택 | 641 | 644 | 392,418 | 8 | 8 | 2,227 | 1 | 1 | 646 | 650 | 653 | 395,291 |
| 연립주택 | 31 | 32 | 90,847 | 1 | 1 | 477 | 0 | 0 | 0 | 32 | 33 | 91,324 |
| 아파트 | 118 | 220 | 1,990,118 | 2 | 2 | 1,745 | 0 | 0 | 0 | 120 | 222 | 1,991,863 |
| 근린생활시설 | 1,757 | 1,776 | 1,359,865 | 294 | 306 | 94,062 | 9 | 9 | 8,304 | 2,060 | 2,091 | 1,462,231 |
| 종교시설 | 40 | 43 | 34,588 | 23 | 25 | 10,845 | 1 | 1 | 642 | 64 | 69 | 46,075 |
| 의료시설 | 9 | 9 | 16,377 | 21 | 28 | 45,383 | 0 | 0 | 0 | 30 | 37 | 61,760 |
| 교육연구시설 | 54 | 60 | 153,782 | 104 | 113 | 171,575 | 2 | 2 | 2,004 | 160 | 175 | 327,361 |
| 업무시설 | 28 | 30 | 86,273 | 24 | 26 | 7,573 | 0 | 0 | 0 | 52 | 56 | 93,846 |
| 숙박시설 | 70 | 73 | 80,665 | 13 | 13 | 8,633 | 3 | 3 | 490 | 86 | 89 | 89,788 |
| 공장 | 381 | 451 | 555,205 | 366 | 430 | 335,232 | 2 | 2 | 1,497 | 749 | 883 | 891,934 |
| 기타 | 534 | 624 | 449,638 | 193 | 223 | 178,660 | 3 | 3 | 1,054 | 730 | 850 | 629,352 |
| 합계 | 4,820 | 5,166 | 5,604,142 | 1,135 | 1,264 | 872,414 | 22 | 22 | 15,100 | 5,977 | 6,452 | 6,491,65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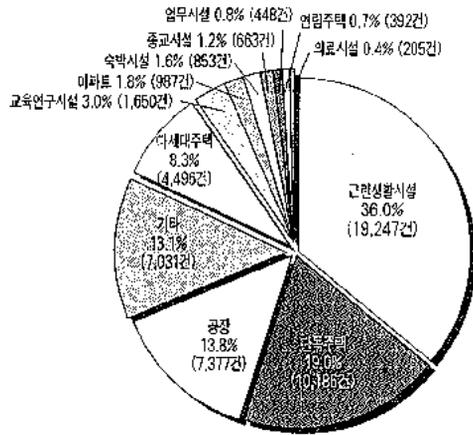
지역별 누계 세부현황 (2000년도 12월분)

| 구분 | 신축·기축·재축 | | | 증축 | | | 대수선 및 용도변경 | | | 합계 | | |
|----|----------|--------|------------|--------|--------|-----------|------------|-----|---------|--------|--------|------------|
| | 건수 | 동수 | 연면적 | 건수 | 동수 | 연면적 | 건수 | 동수 | 연면적 | 건수 | 동수 | 연면적 |
| 서울 | 5,357 | 5,401 | 22,457,419 | 1,002 | 1,007 | 2,138,427 | 0 | 0 | 0 | 6,359 | 6,408 | 24,595,846 |
| 부산 | 1,623 | 2,002 | 2,594,169 | 328 | 440 | 403,134 | 16 | 18 | 39,104 | 1,967 | 2,460 | 3,036,407 |
| 대구 | 2,785 | 2,785 | 2,502,660 | 773 | 773 | 558,294 | 36 | 36 | 23,905 | 3,594 | 3,594 | 3,084,859 |
| 인천 | 2,741 | 2,744 | 2,777,014 | 663 | 642 | 440,360 | 22 | 22 | 68,388 | 3,426 | 3,408 | 3,285,762 |
| 광주 | 1,506 | 1,870 | 1,890,056 | 461 | 601 | 298,640 | 5 | 6 | 4,327 | 1,972 | 2,477 | 2,193,023 |
| 대전 | 1,492 | 1,491 | 1,708,746 | 317 | 317 | 243,831 | 41 | 41 | 16,204 | 1,850 | 1,849 | 1,968,781 |
| 울산 | 776 | 772 | 524,133 | 242 | 245 | 174,065 | 0 | 0 | 3,123 | 1,018 | 1,017 | 701,321 |
| 경기 | 11,972 | 14,164 | 12,690,003 | 2,040 | 2,343 | 1,207,537 | 19 | 20 | 24,048 | 14,031 | 16,527 | 13,921,588 |
| 강원 | 1,762 | 1,881 | 803,097 | 409 | 469 | 186,414 | 3 | 5 | 2,228 | 2,174 | 2,355 | 991,739 |
| 충북 | 2,199 | 2,437 | 1,834,597 | 692 | 853 | 408,161 | 10 | 10 | 8,095 | 2,901 | 3,300 | 2,250,853 |
| 충남 | 1,614 | 1,614 | 971,781 | 572 | 572 | 310,804 | 45 | 45 | 23,228 | 2,231 | 2,231 | 1,305,813 |
| 전북 | 1,443 | 1,450 | 1,158,804 | 434 | 436 | 262,545 | 3 | 3 | 2,123 | 1,880 | 1,889 | 1,423,472 |
| 전남 | 1,615 | 1,655 | 1,082,463 | 444 | 462 | 215,192 | 50 | 50 | 21,609 | 2,109 | 2,167 | 1,319,264 |
| 경북 | 1,923 | 2,256 | 1,403,593 | 643 | 1,019 | 387,911 | 3 | 3 | 4,526 | 2,569 | 3,278 | 1,796,030 |
| 경남 | 3,189 | 3,768 | 2,876,334 | 798 | 983 | 465,537 | 1 | 1 | 2,807 | 3,988 | 4,752 | 3,344,678 |
| 제주 | 1,257 | 1,420 | 762,624 | 208 | 243 | 90,163 | 0 | 0 | 0 | 1,465 | 1,663 | 852,787 |
| 합계 | 43,254 | 47,710 | 58,037,493 | 10,026 | 11,405 | 7,791,015 | 254 | 260 | 243,715 | 53,534 | 59,375 | 66,072,22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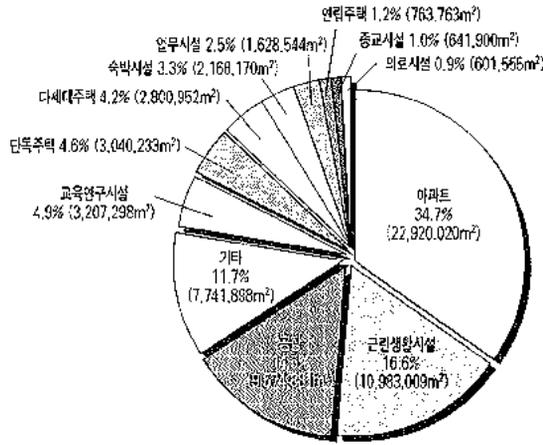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 (2000년도 12월분)

| 구분 | 1999년 | | | 2000년 | | | 대 비 | | | 연면적 비율(%) | 비 고 |
|--------|-------|-------|-----------|-------|-------|-----------|-------|-------|-------------|-----------|----------|
| | 건수 | 동수 | 연면적 | 건수 | 동수 | 연면적 | 건수 | 동수 | 연면적 | | |
| 단독주택 | 769 | 843 | 203,278 | 1,244 | 1,294 | 410,831 | 475 | 451 | 207,553 | 102.1 | |
| 다세대주택 | 268 | 279 | 152,932 | 650 | 653 | 395,291 | 382 | 374 | 242,359 | 158.5 | |
| 연립주택 | 60 | 42 | 114,301 | 32 | 33 | 91,324 | (28) | (9) | (22,977) | -20.1 | |
| 아파트 | 136 | 308 | 5,405,369 | 120 | 222 | 1,991,863 | (16) | (86) | (3,413,506) | -63.2 | |
| 근린생활시설 | 1,922 | 2,027 | 1,036,054 | 2,060 | 2,091 | 1,462,231 | 138 | 64 | 426,177 | 41.1 | |
| 종교시설 | 81 | 83 | 57,146 | 64 | 89 | 46,075 | (17) | (14) | (11,071) | -19.4 | |
| 의료시설 | 31 | 31 | 151,768 | 30 | 37 | 61,760 | (1) | 6 | (90,008) | -59.3 | |
| 교육연구시설 | 229 | 253 | 366,040 | 160 | 175 | 327,361 | (69) | (78) | (38,679) | -10.6 | |
| 업무시설 | 55 | 61 | 110,681 | 52 | 56 | 93,846 | (3) | (5) | (16,835) | -15.2 | |
| 숙박시설 | 70 | 72 | 95,126 | 86 | 89 | 89,788 | 16 | 17 | (5,338) | -5.6 | |
| 공장 | 745 | 968 | 793,872 | 749 | 883 | 891,934 | 4 | (85) | 98,062 | 12.4 | |
| 기타 | 835 | 1,003 | 886,702 | 730 | 850 | 629,352 | (105) | (153) | (257,350) | -29.0 | |
| 합계 | 5,201 | 5,970 | 9,373,269 | 5,977 | 6,452 | 6,491,656 | 776 | 482 | (2,881,613) | -30.7 | ()=마이너스 |

용도별 구성비 (2000년 12월 누계분)



건수 (총 53,534건)



연면적 (총 66,072,223m²)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현황 (2000년 12월분)

| 구분 | 1999년 | | | 2000년 | | | 대 비 | | | 연면적 비율(%) | 비 고 |
|----|-------|-------|-----------|-------|-------|-----------|-------|-------|-------------|-----------|----------|
| | 건 수 | 동 수 | 연면적 | 건 수 | 동 수 | 연면적 | 건 수 | 동 수 | 연면적 | | |
| 서울 | 746 | 747 | 5,126,991 | 740 | 743 | 2,111,366 | (6) | (4) | (3,015,625) | -58.8 | |
| 부산 | 284 | 365 | 315,478 | 39 | 40 | 106,836 | (245) | (325) | (208,642) | -66.1 | |
| 대구 | 270 | 270 | 153,068 | 1,036 | 1,036 | 802,798 | 766 | 766 | 649,730 | 424.5 | |
| 인천 | 201 | 209 | 209,383 | 383 | 383 | 250,163 | 182 | 174 | 40,780 | 19.5 | |
| 광주 | 482 | 695 | 710,493 | 398 | 543 | 806,376 | (84) | (152) | 95,883 | 13.5 | |
| 대전 | 184 | 184 | 98,709 | 196 | 196 | 105,178 | 12 | 12 | 6,469 | 6.6 | |
| 울산 | 140 | 156 | 269,052 | 50 | 49 | 34,335 | (90) | (107) | (234,717) | -87.2 | |
| 경기 | 926 | 1,113 | 870,627 | 1,418 | 1,568 | 1,196,947 | 492 | 455 | 326,320 | 37.5 | |
| 강원 | 209 | 219 | 158,206 | 486 | 534 | 201,998 | 277 | 315 | 43,792 | 27.7 | |
| 충북 | 279 | 355 | 235,338 | 199 | 229 | 133,624 | (80) | (126) | (101,714) | -43.2 | |
| 충남 | 192 | 192 | 138,376 | 136 | 136 | 105,999 | (56) | (56) | (32,377) | -23.4 | |
| 전북 | 367 | 367 | 387,413 | 139 | 139 | 111,663 | (228) | (228) | (275,750) | -71.2 | |
| 전남 | 175 | 180 | 98,526 | 131 | 134 | 102,750 | (44) | (46) | 4,224 | 4.3 | |
| 경북 | 299 | 349 | 203,830 | 147 | 203 | 85,600 | (152) | (146) | (118,230) | -58.0 | |
| 경남 | 347 | 459 | 337,516 | 315 | 339 | 243,213 | (32) | (120) | (94,303) | -27.9 | |
| 제주 | 100 | 110 | 60,263 | 164 | 180 | 92,810 | 64 | 70 | 32,547 | 54.0 | |
| 합계 | 5,201 | 5,970 | 9,373,269 | 5,977 | 6,452 | 6,491,656 | 776 | 482 | (2,881,613) | -30.7 | ()=마이너스 |

지역별 전년동기대비 현황 (2000년 12월 누계분)

| 구분 | 1999년 | | | 2000년 | | | 대 비 | | | 연면적 비율(%) | 비 고 |
|----|--------|--------|------------|--------|--------|------------|--------|--------|--------------|-----------|----------|
| | 건 수 | 동 수 | 연면적 | 건 수 | 동 수 | 연면적 | 건 수 | 동 수 | 연면적 | | |
| 서울 | 5,558 | 5,581 | 35,986,179 | 6,359 | 6,408 | 24,595,846 | 801 | 827 | (11,390,333) | -31.7 | |
| 부산 | 2,017 | 2,900 | 2,013,694 | 1,967 | 2,460 | 3,036,407 | (50) | (440) | 1,022,713 | 50.8 | |
| 대구 | 2,083 | 2,083 | 1,998,159 | 3,594 | 3,594 | 3,084,859 | 1,511 | 1,511 | 1,086,700 | 54.4 | |
| 인천 | 1,478 | 1,527 | 2,698,652 | 3,426 | 3,408 | 3,285,762 | 1,948 | 1,881 | 587,110 | 21.8 | |
| 광주 | 1,805 | 2,358 | 2,417,471 | 1,972 | 2,477 | 2,193,023 | 167 | 119 | (224,448) | -9.3 | |
| 대전 | 1,132 | 1,132 | 693,372 | 1,850 | 1,849 | 1,968,781 | 718 | 717 | 1,275,409 | 183.9 | |
| 울산 | 1,145 | 1,174 | 943,555 | 1,018 | 1,017 | 701,321 | (127) | (157) | (242,234) | -25.7 | |
| 경기 | 10,095 | 12,202 | 10,569,921 | 14,031 | 16,527 | 13,921,588 | 3,936 | 4,325 | 3,351,667 | 31.7 | |
| 강원 | 2,110 | 2,315 | 989,849 | 2,174 | 2,355 | 991,739 | 64 | 40 | 1,890 | 0.2 | |
| 충북 | 2,765 | 3,176 | 1,618,666 | 2,901 | 3,300 | 2,250,853 | 136 | 124 | 623,187 | 39.1 | |
| 충남 | 2,212 | 2,212 | 1,325,174 | 2,231 | 2,231 | 1,305,813 | 19 | 19 | (19,361) | -1.5 | |
| 전북 | 1,850 | 1,878 | 1,296,399 | 1,880 | 1,889 | 1,423,472 | 30 | 11 | 127,073 | 9.8 | |
| 전남 | 2,001 | 2,062 | 1,025,808 | 2,109 | 2,167 | 1,319,264 | 108 | 105 | 293,456 | 28.6 | |
| 경북 | 2,481 | 2,924 | 1,722,272 | 2,569 | 3,278 | 1,796,030 | 88 | 354 | 73,758 | 4.3 | |
| 경남 | 3,446 | 4,159 | 2,791,799 | 3,988 | 4,752 | 3,344,678 | 542 | 593 | 552,879 | 19.8 | |
| 제주 | 1,124 | 1,279 | 482,537 | 1,465 | 1,663 | 852,787 | 341 | 384 | 370,250 | 76.7 | |
| 합계 | 43,302 | 48,962 | 68,573,507 | 53,534 | 59,375 | 66,072,223 | 10,232 | 10,413 | (2,501,284) | -3.6 | ()=마이너스 |